

■ IFAC 연구보고서 2006-03

인천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 - 강화



인천문화재단

www.ifac.or.kr

인천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 - 강화

연구책임자 : 백지운 (인천문화재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이민주(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 요약 및 제언 】

강화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것은 1995년(3월 1일)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편입되었으나 심정적으로 강화와 인천 간의 격차는 아직 크다.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강화가 지니는 강한 지역성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그간 인천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클 것이다. 강화만이 아니라, 부평과 영종, 옹진 등을 내부로 편입하면서 인천은 정주성이나 토착성보다는 이질성과 외래성이 강한 도시로 형성되었다. 그런 만큼, 각 지역의 특성들을 인천의 문화적 자산으로 포용하는 것은, 국제적·개방적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중대한 토양이 된다.

강화는 고인들로 대표되는 선사시대 문화유적지이자 팔만대장경을 위시한 고려문화의 집결지이며, 중국의 양명학(陽明學)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조선시대 강화학파의 발원지이자 성공회와 같은 서양 기독교 선교의 시원지(始原地)이기도 하다. 이처럼 강화는 비단 인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역사적 문화적 흔적을 온몸에 담고 있는 문화적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안팎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문화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다. 물론 관에서 그간 강화를 전혀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인천광역시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보고서 「강화종합발전계획」이 나왔고, 2006년에는 강화군의 요청으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이 출간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계획’들이 갖는 문제는, 문화적인 시야를 결핍한 채 관광중심주의, 경제발전지상주의적 경향 속에서 발전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처럼 그 자체가 역사문화의 보고인 지역의 발전을 계획하는 데 문화 마인드의 결핍은 기왕의 유산을 송두리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강화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 생겼다. 강화가 지닌 천혜의 자연 조건 및 지리적·경제적 이점 탓인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화로 이주해 와 이미 그 수가 150인에 달하게 된 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 관에서 주도한 ‘발전계획’들이 공론으로 사라지고 또 그 안에 문화마인드의 심각한 결핍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주 문화예술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강화의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와 문화예술 주체집단의 공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과 민을 포괄한 문화전문가로 구성된 ‘문화 거버넌트’의 수립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선사시대에서 근대까지를 아우르는 강화의 문화유산을 강화의 지역적 특성으로 재조직함으로써, 강화를 인천의 중요한 문화지구로 만드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강화 발전의 관건은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특성화’하는 것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해 온 문화예술인과 강화 토착민의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강화는 타지역보다 폐쇄성이 강한 지역이고, 또 이주 문화예술인들은 강화에 대한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양자간의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강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문화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보아낼 전문가의 눈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에서, 이주 문화예술인들은 강화에 더없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이들을 보호하고 또 하루 빨리 지역사회에 융화됨으로써, 강화의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강화 지역 내의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강화에는 적지 않은 수의 문화예술 단체와 기

관들이 있지만, 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현재 강화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들은 재정적인 기반도 취약할 뿐더러, 상호간에 어떤 연계나 소통 역시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나 강화군 차원에서 이들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강화 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 강화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하여 강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역 내 미만한 개발과 투기 논리가 강화 문화예술자원의 파괴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강화의 발전계획을 전적으로 관에만 내맡겨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를 견인하고 강화의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 강화시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거버넌트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강화 문화예술의 발전은 소비만을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보다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고민하는 데서 그 통로가 열릴 것이다.

【 내용 차례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2장 강화지역의 인문적 특성과 의의	17
제1절 강화지역의 역사적 특성	17
제2절 강화의 지리적 특성	24
제3절 강화지역의 문화적 의의	31
제3장 문화예술인 마을의 모델로서 헤이리 마을과 강화지역 비교	43
제1절 ‘헤이리 아트벨리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특성	43
제2절 강화군 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현황 분석	57
제3절 문화예술 특별지구로서의 강화의 독자적 성격	79
제4장 강화 개발정책의 현황 분석	87
제1절 “강화종합발전계획”	87
제2절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98
제3절 강화 관련 발전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102
제5장 강화의 문화예술적 활성화를 위한 제안	107
【 참 고 문 헌 】	115
【 부 록 】	119

【 표 차례 】

<표 3-1> 헤이리 아트벨리 시설	44
<표 3-2> 헤이리 문화예술 관련 활동	53
<표 3-3> 출신지역	58
<표 3-4> 이전 거주 지역	59
<표 3-5> 거주 기간	59
<표 3-6> 강화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 동기	60
<표 3-7> 기타	60
<표 3-8> 거주 지역 분포	61
<표 3-9> 활동 분야	61
<표 3-10> 문화예술 활동 형태	62
<표 3-11> 거주지 용도 (다중 응답 문항)	63
<표 3-12> 활동 지역	63
<표 3-13> 강화의 생활/작업 환경 만족도	64
<표 3-14> 만족 이유	64
<표 3-15> 불만족 이유	64
<표 3-16> 강화의 거주/작업 적합도	65
<표 3-17> 거주/작업 적합 요소	65
<표 3-18> 거주/작업 부적합 요소	65
<표 3-19> 기금 지원 형태	66
<표 3-20> 기금 지원 형태 기타	66
<표 3-21> 강화 문화예술 관련 사업 관심도	67
<표 3-22> 문화지구 특성화 내용	67

<표 3-23> 문화지구 특성화 내용 기타	67
<표 3-24> 강화 문화예술 관련 시설	68
<표 3-25> 강화 문화예술 관련 단체	70
<표 4-1> 역사 문화 관광지 정비	91
<표 4-2> 생태 휴양 관광지 정비	91
<표 4-3> 온천, 보양 관광지 정비	92
<표 4-4> 관광루트 및 관리운영계획	92
<표 4-5> 사계절 관광 이벤트 계획	93
<표 4-6> 산업별 발전 계획	94
<표 4-7> 권역별 계획	95
<표 4-8> 사업 투자 계획	96
<표 4-9> 테마별 세부 사업	100
<표 4-10> 단위 사업별 추진 방식 및 사업비	101

【 그림 차례 】

<그림 3-1> 출신지역	58
<그림 3-2> 이전 거주 지역	59
<그림 3-3> 거주 기간	59
<그림 3-4> 이주 동기	60
<그림 3-5> 거주 지역 분포	61
<그림 3-6> 활동 분야	61
<그림 3-7> 문화예술 활동 형태	62
<그림 3-8> 활동 지역	63
<그림 3-9> 기금 지원 형태	66

<그림 3-10> 문화지구 특성화 내용	67
<그림 3-11> 강화문예회관	72
<그림 3-12> 강화역사관	73
<그림 3-13> 심은 미술관	74
<그림 3-14> 강화갯벌센터	7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강화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것은 1995년(3월 1일)이다. 편입된 시간이 짧아서인지 아직도 강화가 인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인천과 강화 양쪽 모두에게 썩 익숙치 않다.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강화가 가지고 있는 강한 지역성을 포용하고 융합하기 위한 노력을 그간 인천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1883년의 개항으로 탄생한 근대도시 인천은 그 시작부터 열강의 각축장이었고 그런 점에서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 후 지금까지, 내륙의 부평, 강화와 옹진, 영종도를 내부에 편입하면서, 인천은 정주성이나 토착성보다는 이질성과 외래성이 강한 도시로 형성되었다. 동북아 허브 도시로서 새로운 비상을 목전에 두고, 인천은 지금 해묵은 정체성 논의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현재의 인천이 형성되기까지의 이력이 단순치 않음을 반증한다. 어떤 단일한 하나로 인천을 상징하기에 인천 안에는 너무 많은 외래적 요소들이 잡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인천이 긍정적인 견인차로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강화가 갖는 이질성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은 인천의 문예부흥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현실화시키는 데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강화 자체가 가진 지역성을 특징짓는 것부터가 간단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강화는 고인돌로 대표되는 선사시대 문화유적지이자 팔만대장경을 위시한 고려문화의 집결지이며, 중국의 양명학(陽明學)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조선시대 강화학파의 발원지이자 성공회와 같은 서양 기독교 선교의 시원지(始原地)이기도 하다. 이처럼 강화는 비단 인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역사적 문화적 흔적을 온몸에 담고 있는 문화적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안팎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문화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 송도, 영종도, 청라 지구 등 인천 일대에 개발 폭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강화는 여전히 소외된 이역(異域)이다. 그런 까닭에 강화 주민들은 인천에 대해, 발전과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강한 피해의식을 품고 있으며 그런 것이 다시 타지역에 대한 배타성으로 표현되어, 인천과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물론 인천시에서 그간 강화를 전혀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인천광역시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보고서 「강화종합발전계획」이 나왔고, 2006년에는 강화군의 요청으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이 출간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보고서에서 제출한 이른바 ‘발전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의 여부는 따로 논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만다는 데 있다. 2006년 한국토지공사의 발주로 나온 후자는 강화도를 2020년까지 3개 유형 즉 역사문화형, 생태전원형, 여가휴양형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¹⁾ 우선 사업비만 총 3조 8천 643억원 규모인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지도 의문이며, 그보다 과거에도 이같은 계획이 수없이 출현과 백지화를 거듭해온지라 좀처럼 강화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발전계획이 갖는 ‘콘셉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강화의 역사문화, 생태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바탕에 깔린 관광주의, 경제발전중심주의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강화처럼 그 자체가 역사문화의 보고인 지역의 발전을 계획하는 데 문화 마인드의 결핍은 기왕의 유산을 송두리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강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해석하고 그것을 인천뿐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대표적 명소로 끌어올릴 만한 눈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개입이 없는 한, 그간의 술한 ‘발전계획’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강화에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생겨났다. 강

1) <강화도 2020년까지 3개 유형 개발>, 조선일보, 2006년 11월 28일자.

화가 지닌 천혜의 자연 조건 및 지리적·경제적 이점 탓인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화로 이주해 와 이미 그 수가 150인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인구 6만 5천의 군에 이같은 숫자는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인 만큼, 이들은 아직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이다. 강화의 자연적 조건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영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와 강화 원주민의 배타성 속에서 각 개고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되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첫 지역문화실태조사 대상으로 강화를 택했을 때 반응은 다양했다. 강화가 내포한 문화예술적 잠재성이 꽃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해 온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여준 반면, 인천이 언제부터 강화에 관심을 가졌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문화도시 인천이 새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송도 등 국제적 규모의 신도시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중동구 구도심의 근대문화, 강화의 역사문화 등 기왕의 문화유산을 재생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중구는 최근 자유공원 일대의 근대 건축물 복원 사업안을 시에서 내놓은 만큼 어느 정도 진행되는 듯하나, 강화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의 일차적인 관심은 지난 몇 년 동안 외지의 문화예술인들이 강화로 이주해 오는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여러 차례 관에서 주도한 ‘발전계획’들이 공론으로 사라지고 또 그 안에 심각한 문화마인드 결핍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주 문화예술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강화의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와 문화예술 주체집단의 공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과 민을 포괄한 문화전문가로 구성된 ‘문화 거버넌트’의 수립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선사시대에서 근대까지를 아우르는 강화의 문화유산을 강화의 지역적 특성으로 재조직함으로써, 강화를 인천의 중요한 문화지구로 만드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강화인에게만 내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시는 강화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이 문화로 무장한 국제도

시 인천을 일구어내는 데 중대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이 보고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연속적으로 기획하는 ‘인천지역문화예술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인천은 전통과 근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국제도시 같은 현대 도시의 면모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한편, 중구와 동구는 개항으로 근대 인천을 열었던 잔재들이 제대로 정리와 보존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산재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강화처럼 선사와 고려, 조선, 근대를 포괄하는 전통문화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많은 이주문화예술인의 역량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도 있다. 이런 상황을 보전대, 인천은 어떤 하나의 문화정체성을 고집하기보다, 각 소지역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성격을 그에 맞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강화가 갖고 있는 전통적, 근대적, 현대적 문화유산을 강화 토박이와 이주 문화예술인이 힘을 합치고, 또 강화와 인천이 내외 구별 없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먼저 본론의 첫 장인 제2장에서는 강화지역이 가지는 인문적 특성을 정리했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의 각 시점마다, 강화는 중대한 문화적 자취를 담고 있다. 2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강화가 걸어온 역사를 종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강화가 점하는 역사적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강화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정리했다. 강화는 일찍부터 해양지리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했으며, 또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하구에 위치함으로써 한반도의 중부를 연결하는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강화는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음으로써 예로부터 수도가 위협에 처했을 때 주요 피난지이자 대몽 항쟁을 벌인 곳이기도 하며 근대에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몸으로 막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과 개성을 연결하는 주요한 연결지점으로 부상함으로써 통일 시대의 남북의 가교로서, 그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들 내용으로 바탕으로 세 번째 절에서는 강화의 문화적 의의를 정리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 고려시대의 고려대장경, 금속활자, 고려청자, 대몽항쟁의 정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정제두(鄭齊斗, 1649-1736)를 필두로 하여 주류학파인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지양하고 양명학(陽明學)의 실학적 이념을 심화함으로써 민족 주체적 학풍을 만들어낸 강화학파가 이곳에서 터를 잡았다. 근대에 이르면 수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강화는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비극의 땅이었던 강화는 결국 한국 기독교의 시원지(始原地)가 되었다. 특히 성공회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기도 한데, 1900년 한국 전통 양식과 서구 바실리카 양식의 조화 속에 탄생한 성공회 강화성당은 현재 사적 4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898년에 세워진 성공회 온수리 성당과 1923년에 세워진 중앙교회가 각각 문화재자료 15호와 14호로 등록되어 있다.

제2장이 기왕의 강화의 문화자원들을 점검하는 장이었다고 한다면, 본론의 두 번째 장인 제3장은 현재 강화 문화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조사하고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특화하기 위해 가능한 지점들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하나의 참고사례로서 ‘헤이리 예술인 마을’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첨가했다. ‘헤이리 아트벨리’는 1994년 몇 명의 출판인으로 출발하여, 1997년에 서화촌 건설위원회가 정식으로 창립했고, 출판인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복합적인 아트벨리로 구성되었다. 강화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예술인들이 비조직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주해 오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이에 문화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헤이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리 예술인 마을의 사례에서 참고할 거리들은 많다. 무엇보다 이곳은 그 지역에 정주하는 토착인들이 아닌 이주자들이 모여 거주지를 복합적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갔다는 점은, 하나의 좋은 도시문화운동의 사례이다. 현재 강화의 경우,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살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지역의 문화적 힘으로 집약되어 있지 못하다. 소그룹 차원의 작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개인 작업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강화에 거주만 하고 있을 뿐 강화라는 지역성을 구심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비록 처음에는 개별적, 자연적으로 이주해왔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다소 조직적으로 역량을 집약하고 지역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헤이리에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헤이리 퍼포먼스’, ‘헤이리 페스티벌’, ‘헤이리 국제판화전’, ‘헤이리 겨울빛 축제’, ‘중국현대예술 페스티벌’ 등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 사이를 오가며 크고 작은 규모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

헤이리가 ‘무’에서 시작하여 ‘유’를 만들어가는 경우라 한다면, 강화의 경우는 기왕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인 만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다. 특히 고인돌 축제처럼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있는 문화축제를 강화군에 내맡기기보다 이주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조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제안으로서, 강화의 문화예술적 특성화를 위해 강화가 갖고 있는 기왕의 자원 중, ‘고려문화권’과 ‘남북문화의 가교’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소략하게 제시했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4장에서는 그간에 출간된 각종 ‘강화발전계획’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주 문화예술인이든 강화 원주민이든,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간 관에서 발표한 이른바 ‘발전계획’에 대해 심각한 불만과 불신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들이 강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다시 말해 강화가 아닌 어떤 다른 지역에 적용해도 다 나올 수 있을 법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강화가 인천시 내에서 경제 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는 만큼, 경제개발적 대안도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강화는 비단 인천뿐 아니라 한국 전체의 차원에서 손꼽히는 문화 유적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화 문화 자원

의 현재적 복원과 기념에 대한 고민이 강화 개발계획의 중심에 놓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간의 발전계획이 실현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실현에 착수한 적이 없이 계획으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각종의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리라 추정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인천시에 대한 강화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강화 지역의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와의 인터뷰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특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토착민과 이주민의 융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자는 것, 그리고 강화 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중심적인 테마파크식 개발을 지양하고 문화의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마련하자는 안들이 제기되었다.

2. 연구의 방법

그간 인천에서 강화의 문화예술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보고서나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최근 강화로 이주해 온 문화예술인에 맞추었지만, 강화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한 종합적 자료 정리와 서술을 함께 겸비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강화의 역사, 지리, 문화에 관련한 자료 정리, 이주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분석, 강화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답사, 헤이리 예술인 마을 관계자 인터뷰와 자료정리, 강화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 등이 동원되었다.

먼저, 강화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한 종합적 자료 정리에 대해서는 강화군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신편강화사(상중)』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았음을 밝혀 둔다.

다음으로, 이 보고서는 강화로 이주해 온 문화예술인에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역시 외지로부터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예술인 마을을 만든 헤이리의 사례를 참고로 삼았다. 헤이리 현지를 답사하고 사단법인 헤이리의 사무국 홍보팀장 및 관계자와 두 차례 인터뷰를 시행했다. 인터뷰와 그곳에서 발행하는 잡지 『C3 Korea』 및 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본문 제3장의 일부가 기술되었다.

또한, 강화에 거주하는 이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현황과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우선 조사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난관이었다. 인천광역시에서 200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화군에서 문화, 오락, 운동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의 수가 240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이들이 모두 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 따라 강화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 바가 없다. 본 설문조사는 이러한 제한적 조건 하에서, 강화문화원과 강화 민예총의 회원을 주 대상으로 삼아 진행했다. 이 두 단체를 통해 파악한 바 문화예술인의 수는 모두 140명이었고, 그 중 설문에 응한 이들의 수는 11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강화의 거주 동기 및 만족도, 강화 지역을 문화예술적으로 특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활동분야, 출신지역, 활동지역 등 개인적 현황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분석은 본론 제3장에 기술되어 있으나, 여기서 주요한 시사점만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에 이주해 온 문화예술들이 주 활동지역으로 강화를 택하게 된 데에는, 강화의 자연조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반면, 강화의 실제 작업 조건에 대해 불만스러운 사항으로 ‘문화기반 시설 및 인프라 부족’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로 보아 강화는 자연조건과 같은 기초 조건 면에서는 우수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유인하는 힘은 크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주해서 작업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문화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응답한 이주 문화예술인들의 대다수가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작업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강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드러났다. 또한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특성화한다고 할 때 그 특성화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로 보아, 강화 지역의 이주 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예술집단으로 조직되지 않은 채 개별화되어 있지만, 문화예술적 공간으로서 강화에 대해 갖는 애정과 관심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시도한 설문조사인 만큼, 개략적인 현황과 의견을 묻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몇 가지를 제안한다면, 첫째, 이주 문화예술인의 강화 지역사회 속에 화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문제, 둘째,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강화종합발전계획에 문화예술인들이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셋째, 강화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결합하는 문제, 넷째, 헤이리의 사례를 참고로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을 조직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가 그런 예이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강화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조사로서 문화예술단체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서 실었다. 조사 결과, 강화에 있는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개수는 총 21개, 문화예술관련 단체의 수는 29개였다. 이 역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도 상당히 많은 단체와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이들 시설과 단체가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는가, 그런 시설들을 강화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 단체들의 활동이 강화 내부나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어떻게 네트워킹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각 시설 및 단체의 연혁과 소재지, 활동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 조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강화의 문화예술 기반을 한눈에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각 시설 및 단체의 세부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평가 등 심화된 실태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 시민단체,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했

다.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첫째, 강화에 무수한 문화자원과 문화예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단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그것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관광에 치중되어 있어,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지역 예술가나 시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매우 적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를 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성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강화문화원이나 강화군 문화관광과 등 강화군 내의 관과 민의 협력 방안도 필요하거니와, 인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육성 지원 및 공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각별히 필요하다. 특히 강화군뿐 아니라 인천시 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도서 지역에 대해 쿼터제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워크숍은 ‘강화의 문화예술지역으로의 특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12월 11일에 개최했다. 여기에는 강화 문화예술인, 강화 시민단체, 강화 도시연구자 그리고 헤이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특히 이주 문화예술인과 강화 토착민 간의 갭을 극복하는 문제는 이전까지 의식되지 못한 부분이었으나, 그것이 강화의 문화예술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실 매우 중대한 요소임을 발견한 것이 큰 성과였다. 또한 강화의 문화예술인도 강화문화예술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고인들을 강화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고급화하고 국책 고려문화연구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생산적인 제안들이 있었다. 토론 내용은 녹취하여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따로 실었다.

이처럼 이 보고서는 강화의 문화예술실태 조사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답기 위해 노력했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만 강화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관련자와 인천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안으로는 강화 이주예술인과 강화 지역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밖으로는 강화와 인천 간의 연결망을 마련하는 데 초보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 문제는 이런 작은 성과들이 보고서 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강화군과 강화문화예술인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강화의 자원들이 인천의 소중한 문화예술자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제2장 강화지역의 인문적 특성과 의의

제1절 강화지역의 역사적 특성

제2절 강화의 지리적 특성

제3절 강화지역의 문화적 의의

제2장 강화지역의 인문적 특성과 의의

제1절 강화지역의 역사적 특성

1. 선사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 고인돌과 청동기 문화

강화에 인류가 거주한 것은 구석기시대로부터 추정되지만,²⁾ 강화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흔적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이다. 대체로 강화 북쪽에 군집을 이루며 분포해 있는 약 150여기의 고인돌 - 교산리 고인돌군, 그 아래 부근리 고인돌군, 삼거리 고인돌군, 고천리 고인돌군, 오상리 고인돌군 등 -이 그것이다. 강화의 고인돌이 주목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인돌이 국가 성립의 전단계로 보는 ‘족장사회’의 산물이라는 시각 때문이다.³⁾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사회 내부의 계층 분화와 지배 권력이 존재했으며, 지배 권력층의 우두머리인 족장의 권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동기 시대에 형성된 강화의 지배세력은 한반도 중부지방의 길목이라는 지형적인 위치를 이용하면서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선북 지방의 문화를 흡수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⁴⁾

2.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 혈구진과 강화천도

2) “구석기 시대의 단일 유적이 강화에서 발굴된 적은 없다. 그러나 장정리에서 구석기 유물의 하나인 쌍날찌개가 발견 보고된 바 있다. 이는 강화에서 구석기 문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실히 제시해 준다. 따라서 구석기 유적을 찾고자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단일유적이 강화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광, “총설-역사 문화적 특성”,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7~8

3) 서영대, “강화지역 소국의 형성”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75

4) 같은 글 p.82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관계 안에서 우위를 점했던 국가들이 차례로(백제, 고구려, 신라) 강화를 장악하였다. 특히 통일 신라 시대에는 강화가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강화에 혈구진(穴口鎭)을 설치하였다. 당과 신라를 연결하는 항로 가운데 북부 연안 항로와 중부 횡단 항로의 길목인 강화는 대당(對當)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거점일 뿐 아니라, 예성강과 임진강, 한강의 하구에 해당되는 요충지로서 국내의 주요 통상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⁵⁾

고려시대의 강화는 대몽 항쟁의 시기 이전까지 중앙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고려 건국 직후 왕권 세력과 강화의 해상 세력 간에 존재 하던 정치적 대립 관계가 강화 세력의 성장을 저지하였으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바다를 통한 군사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 강화가 가지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퇴색되었던 것이다. 또한 강화가 물류 이동의 무역 항로에서도 집산지가 되지 못하고 예성강의 벽란도로 들어가는 통과지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었다.⁶⁾

그러나 1231년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게 되자, 고려는 몽고의 침략에 맞서 지리적 조건이 방어에 유리한 강화를 전시 수도로 주목하게 되었다. 이듬해 강화는 고려의 전시수도가 되어 1270년 개경환도 이전까지 강화경(江華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려 무인 정권은 수도를 강화로 옮김과 동시에 개경의 주민과 궁궐, 내/외성, 각 관청, 공해(公廩), 방어시설, 사찰, 교육 기관 등의 시설들도 함께 이전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강화경(江華京) 기간 동안에 팔만대장경 조판과 금속 활자를 이용한 서적 인쇄, 그리고 고려청자 제작 등의 문화적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배층의 계급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민의 생활을 돌보지 않았던 무인 정권의 대몽 항쟁은 성공적일 수 없었다. 장기간에 걸친 몽고

5) 조광, "충실-역사 문화적 특성"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9

6) 같은 글 p.10

침략뿐만 아니라 과중한 부세와 강도의 융성으로 민들이 피폐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해 몽골에 투항하거나 지배층에 맞서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장기화되는 몽고 침략과 민들의 저항에 궁지에 몰린 무인 정권은 대몽 화의를 논의하여 결국 1270년에 개경환도를 단행했다. 이에 반대했던 삼별초가 강화에서 봉기를 일으켜 고려 조정과 몽고에 항쟁하여 새로운 질서를 희구하던 민중들도 이에 합류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진도와 제주도로 남하하며 소멸해갈 수밖에 없었다.

고려 말에는 왜구와 홍건적이 강화에 빈번하게 출몰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 조정은 방어기지로서 강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강화의 내성과 외성 및 행궁과 관량(關梁), 진보(鎭堡)와 봉수(烽燧) 등의 시설을 재건하였다. 홍건적의 침입이 1359년에서 1362년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것이라면 왜구는 공민왕 즉위 이전부터 고려가 망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려를 괴롭혔다. 이들은 특히 강화를 빈번하게 공격했는데, 이는 개경으로 가는 길목인 강화를 점령하면 조운선을 탈취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강화의 높은 농업 생산량을 약탈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⁷⁾ 이와 같은 침입으로 고려 조정은 방어기지로서 강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강화의 내성과 외성 및 행궁과 관량(關梁), 진보(鎭堡)와 봉수(烽燧) 등의 시설을 재건하였다.

3. 조선시대의 강화 - 수도 방어와 보장처, 그리고 열강의 침입

조선 건국 직후부터 임진왜란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강화는 고조된 국방상의 관심으로 인해 방어기지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동안 강화는 국도 한성의 해상관문이라는 점에서 군사 지리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강화는 서해에서 도성으로 통하는 해로의 관문으로서 경성을 되찾기 위한 여러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전략

7) 박종진, "개경환도 이후의 강화"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318

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군량 공급 등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이자 여러 전술을 구사하기에 완벽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했다.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숙종대의 기간 동안, 강화는 왕실의 피난지인 보장처(保障處)로 주목받게 되었다. 실제로 1627년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강화에 잠시 피난하기도 했으며, 청의 위협에 대비하고 도성 주변의 수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남양에 있던 수영(水營)을 강화의 월곶진으로 옮겨 설치했다. 또한 행궁(行宮)을 비롯한 각종 관아의 소속 건물들도 강화에 설립했다.

이후 영조 무신난 이후 개항에 이르는 시기 동안 강화는 단지 왕실의 피난처가 아닌 도성을 수비하기 위한 외각 방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개항 전후의 강화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격전지가 되었다. 1866년에 프랑스 함대가 강화에 상륙하여 강화성을 함락하고 약 1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퇴각한 병인양요, 1871년 강화 해협을 거슬러 올라와 초지진과 덕진진,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신미양요, 초지진과 포대가 일본 군함의 포격을 받고 완전히 파괴되었던 운요호 사건과 이를 계기로 일본의 강압 하에 1876년에 체결되어 일본에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던 강화도 조약이 이를 입증한다. 이후 조선이 맞이해야 했던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대한민국의 탄생과 한국전쟁 등과 같은 근대의 격랑을 강화도 함께 견뎌야 했다.

4. 일제 강점기 - 대규모의 3.1운동 만세 시위

강화는 3.1운동 당시 매우 강한 저항을 보였던 지역 중 하나이다. 강화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감리교 계통의 신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었고, 곧 그 참여범위가 확산되어 갔다. 강화에서 본격적으로 만

8) 조원래, "임진왜란과 강화의 항전"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397

세시위가 일어난 때는 강화 읍내장날인 3월 18일이었는데, 이 날의 시위에는 1만 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⁹⁾ 당시 강화의 만세 시위는 진주에서의 만세 시위와 함께 시위 규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사례가 되었다. 그 후 강화에서는 3월 27일에 다시 만세 시위가 강행되었고, 이후 4월 8일에는 강화의 중부지역인 선원면, 양도면, 삼산면 등 도내 8개소에서 다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강화의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로 일관하였으며, 전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성공회 신자들이 시위에 참여했던 특징을 가진다 할 수 있다.¹⁰⁾

5. 해방 이후 -좌우익 이념의 대립지

강화는 남북을 분단하는 38선 부근에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 건국 직후 남과 북이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던 지점이었다. 1945년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은 강화를 전초기지로 삼아 경찰관이나 면장을 빈번히 살해/피습하기도 했다. 미군정과 한국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강화지역 주민들의 반공주의 이념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강화의 우익 세력들은 황해도 신천, 은율, 안악, 재령, 장연 등지에서 벌어졌던 반공유격 활동에 자극을 받아 많은 수의 우익 단체를 결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강화에는 연백, 웅진 지역의 피난민과 함께 연백과 배천 지구에서 후퇴한 경찰들이 집결하게 되었다. 국군은 전쟁 발발 직후 강화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김포와 강화의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군은 6월 26일 강화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갑곶진을 지나 강화읍을 점령하였다. 이후 국군의 수복, 1.4후퇴, 국군의 재탈환을 겪으면서, 강화는 국군과 북한군에 의해 번갈아 점령당해야 했다. 이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강화의 많은 좌·우익 인사들이 상대에 의

9) 조광, "역사 문화적 특성"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26

10) 김성민, "3·1 운동과 강화"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655

해 학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군 점령 당시 삼산면 매음리 해변에서 공산주의자 150명이 한꺼번에 사살되기도 하였고, 전쟁 기간 동안 강화에서 처형당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수의 양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¹¹⁾ 후일 이 때 처형당한 양민의 유족들은 ‘강화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6. 현대의 강화 - 강화대교의 설립과 문화적 발전

현대에 이르러 강화는 1973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고 1995년 군 전체가 경기도 인천 광역시로 편입되었다. 강화의 현대적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강화 대교의 개통과 강화 문화재의 보수일 것이다. 강화는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인데다가 섬 둘레가 배를 마음대로 대기 어려운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서해안 특유의 험격한 조차와 빠른 물살의 역류로 인해 육지를 내왕하는 교통이 열악하다. 그러나 1970년 1월 2일, 길이 694m, 너비 10m인 강화대교가 개통됨으로써 강화는 더 이상 섬이 아닌 육지의 연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신 강화대교의 개통, 서울 및 인천과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계되는 서울 88제방도로 및 외곽고속도로와의 연결 등을 통해 강화는 육지와의 연계 안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1966년 서문(西門)의 해체 복원을 기점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되어 온 역사 유적 복원 사업은 강화를 역사·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 1983년에는 강화의 성곽 일부까지도 복원할 수 있었고, 1998년 이후 5개년 계획으로 삼랑성, 강화산성, 외규장각, 고려왕릉, 선원사지, 5진 7보 53돈대의 국방유적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¹²⁾ 이와 함께, 1977년부터는 군에서는 마니산을 국민관광지로 지정 개발하는 한편, 단

11) 조광, "역사 문화적 특성"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29

12) 조광, "역사 문화적 특성"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29

군 성지로서 성역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강화는 관광 산업의 기반을 다져 강화문화제, 고인돌축제, 참성단축제 등의 축제 유치와 함께 문화와 관광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제2절 강화의 지리적 특성

1. 강화의 지리적 위치와 그 의미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서 유인도 9개, 무인도 18개의 도서(島嶼) 상에 강화읍을 비롯하여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삼산, 서도면 등 1개 읍과 12개 면, 183개의 리(행정, 법정 리는 96), 313개의 자연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 41,260km²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이 교동면(47.159km²)이고, 가장 좁은 면은 서도면(13.122km²)이며 나머지 면들은 대체로 20km² 내외의 면적을 가진다. 강화군 서도면 말도(126° 8′)를 서단으로 하여 동단의 길상면 황산도(125° 33′)까지 대략 16km의 동서 폭과 양사면 북성리(37° 45′)를 북단으로 하여 남단의 길상면 동점리(37° 31′)까지 대략 27km의 남북 폭을 가진다.¹³⁾

강화는 한반도의 중단부 서단, 서해 북부 경기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여러 지역들을 연계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동으로는 김포반도의 문수산성 등이 있는 통진 지역과 그 아래의 대곶 지역을 갑곶진이 마주보고 있고, 동·남해 쪽으로는 인천광역시와 통해 있다. 남쪽은 마니산 동남방의 동막 맞은편이 영종도를 바라보고 있고 서남쪽으로는 마니산 서방에 장화리가 있다. 장화리 맞은편에는 장봉도가 있고, 그 서쪽 끝은 서도면의 말도며, 그 바깥쪽은 서해 연평바다와 접해 있다. 그 맞은편은 개성 남방, 해창진 나루터가 있고 동북으로는 월곶진이 있다. 또한 동쪽 수로는 한강을 거쳐 맞은편 옛 풍덕군의 백만산성과 접하고 있다. 북쪽은 예성강구와 만나는 넓은 만 건너편에 연안군, 배천군의 여러 지역과 만나고 있다. 특히 강화의 주 섬인 강화도는 경기도의 서쪽 지역과 개성 남쪽의 풍덕과 웅진, 해주 등 황해도의 남부 해안 일대와 마주치는 북부 경기만의 입구를 꼭 채우면서 한강과 임진강, 예성

13) “강화지역의 산과 하천” 『인천의 산과 하천』 (인천: 인천광역시, 2005) p.140

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화의 지리적 위치는 강화를 해양 지리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시켜 왔다. 우선, 강화가 경기만의 북부에 위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정치, 교역, 군사를 둘러싼 힘들이 부딪히는 격전장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만은 한반도 북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과 중국의 강남에서 들어오는 길,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길, 한반도 남부에서 오는 길, 일본열도에서 오는 길 등 황해의 모든 물길이 상호 교차하여 한반도 서안의 연안항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¹⁴⁾ 실제로 3세기 중반에 시도된 위와 대방, 한반도 남부, 일본열도의 큐슈지역을 연결하는 해상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 강화는 그 핵심거점이기도 하였다.

강화는 또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를 장악하는 것은 곧 한반도 중부를 연결하는 하계망의 장악을 의미한다. 강화는 중부의 거의 모든 지역과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 한강의 종착지일 뿐 아니라, 연천, 파주 등 경기도 이북을 흐르는 임진강이 김포 반도에서 한강과 만나 내려오는 지점이기도 하고, 황해도 지역을 아우르며 개성과 이어진 예성강이 한강과 만나는 곳도 강화 북부이다. 이 뿐 아니라 연안군 등을 통하면 재령강과 연결되고, 대동강과도 이어질 수가 있다.¹⁵⁾ 이처럼 강화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하계망을 활용하면 한반도 중부지역 전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화는 예로부터 혈구, 해구 등으로 불리어 왔다.

마지막으로 강화는 수도(서울)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언제나 수도로 들어가는 해상 관문의 역할을 해왔다. 지방의 생산물을 싣고 올라오는 조운선과 외국과 교류하는 무역선은 언제나 강화를 거쳐 수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강화는 외래문화 수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사건과 강화도 조약 등의 사건과 강화에 성공회, 감리교, 천주교 등 기독교 문화가 일찍부터

14) 윤명철, “해양활동”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250

15) 같은 글, p.252

자리 잡아 내륙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수도에서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정치적 다툼에서 밀려난 많은 왕족들이 강화로 유배되기도 하였고, 이에 갯벌이라는 천혜의 방어 조건이 더해져 왕실의 보장처와 방어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행궁과 외규장각, 사고와 선원보각, 곡물의 저장을 위한 대규모의 창고가 강화에 설립되기도 했다.

2. 염하와 갯벌의 발달

강화도 북부의 동쪽에는 김포반도 사이에 강화수로(염하)라는 매우 좁고 조수의 흐름이 불규칙한 협수로가 있어 강화를 육지나 다름없는 섬으로 만들고 있다. 정확하게 한남정맥과 강화의 산줄기를 가르고 있는 염하는 한강과 임진강에서 흘러온 물이 서해와 합쳐지는 곳이다. 강화수로는 한강 민물과 서해 바닷물이 뒤섞이는 염하(鹽河)로 고려·조선 시대에는 수운을 통해 삼남지방의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는 중요한 길목이었고, 개경과 한양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염하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화수로는 밀물과 썰물 때 조류가 대단히 빨라 선박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이로 인해 고려시대 때 해전에 익숙하지 않은 몽골과의 항쟁의 근거지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격전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강화가 위치한 경기만의 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며,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화 또한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운반하는 막대한 양의 토사가 강화수역에 퇴적되어 큰 섬들 주위에 넓은 갯벌을 발달시켰다. 강화의 갯벌은 조류의 방향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며, 최대 갯벌의 너비는 약 5km이며, 전체 갯벌의 규모는 약 90km에 이른다.¹⁶⁾

16) 홍재상, “갯벌 환경과 보존”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328

강화 주변의 갯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¹⁷⁾ 첫 번째로, 한강 하구의 갯벌은 전형적인 하구 갯벌로서 국내에 현존하는 하구 중 자연성이 가장 높은 갯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 주변의 한강 하구 갯벌은 한반도의 갯벌 가운데 유일한 대규모의 하구 갯벌이며, 간척 사업과 양식장 시설 등으로 자연 경관이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는 북쪽 갯벌은 아직까지도 본래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그 자연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강 하구 갯벌로서의 강화의 갯벌은 철새 도래지로 대단위 저서동물 군집이 있고, 다양한 소규모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과거에도 이곳을 국내 최초의 해안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가 1999년 석도에서 집단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2000년 7월 6일에 문화재청에 의해 강화와 서쪽의 인근 섬 일대가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화의 갯벌은 수도권에 가깝게 위치하는데다가, 인근의 영종도 갯벌을 매립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건설한 사례와 같이 여러 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개발 논리에 밀려 갯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의 갯벌 보존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강화의 갯벌 발달은 강화를 방어 수비의 갯벌의 발달은 선박의 진입과 접안을 어렵게 하여 이전부터 적을 침입하는 데 매우 유리한 특징으로 여겨졌다. 강화가 국방상의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도의 입구인 인후지처(咽喉之處)이며 한강과 바다가 만나는 해구라는 지리전략적인 장점도 있었지만, 갯벌의 발달과 같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어상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⁸⁾ 또한 강화의 갯벌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간척되어 인공 평야가 되었고, 이를 통해 복잡하게 산재해 있던 섬들이 연속되어 석모도와 같이 큰 섬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17) 다음의 논의는 홍재상, “갯벌 환경과 보존”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 사편찬위원회, 2003) 을 참고하였다.

18) 윤명철, “해양활동”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250

3. 간척지의 발달

강화지역의 총면적 41,260km² 가운데 간척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인 약 130km²에 달한다. 강화의 간척지의 대부분은 주로 논으로 사용되고, 일부 지역만이 염전, 양어장, 취락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¹⁹⁾ 강화에 분포된 논 가운데 해발 10m 이상의 곡저평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논은 간척농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강화 북부의 간척지는 송정평(약 7km²), 망월평(약 15km²), 조산평 등 넓은 평야와 기타의 소규모의 들로 구성되는 최대의 곡창지대이다. 경지율은 약 44%인데, 그 중 논 비율은 약 84%에 달한다.²⁰⁾ 강화 남부의 경지율은 약 38%이며 논 비율은 72%에 달한다.²¹⁾ 선두평과 망월평((약 17.5km²), 굴곶평과 황산평과 홍왕평과 대청평 등의 간척평야가 존재하나 마니산, 진강산, 길상산 등 높은 산지가 발달하여 경지율은 북부보다 낮다. 선두포언 남쪽의 대규모 신간척지가 1980년대에 완공된 후 과거의 습지 수로가 대규모 저수지로 정비되었다. 대형 저수지의 완공으로 대부분의 간척지가 개답되었고, 선두평 남단과 홍왕평 일부는 새우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동도는 총면적 4800여 ha 중에 67.6%가 경지로 이용되었는데, 그 중 82% 정도가 논이었다.²²⁾ 그러나 섬 주위에는 조선후기에 포락으로 유실된 옛 간척지가 약 400ha나 남아있었다. 이러한 포락지들은 교동도 서남단 해변, 서북부 무학리 해변, 읍내리 해변, 북부 영산언 밖 등지에 분포하였는데 1960년대 중반 대부분이 간척되었다.

석모도의 면적은 약 3720ha인데 섬의 남쪽은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넓은 농경지는 북쪽 송가평에 집중되어 있었다.²³⁾ 경지의 약 70%를 차지하는 논은 대부분이 간척지이다. 일본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매음리

19) 최영준, “강화의 간척사업과 지형변화”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302

20) 같은 글, p.304

21) 같은 글, p.304

22) 같은 글, p.304

23) 같은 글, p.305

와 여유정도 사이에 남아있던 630ha의 염생 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간척된 시기는 1960년대이며, 이후 일부는 논으로 이용되고 일부는 염전으로 개발되었다.

국내 간척 사업의 시원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고려 시대의 대규모 간척은 바로 강화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의 강화 간척 사업은 몽골의 침입으로 1232년(원종 11)에 단행한 강도(江都) 천도로 인해 비롯되었다. 당시 강화로 이주한 40~50만명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과 연료 등의 생필품 공급은 고려 조정이 타개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천도 당시 고려는 강화가 서해 조운상의 요지이므로 식량공급이 용이하리라고 보았으나, 몽골항쟁으로 인해 농토 자체가 황폐화되었을 뿐 아니라 삼남 곡창지대의 백성들조차 농토를 버리고 산으로 대피하자 전세의 수납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나아가 13세기 초부터는 서남해안에 출몰하던 왜구가 조운로까지 봉쇄하여, 다른 방식의 식량 조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식량난의 위기에 내몰린 고려 조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1256년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공민왕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강화의 간척 사업은 오늘날 강화에서 단일 간척평야로는 가장 넓은 만월평을 이루어내었다.²⁴⁾ 하점면 창후리의 별립산 산자락 말단부로부터 망월돈대의 암초에 이르는 약 3km의 바다를 막아, 이른바 만리장성 독을 완공함으로써 삼거천 갯벌 일대의 갯벌이 농경지로 바뀌었다. 이어서 내가면 황청리 서쪽의 포춘 해안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 망월돈 암초에 이르는 방조제 완공으로 오늘날의 만월평이 되었다. 이 평야는 북쪽의 삼거천과 남쪽의 오미천의 물을 관개용수로 확보하여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지대가 되었다. 또한 만리장성 독 축조와 비슷한 시기에 교동도 북쪽 고구려에서도 간척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간척지의 관개용 수원으로 옥동 저수지가 완공되었다.

강화에서는 고려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다. 조

24) 최영준, “강화의 간척사업과 지형변화”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293

선 후기에는 선두포언, 송가평, 장지평, 굴곶평 등을 이루어냈고, 이들 평야는 오늘날 강화지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간척지 조사가 행해지기는 했으나 강화도 본섬보다는 주로 석모도와 교동도에서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8.15 해방 직후와 1.4 후퇴 당시 황해도의 연백, 웅진, 벽성 등지로부터 월남한 동포들 다수가 강화지역에 정착했고, 황해도 해안의 간척지 출신의 동포들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재개되었다. 정부 역시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야산개발과 간척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저수지를 비롯한 관개시설 건설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간척사업은 일제강점기까지 개발이 보류되었던 간척지 아니면 과거의 방조제 바깥쪽에 새롭게 발달한 고위 간척지면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간척사업 중에 선두포언 남쪽의 간척지와 황산평 간척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라 할 수 있다.

간척사업에 의하여 강화의 지형, 특히 해안지형과 토지 경관은 크게 변화하였다. 복잡했던 해안선은 방조제 건설로 단조로워졌고 섬들은 연육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 교동, 석모 등 세 개의 큰 섬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간척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조류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했던 갯벌의 침식, 지반 침하 등의 재해도 뒤를 따랐다.

제3절 강화지역의 문화적 의의

1. 단군 숭배 사상과 고인돌, 참성단

강화가 단군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한반도 역사의 기원지로 이야기되는 데에는 강화에 존재하는 두 개의 유적 뜻이 크다. 바로 ‘부근리 고인돌’을 비롯한 150여 기의 고인돌과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알려져 온 마니산의 참성단이 그것이다.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 대 초에 강화에서는 무려 100여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발견·조사·확인되었다. 그리고 이후 발견된 40여 기까지 더해 현재 강화에는 대략 150여 기의 고인돌이 존재한다. 강화의 고인돌은 양사면 교산리 고인돌군,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군(송해면 일부 포함), 하점면 삼거리 고인돌군, 내가면 고천리 고인돌군, 내가면 오상리 고인돌군 등의 지역군으로 나뉘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고려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몇 기씩 있다. 또한 약 2/3은 북방식 고인돌²⁵⁾, 약 1/3은 남방식 고인돌²⁶⁾이지만, 고인돌의 석재들이 매몰되거나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도 더러 있다. 남쪽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유명한 사적 137호 부근리 고인돌은 현재 해발 약 20m 정도의 구릉에 2개의 고인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받치고 서 있다. 강화의 고인돌은 부근리 고인돌처럼 대체로 해발 20~30m 높이 능선의 하단부나 평지에 있기도 하고, 해발 100~300m 가량의 산의 능선 위에 있기도 하다.

강화에 있는 고인돌의 형식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은 고인돌을 세운 집단의 성격과 고인돌 조성시간의 차이 때문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분명

25) "땅 위에 4개의 판석으로 된 고인돌(지석)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덮는 형식이다." 이형구, "강화의 고인돌"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34

26) "대체로 땅 아래에 무덤방을 만들고 땅 표면에 다른 돌덩이나 자갈들을 깔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얹은 형식이다. 또 남방식에는 땅 아래에 아무런 시설 없이 개석만을 올려놓은 개석식 고인돌도 있다." 이형구, "강화의 고인돌"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34

히 밝혀진 바는 없다. 또한 강화에서 고인돌 문화를 이루어냈던 이들의 실체와 강화로의 유입 경로, 유입 시기 등에 대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기원전 3세기 무렵 연(燕)의 침략이나 진(秦), 한(漢) 교체기에 중국에서 파생된 유이민이 이동한 것이거나, 혹은 단군조선이 위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할 당시 발생한 이주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⁷⁾

마니산의 참성단 또한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해 왔는지, 또 진실로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 지리지, 그 외 각종 사서나 지리지 등에서 참성단을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재단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단군 관련 기록이나 다른 문헌에는 아예 그 기록이 부재한 것으로 보아 참성단이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믿음을 갖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참성단은 고려·조선시대에 왕의 명의로 국가에서 제사를 거행하던 곳이다. 이곳에서의 의례는 고려 원종처럼 국왕이 직접 주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가 국왕을 대신하여 제사했다. 정기적인 제사는 봄과 가을에 거행되었고, 목적은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비정기적 제사는 외척의 침입이나 자연 재해,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를 물리쳐 국가를 보호하여 국가의 평안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거행되었다. 특히 가뭄 때는 종묘·사직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기우제가 으레 이곳에서 베풀어졌다고 한다.

2. 고려시대의 유물들 - 고려대장경, 금속 활자, 고려청자

고려 무신정권은 개경을 강화로 옮겨 30년 동안 강화에서 몽고에 대응하여 싸웠다. 이 기간 동안 고려에 당시 개경의 시설들을 거의 모두

27) 김형우, “강화의 문화전통”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9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문화적 훌륭함을 여지없이 발휘한 산물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고려 재조대장경판이다. 국보 32호 해인사 고려 재조대장경판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세계 어느 대장경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당시 고려의 불교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려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인하여 부인사(符仁寺)에 있던 고려 초조대장경이 소진되자, 대장경 조성 사업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고자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시 최고 집권자였던 최씨 정권이 몽골 항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기도 했다. 몽골의 수탈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민심과 당시 경인·계사의 난 이후로 무신정권에 대해 극심해진 승려들의 반항심을 불교라는 기반 아래 대몽항쟁 승리라는 단일한 목표로 집결단합하게 하여 무신정권을 유지하려는 최씨 정권의 의도에서 도모된 조성 사업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고려 정부는 먼저 강화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간행에 착수하였으며, 16년에 걸친 국가적 대역사 끝에 1251년 9월에 이르러서야 완성하였다.²⁸⁾

하지만 조성된 고려대장경의 가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아쉽지 않을 만큼 뛰어난 것이었다. 고려대장경은 우선, 불교문화와 사상을 집대성한 총서로서 당시의 동양 한역장경(韓譯藏經)으로서는 그 수록범위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양의 어느 한역대장경보다 본문이 우수하고, 동양의 역대 한역대장경 중 경판이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8만여 경판의 가치를 인정하여 유네스코는 고려대장경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의 다른 한 가지는 금속활자의 발명이다. 금속활자 발명 이전의 인쇄는 주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고 먹물을 칠하여 찍어내는 목판인쇄이거나, 활자 하나하나를 만들어 판을 짜서 먹물을 칠해 찍어내는 활자 인쇄의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목판인쇄는 절차가 까다로웠

28) 김형우, “강화의 문화전통”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11

을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일이 많이 들고, 한 문헌의 인쇄밖에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인들은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수시로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방법을 궁리하였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금속활자의 발명시기와 발명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3세기 초에 최우가 무인정권 시절 책을 찍어 보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서적점(書籍店)에서 금속활자 업무를 맡아보던 것으로만 짐작하고 있다.²⁹⁾ 이렇게 발명된 금속활자는 이후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져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발달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교섭 없이 독자적으로만 발전해 왔기 때문에 활자 만들거나 판짜기 기술 등이 뒤에 창안된 서구의 인쇄술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가 보유한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은 고려청자이다. 고려청자는 대몽항쟁이 시작되고 강화로 천도하면서, 즉 몽골의 제 2차 침입 직전인 1232년(고종 19)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겨 1270년(원종 11) 개경으로 환도하기까지 39년간 최상급의 청자가 유입되어 사용되었다. 이 시기 동안 12세기 최전성기의 비색청자의 전통을 간직한 청자들이 계속 제작되었기 때문에, 강화에서 출토되는 청자들은 질이 매우 우수하며 전성기 청자의 여운을 느낄 수 있다 하겠다. 이같은 고려시대 청자는 길정리 석릉 출토 일괄 청자, 최향묘 출토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 두운리 허유전묘 출토 청자화형접시, 지산리 선원사지 출토 청자, 국화리 출토 청자철채퇴화점문나한좌상(靑磁鐵彩堆花點紋羅漢坐像), 능내리 출토 청자상감국화문매병(靑磁象嵌菊花文梅瓶), 하도리 출토 청자 등이 있지만, 도굴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실된 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

3. 강화의 저항정신 - 삼별초 대몽항쟁과 강화순절

29) 천혜봉, “고려대장경의 조성과 봉안”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78

몽고의 침입을 피해 강화로 천도하였던 최씨 정권은 결국 대몽화의를 논의하여 1270년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이에 대해 삼별초는 6월 1일 저항하기 시작하여 봉기 직후에 강도정부의 창고를 열어 기존 체제와 질서를 규정한 근거 서류를 파기하는 뜻에서 도적(圖籍)을 소각했다. 새로운 질서를 희구하던 민중들도 삼별초에 합류함으로써 삼별초는 부몽적(附蒙的) 개경 정부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강화에서 출륙을 반대하며 고려의 정통 정부임을 표방하면서 새 정부 조직을 갖추고 저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강도를 포기하고 남하하고 말았다. 이후 진도와 제주도에서 대몽항쟁을 계속하였지만 끝내 소멸되고 말았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당시에는 강화에 고립되었던 이들이 절의를 지키며 떳떳하게 죽는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충절을 지키며 강화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이른바 ‘강화순절(江華殉節)’이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김상용(金尙容)이다.³⁰⁾ 그는 여러 의미에서 병자호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서,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가 강화를 떠난 후 한성을 지키는 ‘유도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에 앞서 종묘사직을 받들고 빈궁(嬪宮)과 원손(元孫)을 수행하여 강화로 들어간 신하 가운데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그는 강화성이 함락되자 강화산성의 남문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질러 폭사함으로써 장렬한 죽음을 맞았다. 이 때 김익겸과 권순장을 비롯한 많은 관원들도 함께 최후를 맞았다. 김상용에게는 사후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선원의 옛 터에 사당을 세워 ‘충렬사(忠烈祠)’라 이름 붙였다. 그 외에도 삼학사 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병자호란 때 청과의 화의를 거부했던 척화론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청에 끌려갔는데, 청 태종의 설득을 끝내 거절하고 심양에서 사형 당했다.³¹⁾

30) 김형우, “강화의 문화전통”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15

31) 김우철, “김상용과 삼학사의 충절”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155

4. 조선시대 강화학파

강화의 사상적 기원을 찾고자 한다면 단군 숭배의 정신이나 삼별초, 삼학사 등이 보여준 충절의 정신 이외에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강화를 중심으로 양명학(陽明學)을 공부하고 실천하였던 강화학파이다. 강화학파는 조선후기 양명학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배척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양명학적 실학의 이념을 강조하며 민족 주체적인 학풍을 형성하고, 새로운 인간 발견의 정신세계를 심화시켜 나갔던 문인 학자들을 가리킨다. 강화학파의 학인들은 양명학을 중심으로 하되 주자학적 인식론을 취하기도 하고, 또 유학적인 사유의 틀에만 머물지 않고 도교와 불교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강화학파는 정제두(鄭齊斗, 1649~1736)로부터 비롯되었다. 정제두는 성리학에 대한 회의와 봉당정치의 폐단으로 인한 정치 현실의 불신으로 인해 강화로 이주하였다. 정제두가 강화의 하일리에 자리를 잡게 되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강화로 들어왔다. 이광명, 신대우, 이광명을 비롯하여 정제두의 영일 정씨 가문, 이광명의 전주이씨 가문, 신대우의 평산 신씨 가문 등이 그들이다. 이후 정제두는 1709년(숙종 35) 강화에 들어온 이후 20 여 년 동안 인간과 사회를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강화에서 숨을 거두었다.

강화학파는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학적인 시와 산문으로 형상화하여 사상을 담아내는 일이 많았다.³²⁾ 특히 문학을 통하여 민족의식의 자주적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강화학이 비록 봉건적 신분질서와 중세의 사회의식을 뛰어넘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지식인의 자세는 2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실학적 전통을 연면히 지키며 강화학파의 맥을 이어오게 하였다.

32) 김형우, “강화의 문화전통”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17

5. 서양 문물의 창구 - 서양 종교 수용

한강 하구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도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면서 강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보다 앞서 외래문물과 접하게 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성공회와 감리교의 외국 선교사들도 강화에서 선교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강화에서의 서양 종교의 선교는 훗날 한국 기독교의 시초로서 중요한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강화의 교회들은 이미 창립 100주년이 넘도록 한국 기독교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강화에 자리 잡고 있다. 교산(교향)교회(1883), 홍의교회(1896), 건평교회(1897), 고부교회(1898), 교동교회(1899), 잠두교회(1900), 망월교회(1900) 등과 성공회 강화읍교회(1893)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 중에서도 성공회는 가장 일찍이 강화에 자리를 잡았다. 1893년 볼코프(Charles John Cofe) 주교는 강화에 들어와 성공회 선교를 시작하였다.³³⁾ 초기에는 외국인의 강화 성내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갑곶나루의 진해루 근처에 집을 구하여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3년 후 1896년에는 조선수사해방학당(朝鮮水師海防學堂)의 영국인 교관 콜웰(Callwell)이 살던 동문 안의 집을 매집하여 강화의 선교본부로 삼았다. 이후 교회의 발전으로 더 큰 규모의 성당을 필요로 하게 되자, 1900년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서구의 바실리카 양식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사적 424호로 지정된 이 성공회 강화성당은 기독교 문화가 전통 문화와의 토착화를 시도한 첫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기독교 건축물로는 1898년에 세워진 성공회 온수리 설당(문화재자료 15호)과 1923년에 세워진 서도 중앙교회(문화재자료 14호) 등이 있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이 밖에도 감리교가 성공회와 같은 해에 강화에 전파되었으나, 강화읍으로의 입성이 거절되고 양사면 교산리의 시루미 마을에서 선교를 시작

33) 같은글, p.18

하였다. 이후 점차 신도가 늘어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교향교회, 양사 중앙교회 등으로 불리다가 현재에는 강화의 첫 감리교 교회인 교산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교산교회를 포함한 흥익교회, 그리고 천주교 3개 공소는 성직자들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스스로 신앙에 입문하거나 신앙행위를 하는 자립형 교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 외포리 곳창굿

외포리 곳창굿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강화에 현존하는 유일한 굿이기도 하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강화에는 한강 시선배와 연평바다 조기배가 드나들던 양사면 철산리 포구의 곳창굿, 내가면 황청리 포구의 곳창굿, 그리고 외포리 곳창굿 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모두 사라지고 외포리 곳창굿만이 남아있다.³⁴⁾

내가면 외포리는 강화읍에서 서쪽으로 20여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외포항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외포리의 정포마을과 대정마을의 주민들이 뜻을 같이하여 득제장군(得帝將軍) 또는 득대장군(得大將軍)이라고 하는 신주를 모시고,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 마을 축제로서 곳창굿을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의 퇴조와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의 약화, 경비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전처럼 3년 주기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포리 곳창굿은 강신무(降神巫)로 기능을 세습받은 기능세습무들에 의해서 전승되어왔다.³⁵⁾ 1943년부터 행해진 곳창굿은 2000년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곳창굿은 마을의 대동 굿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만의 행사가 아니라, 상업과 농업 등 동네 주민 전체가 돈이나 쌀을 함께 마련하여 행해지는 마을의 제의행사(祭儀行事)로 온 마을의 축제가

34) 김규원, “무형문화재”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591

35) 같은 글, p.591

되고 있다.

7. 그 밖의 문화 유적들

위에서 살펴본 유적들과 문화 사상 외에도 강화에는 크고 작은 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현재 562개소의 문화재 내지 사적지가 강화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83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479개소는 미 지정 상태이다.³⁶⁾ 이 가운데 67개소의 선사유적지를 제외하면 강화의 유적들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유적들이다.

강화의 역사적 유적에 대한 복원 사업은 1966년 서문(西門)의 해체 복원을 기점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재의 조사, 복원을 위한 노력으로 강화는 관광 산업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고, 이에 더해 1990년 이래 학생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숙박 시설과 편의 시설들을 마련하여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를 대폭 늘릴 수 있었다. 또한 강도에서는 강화문화제, 고인돌 축제, 참성단 축제 등을 마련하여 강화문화의 발전과 관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강화 남쪽의 광대한 갯벌이나 강화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려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36) 조광, “문화적 특성”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29



제3장 문화예술인 마을의 모델로서 헤이리 마을과 강화지역 비교

- 제1절 ‘헤이리 아트벨리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특성
- 제2절 강화군 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현황 분석
- 제3절 문화예술 특별지구로서의 강화의 독자적 성격

제3장 문화예술인 마을의 모델로서 헤이리 마을과 강화지역 비교

제1절 ‘헤이리 아트벨리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특성

1. 헤이리 아트벨리의 조성 과정

예술 마을 헤이리 설립의 구상은 1994년 몇 명의 출판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통일 동산 내 서화촌 입지에 설립 예정이었던 파주 출판단지에서 생산되는 책을 판매할 ‘책마을’로서의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97년, 서화촌 건설 위원회 및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발족하고, 이듬해에는 서화촌 건설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상필지를 서화촌 부지 3만평으로 선정하면서 계획은 점차 현재의 헤이리 아트벨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출판인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헤이리는 단순한 도서 판매 마을이 아니라 문화의 생산, 판매, 전시,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트벨리로서의 성격을 추구하게 되었고, 대지도 6만 5천 평으로 늘어나 창작촌의 성격을 가진 환경 친화 마을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99년에는 입지상의 문제로 예정되어 있던 서화촌 부지 6만 5천 평에서 서화촌 서쪽 아래의 민속촌 부지였던 15만평 대지로 헤이리의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다. 이듬해에는 해당 입지에 대해 도시 단지 설계자인 김홍규가 책임을 맡아 단지 설계 마스터플랜을 확정했고, 회원별 필지를 확정하고 토목 실시 설계를 거쳐 토목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 다음해에 착공할 개별 건축 작업을 위한 건축 코디네이터 건축지침 수립 및 1차 건축가풀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6월에 드디어 회원 43

명의 1차 기공식 및 1차 건축 공동 계약식을 가졌으며, 외국 건축가 5인과 국내 건축가 26인이 참여한 건축 설계 프로그램이 제안되었고, 12월에는 토목 공사가 완공 되었다. 이후 2003년에 본격적으로 개별 건축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10월 현재, 전체 350채 가운데 100채가 완공된 상태이고, 1년 안에 추가 70채가 더 완공될 예정으로 전체 공정률 40%를 바라보고 있다.

2. 헤이리 아트벨리의 구성

헤이리의 조성 대상 부지는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 내의 5만 2천 282평(503,018.7㎡) 가량의 대지이다. 대지의 용도는 준도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건설 주체는 문화 예술계 인사 372명 등으로 구성된 헤이리 아트벨리 건설위원회이다. 헤이리라는 이름은 파주 지역의 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가져왔다.

헤이리에는 세계 민속 악기 박물관, 정치 우표 박물관, 근대사 박물관과 같은 30여 개의 박물관과, 인물 미술관을 비롯한 10개의 미술관, 금산 갤러리 등의 공방 100여 개, 작가 작업실 300여 개, 서점 30여 개, 음악홀, 연극관 등이 자리잡을 계획이다. 현재는 이 가운데 인물 미술관을 비롯한 7곳의 박물관/미술관, 갤러리가 22곳, 23곳의 레스토랑/카페, 19개의 작가 작업실, 극장 2곳, 커뮤니티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서점 두 곳 등이 헤이리에 들어서 있다.

<표 3-1> 헤이리 아트벨리 시설

종류	시설명	회원/건축가	내용
박물관 /미술관	인물 미술관	구상본/최욱	1000여점의 인물 관련 미술품 컬렉션
	세계민속악기 박물관	이영진/김광수	세계의 다양한 민속 악기를 설명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
	타임캡슐	오채현/김인철	옛 생활 체험 박물관
	영화 박물관	우경옥/최욱	영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 자료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동화나라	정병규/김성식	어린이 관련 책과 그림책 원화 전시
	아고라	신명숙/김종규	한국 최초 사실 정치 박물관
	쌘지 미술 창고	최문규, 조민석 /James Slade	쌘지컬렉션을 ‘소장’, ‘전시’ ‘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대안 미술관
갤러리	금산 갤러리	백순실/우경국	현대 아트 위주의 기획전
	Lee&Park	이경형, 박옥희 /이종호	지하 워크숍 공간, 1층 전시실, 2층 주거공간
	한향림 갤러리	한향림/최승원	현대도예와 근대도기의 공간
	아트 팩토리	황성욱/민선주	어린이를 테마로한 다양한 설치작업들이 전시되는 공간과 아트샵
	MOA 갤러리	이양호/우경국	21세기 국내외 실험적 작가와 건축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작가 및 작품 전시
	고막원	임지수/권문성	희귀한 세계의 선인장을 한 곳에 모아놓은 선인장 하우스
	스페이스 이비엠	정중현/김현	문화평론가가 운영하는 갤러리
	식물감각	마숙현/김종규	식물 또는 식물성을 다양한 문화적 욕망과 결합시키는 문화예술공간
	도도현	이재영/우경국	유명한 이미지 건물 속에서 꽃도자기와 라틴문화 흔적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UNA	박유나/임재용	도자기 그릇, 소품과 가구가 전시된 공간
	갤러리 <포커스>	구상본/최욱	현대미술과 고미술품 취급
	카메라타 음악 감상실	황인용/조병수	음악홀의 거대한 9m벽, 천장의 거대한 채광이 아름다운 구조벽, 주차장을 이용한 전시
	HAS III	박관순/최두남	1층은 액티포셀린 전시, 판매 공간
	한길 북하우스 HAS II	김언호 /SHOP, 김준성	대형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헤이리 내 가장 큰 전시공간
	한스 갤러리	한상구/헬렌박	건축주 한상구의 회화작 전시
	규원	김정복/승효상	도자기 공예 전시 및 도자 설치물 전시
	이오카에루	김여옥/서영근	인테리어숍과 갤러리 카페 Mano
	Gallery & Jazzclub STORYVILL	박찬민/김종규, Floria Beigel	갤러리 자체가 조각보를 표현한 전시 공간
	진아트	김진곤/최욱	1층 소극장/아트숍/카페, 2층 갤러리로 꾸며진 종합 예술공간
	공사진 스튜디오	공영석/이종호	설치미술, 그림 전시 공간
	소담 갤러리	강희경/이은영	도자기와 일반 생활소품 전시 및 판매
	갤러리 더 차이	양혜경/정진국	그림장터
	금산 갤러리 블루메	백순실/우경국	전시관과 블루메 플라워 카페

카페 /레스 토랑	한길 북하우스	김언호 /SHOP, 김준성	FOREST : 프렌치 이탈리아 레스토랑 William Morris : 북카페
	식물감각	마숙현/김종규	Art Food
	딸기가 좋아	쌘지 /최문규, 조민석, James Slide	“딸기가 좋아하는 빵집”, 제빵사가 직접 구운 맛있는 머핀과 쿠키를 맛볼 수 있는 곳
	MOA 갤러리	이양호/우경국	카페 MOA
	진아트	김진곤/최욱	카페 라헴(퓨전식 한정식)
	규원	김정복/승호상	카페 규원
	매거진 하우스	노영선/송광섭	1층 잡지, 2층 열람용 도서를 볼 수 있는 카페, 3층에는 전문도서 공간
	라임트리	공영석/이종호	신선한 샌드위치, 생과일 주스 등
	아트팩토리	황성욱/민선주	야외테라스에서의 가벼운 스낵과 음료
	UNA	박유나/임재용	커피, 와인, 그리고 웰빙 점심세트, 양주
	구상재	구상본/최욱	정통다원 한옥
	카메라타 음악 감상실	황인용/조병수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카페 Camerata
	크레타	김기호/함성호	하늘에 뜬 구름 같은 건물의 레스토랑
	HAS II	박관순/최두남	커피와 각종차(한국, 중국, 일본), 꽃차
	북카페 반디	이종욱/헬렌박	북카페
	한향림 갤러리	한향림/최승원	탁 트인 전망의 카페 리모즈
	엘 빠띠오 (도도헌)	이재영/우경국	
	카페Mano (아오카에루)	김여옥/서용국	카페 Mano
	스페이스 이비멤	정중현/김현	큰 창이 외부와 맞닿아있는 카페
	CV 포슬린하우스	황경희 /SHOP, 김준성	포슬린 페인팅 작품을 감상하며 즐기는 차 한잔과 아름다운 포슬린 아트샵
Gallery & Jazzclub STORYVIL	박찬민/김종규, Floria Beigel	재즈 공연	
갤러리 더 차이	양혜경/정진국	갤러리와 카페	
작가 스튜디오	가을이네	진영호/조민석, James Slade	공동육아, 대안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실천하는 회원의 집
	공사진 스튜디오	공영석/이종호	광고사진 촬영 및 CF 세트장 임대
	바우재	이주현/이종현	미술평론가의 집필실 및 주거공간
	밤나무집	차명호/정일교	의류디자인 및 목공예 작업공간
	BBU 스튜디오	배병우/김종규	서울예대 교수의 사진 작업 공간
	CV 포슬린하우스	황경희 /SHOP, 김준성	작가 황경희의 포슬린 페인팅 작업실
	AHN.S.K. Studio	안상규/이민, 손진	전시 공간 및 작가 스튜디오
	오상만 주택	오상만/김성식	영화인의 집

작가 스튜디오	UNA	박유나/임재용	도자기 조각과 그릇을 제작하는 도자기 작업장
	이민호 주택	이민호/김성식	영화인의 집
	이정호 주택	이정호/민선주	아트 콜렉터 주거 공간
	자하재	자하재/김영준	영화감독의 집
	최만린 조각스튜디오	최만린/최아사	조각가이자 대학교수의 작업공간
	취림헌	강복영/민선주	한글서예 강좌 및 전시공간
	코르텐 하우스	이병철/승효상	금속공예가의 집
	타잔&제인	타잔&제인/김영준	가수의 작업실 및 주거공간
	통속과 한적	성미나/권문성	시나리오 작가의 집필실 및 주거공간
	테라	홍순정, 이은미 /김준성	도예 작업장
한스 갤러리	한상구/헬렌박	갤러리를 겸한 작가 작업실	
기타	UV 하우스	김정희/민규암	소극장 이구동성
	아트서비스	김준성, 토마스 한	영화 촬영소
	진아트	김진곤/최욱	단편영화와 독립영화 상영 소극장
	커뮤니티하우스	김준성, 최종규	헤이리 사무국
	한길 북하우스	김언호 /SHOP, 김준성	한실사&한길 ART 서적과, Taschen 출판사&원서가 있는 북하우스
	동화나라	정병규/김성식	어린이 전문 서점
	모티프-원	이안수/조민석	

3. 헤이리 아트벨리의 성격 및 특색

1) 복합문화예술도시와 도시문화 운동으로서의 성격

앞서 밝혔듯이 헤이리 아트벨리는 문화의 생산과 전시, 판매, 그리고 예술인들의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한다. 여기서 문화가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 고립되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떠오르지만, 헤이리 아트벨리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사라진 문화예술 거리 복원의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역으로 인위적으로 종합 문화예술타운을 디자인하여 사람을 모으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³⁷⁾고 주장한다. 따라서 헤이리는 문인, 영화인, 미술인

37) 김학민(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원), “헤이리 아트벨리” 『C3 Korea』 (C3 디자인 그룹, 2001) 10월 호에서 재인용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상주공간이면서 창작 활동 무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사, 변호사, 기자, 비평가 등 넓은 의미에서 문화 예술 관련 분야에 포함되는 구성원들에 의한 문화의 활발한 전파와 향유가 이루어지는 비평의 공간이며, 나아가 예술인들의 작업이 대중과 보다 긴밀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헤이리 아트벨리에는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문화 예술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350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헤이리의 입회 자격은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헤이리 안에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서점, 공방 등 문화예술 관련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할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이들 가운데 20여명의 회원이 이사장인 최만린을 중심으로 이사회로서 활동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모임을 통해 헤이리 아트벨리의 방향성과 재정 문제나 회원 심사와 같은 심의 내용 등을 토의 결정하며 헤이리 아트벨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의 참여는 헤이리 아트벨리를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의 자발적인 동기로 시작된 도시 문화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도시 문화운동으로서의 헤이리는 개발업자나 거대 자본에 의해서 단기간에 조성되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주체가 그곳에 살 구성원으로서 도시 계획의 초기 구성 단계부터 이후의 운영과 성장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생성된 자율적인 도시이다.

2)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마스터 플랜과 건축 지침

○ 마스터 플랜

헤이리 아트벨리의 단지 계획 및 조성은 전문가와 헤이리 회원 모두가 계획, 조성 절차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선정, 주택의 디자인, 건설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계획 및 조성 초반부터 헤이리 커미티 및 초대석을 마련하여 헤이리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며

진행되었다.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은 연세대학교 도시단지디자인 개발연구실 김홍규 교수팀이 최종 완성하였지만, 이후 우경국, 이종호, 김종규, 헬렌 박 등 4명의 건축가들의 크리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또한 단지 계획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준성, 김종규 교수가 헤이리의 건축 코디네이터로 참가해 구체적인 설계 지침과, 그에 따른 건축, 조경, 환경 디자인, 사용 재료 등의 도시 설계 코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단지 계획 마스터플랜에서는, 단지 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계획이 기존의 지형지세를 최대한 활용하며, 대상지 내에 포함된 수로와 농수로를 적극 고려하여 건물 및 조경을 설계하고, 대상지 내 높지를 활용 가능한 생태구역으로 설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³⁸⁾ 모든 디자인은 프리핸드 디자인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미를 강조하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 단지의 녹지와 녹도, 도로, 보행로, 그리고 택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순환 연결한다는 점이다. 헤이리 아트벨리는 기존의 도시에서 선호되었던 격자형 도로 패턴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형과 지세를 그대로 인정, 수용하고 산세의 흐름대로 도로 패턴을 유지하면서 전 단지 순환 및 네트워크형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 도로 및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악지대라는 기존의 지형 조건을 충실히 보존한다는 것은 공공용지 중 산악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 일부분인 평활지를 공공용지로 배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로와 습지 보존이라는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산출된 보행, 그린, 차량, 자전거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면적은 전용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고지율이 거의 45%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해 회원의 택지 전용율이 55%로 축소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공유면적 확보의 일환으로 단지 내 주도로에 접하는 계획지는 토지 이용 효율이 높은 공원, 녹지 계획 용도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38) 현순미, “헤이리 아트벨리” 『C3 Korea』 (C3 디자인 그룹, 2001) 10월호

상황은 기존의 도시 계획에서는 택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헤이리 아트벨리가 자발적인 도시문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환경친화적인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는 택지 분배 및 필지 구성 등에서도 충실히 드러나고 있다. 헤이리 아트벨리는 마을 개념을 도입하여 녹지를 중심으로 하는 8개의 마을군(A~H)을 형성하고 있다.³⁹⁾ 이렇게 나누어진 획지들은 각 블록마다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 70평, 140평, 210평, 350평 등을 기준으로 획지의 조정이 가능토록 구분지어 있고, 필지의 세장비는 1:1.5 내외가 되도록 분할되어 있다. 특히 도로의 위계가 높고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일수록 대형필지로 구상되어 있고, 대형 필지와 소형 필지의 조합을 통하여 소셜 믹스(social mix)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택지는 한국 최초로 부정형 택지를 조성하여 건축가에게 독특한 대지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성과 인공성을 접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남향선호보다 전망과 경관을 기준으로 획지를 분할하고,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게다가 어떠한 택지를 선택하든지 녹지와 연계되어 실제로 구입한 땅보다 많은 부분을 연결하여 소유하게 되고 경관적으로 시선 차단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헤이리 아트벨리의 도로 또한 사람과 자연 중심의 방향으로 기획되어 있다. 우선 도로 패턴에서 기존 도로와의 연계는 북, 동, 남측에서 각각 접근될 수 있어 어느 장소에서든지 원활하게 통일 동산의 주간선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 모든 도로는 주도로와 보조도로, 블록 내의 내부도로로 나누어지는데, 전반적인 도로의 폭은 과감하게 축소되어 도로중심의 단지가 아닌 사람 중심의 단지,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 건축 설계 지침

헤이리의 건축 설계 지침은 ‘자신의 설계 방법론과 철학이 있는 건축

39) 현순미, “헤이리 아트벨리” 『C3 Korea』 (C3 디자인 그룹, 2001) 10월호

가’, ‘문화예술분야의 감성이 있고 비평계의 주목을 끄는 건축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건축 언어가 젊고 진취적인 건축가’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⁴⁰⁾에 따라 선정된 김종규, 김준성이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헤이리 구성원들이 국내 건축가 팀(34인), 해외건축가 팀(14인) 건축가 풀에 건축가를 선택하여 건축설계를 진행하였다.

건축 설계 지침 또한 환경친화적인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건축의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건축의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엄격히 분리 단절하거나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의 ‘배경’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 두 공간의 연속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 건축사의 뿌리 깊은 전통이었던 건축의 중심성, 또는 건축의 오브제화를 거부하고 ‘랜드스케이프’(landscape)라는 개념 안에서 건축을 재사유하게 한다. 김종규와 김준성은 랜드스케이프를 ‘주어진 환경 조건 안에서 인공적인 조직이 내포되어 있는 인공적인 요소들에 의한 조직체로서의 결과물’이라는 건축적 랜드스케이프⁴¹⁾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헤이리 아트벨리의 마스터플랜과 건축지침을 ‘건축의 재정의’라는 관점에서 평한 김봉렬에 따르면,⁴²⁾ 건축적 랜드스케이프에서 건축은 단지 ‘환경을 점유’하는 구조물일 뿐이고,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은 건축과 건축 사이-점유와 점유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의 공간들이다. 따라서 이 사이공간들에 대한 배려와 디자인이 중요하게 되고, 개별적인 건축들은 이 사이공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헤이리의 건축 지침은 지형, 더 나아가 환경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형성된 건축적 형태와 공간을 추구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형적 공간의 일부로서의 건축물과 함께 자연과 대비되는 ‘인공의 바닥판-패치(patch), 경사패치, 플레이트(plate)’도 헤이리

40) 현순미, “헤이리 아트벨리” 『C3 Korea』 (C3 디자인 그룹, 2001) 10월 호

41) 현순미, “헤이리 아트벨리” 『C3 Korea』 (C3 디자인 그룹, 2001) 10월호.

42) 김봉렬, “건축의 재정의와 과정의 동시화” 『C3 Korea』 (C3 디자인 그룹, 2001) 10월호.

의 건축적 랜드스케이프를 이루는 요소이다. 이 인공판과 그 판의 조직 및 구성에 따라 구축되는 건축물, 그리고 남겨진 자연들의 관계들이 곧 헤이리의 건축적 랜드스케이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선형 바닥인 패치와 독립된 면인 플레이트는 길과 길 사이의 필지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패치에는 도로와 필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건축 가능성이 지시되어 있다. 따라서 패치는 단순한 바닥면의 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리 전체의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기준면이며 건축의 출발면이 된다.

헤이리 건축지침은 이와 같은 건축 의도와 방식을 준수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건축 설계 지침⁴³⁾을 가지고 있다. 우선, 마을 내 건물 볼륨과 높이(지상 3층 이하, 최고 높이는 12m), 간판 크기와 양식 등의 제한이 있으며, 파주시의 건축법보다 오히려 강화된 건폐율은 50% 이하로 하여 외부 공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고, 담과 같은 물리적 경계를 없애므로써 공간들을 밖으로 열어둔다. 건물의 외장 재료는 사용 가능한 것⁴⁴⁾과 사용 불가능한 것⁴⁵⁾으로 구분하여, 건물의 외장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1/3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확보하여 거주가 주된 용도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문화 예술의 생산, 전시, 판매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건물 설계시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는 없지만 건설위원회나 회원 동의를 받은 조직체에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3) 헤이리 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

헤이리 아트벨리는 본격적인 입주가 1차로 마무리될 무렵인 2003년부

43) 김종규, 김준성, “건축설계지침” 『C3 Korea』 (C3 디자인 그룹, 2001) 10월 호

44) 목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 합판 등,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 재료,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앞의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45) 알루미늄 등의 금속패널, 타일, 콘크리트 블록, 유리블록, 반사유리 등의 이형유리, 화강석 판재, 붉은 벽돌 등, 페인트 등에 재료의 물성이 숨겨진 재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벽돌 외의 습식 공법을 필요로 하는 재료, 기타 재료의 물성을 왜곡시킨 재료

터 매해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헤이리 작가전’과 같은 헤이리 거주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나 연주회, 초청 연주회와 전시회, 작가들의 스튜디오 개방에서부터, 헤이리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의 형태로 개최되는 헤이리 페스티벌까지, 헤이리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은 이제 그 수가 적지 않다. 다양한 행사의 개최는 헤이리 아트벨리가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다. 또한 도시/건축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헤이리에서 생산되는 문화 예술적 산물들을 매개로 문화 예술 생산과 소비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표 3-2> 헤이리 문화예술 관련 활동

연 도	주 요 문 화 예 술 활 동
1999. 5. 30	<999헤이리 퍼포먼스> : 새천년맞이 문화터밟기를 주제로 설치미술전시, 행위예술, 콘서트 행사 진행
2000. 5. 20	<2000헤이리 퍼포먼스> : 자연의 소리 - 보임과 들림을 주제로 국내 설치미술작가들을 초청해 야외 설치미술전시 행사 진행
2002. 9. 10	<헤이리건축전 Micropolis> : 성곡미술관과 공동주최로 헤이리의 건축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축가 33인의 건축작품 전시
2003. 4 ~ 9	<헤이리 노을음악회> : 헤이리의 단지 준공을 기념해 한국예술종합학교 후원으로 매달 정기 음악회 개최
2003. 10. 3 ~ 19	<헤이리페스티벌 2003> : 파주시 공동주최로 열린 종합예술축제(전시, 건축, 공연, 영화 등) 개최
2003. 10. 3 ~ 11. 2	<헤이리건축전 Heyri : Micropolis II> : 헤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적 실험들을 소개하는 행사로 전시, 심포지엄, 건축투어 등의 행사 진행
2004. 5. 29	<헤이리 노을음악회> :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더 솔리스트, 재즈, 보사노바, 정명훈, 정명화 외 공연

연 도	주 요 문 화 예 술 활 동
2004. 9. 11 ~ 26	<헤이리페스티벌2004> : 장소/공간 주제 종합예술축제 개최
2004. 11. 27	<헤이리 겨울빛축제> : 빛 조명 장치 연말연시 전시
~ 2005. 1. 30	
2005. 5. 1 ~ 31	<헤이리 봄기획전> : 영상, 사진, 뉴미디어아트
2005. 6 .25 ~ 7. 24	<DMZ 2005 국제현대미술전> 전시
2005. 8. 19	<마에스트로와 친구들> 정명훈, 정명화, 데니스 김 공연
2005. 8. 13 ~ 9. 15	베르나르 포콩 사진 프로젝트 및 전시회
2005. 9. 23 ~ 10. 9	헤이리 가을축제 <판.판.판>
2005. 11. 1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 헤이리 초청 연주회
2005. 12 ~ 2006. 1	헤이리 문화예술학교 겨울 강좌
2006. 5. 19 ~ 5. 21	헤이리 어려운 음악회
2006. 7. 1 ~ 7. 23	헤이리 국제 판화전
2006. 7. 29 ~ 8. 27	중국 현대 예술 페스티벌
2006. 8 26 ~ 8. 27	썸머 모던락 페스티벌
2006. 9 .1 ~ 9. 24	판 페스티벌 2006 : 헤이리 국제 크로스오버 아트 페스티벌
2006. 10 12 ~ 10. 29	파주 오픈 아트 페스티벌
2006. 10 28	파주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2006. 11 4	2007 국제 윤이상 음악상 제정기념 음악회

특히 작년부터 ‘PAN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꾼 헤이리 예술축제는 헤이리에서 개최하는 문화 예술 행사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매해 변화하고 있는 헤이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사라 할

수 있다. ‘PAN’은 이른바 장르 복합 국제 현대 종합예술제로서, 매년 9월 약 3주의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행사는 15만평 300여 헤이리의 실내외 공간에서 공연과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 전반의 다양한 장르들이 만나고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창작과 감상을 낳는 독창적인 예술판을 기획하는 행사이다.⁴⁶⁾ 이를 통해 헤이리 아트벨리의 종합적, 다원적인 예술 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각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의 국제적 문화예술인들이 만나 서로의 역량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한다.

4. 헤이리 아트벨리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전망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헤이리는 문화 예술의 생산, 전시, 판매, 거주가 통합된 특수한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의 도시문화운동으로서의 특징도 가진다. 헤이리는 기존의 도시 계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친화적이고 보존적인 도시 계획적 실험과 건축적 실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 실험의 현장이기도 하며, 집중적인 문화 생산을 토대로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 지속적이고 소통적인 문화의 생산과 교류를 기획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다양한 시도들이 실험되고 있는 헤이리는 분명 여러 가능성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선, 헤이리가 파주라는 위치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서울의 서부지역인 임진강과 개성, 서울 등을 잇는 생태 문화벨트의 잠재성에 동참하고, 나아가서는 남북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헤이리 거주 예술인들의 문화 예술 촉진에 그치지 않고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지원이나 상호 작용을 시도한다면, 한국의 문화 예술 생산에 있어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의 생산·전시·판매·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예술단지

46) 판페스티벌 홍보자료, 2006

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시도들만으로도 이미 이후의 도시문화운동이나 문화예술운동에 있어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헤이리 아트벨리가 가지는 현실적 한계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이자 현실적인 한계는 기대했던 것만큼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보다 많은 대중을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위치적 격절성과 차량 중심의 도시 계획,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그 접근성이나 개방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단지 구성 및 건축이 완성되어가는 과정부터 외부와 소통하고 싶었다면, 보다 친절한 안내 책자 및 팸말과 지도, 공공 화장실이나 벤치와 같은 무료 편의 시설, 단지 내 이동 기구, 보행로 확보 및 보행네트워크의 개선 등이 먼저 준비되었어야 한다. 아울러, 헤이리가 진정한 자족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지 내 거주자들의 교육·편의 시설,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생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강화군 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현황 분석

1. 문화예술인의 이주 현황 및 배경

1) 강화 거주 문화예술인 규모

강화지역에 거주하거나 강화를 주된 활동 지역으로 삼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수가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적은 아직 없다. 인천광역시에서 200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⁴⁷⁾, 강화군에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40명이지만, 이 숫자로 문화예술인의 수를 가늠하기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⁴⁸⁾를 실시하기 위해, 강화 문화원, 강화 민예총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을 통해 각 단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수를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된 강화 거주 문화예술인은 모두 140명이었으나, 설문에 참여한 강화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예술단체 관련자들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문화예술인들이 강화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2) 출신 지역과 거주 기간

설문조사에 응답한 강화 거주 문화예술인들 100명 가운데, 강화가 출신지역인 응답자는 19명이었다(표 3-3, 그림 3-1). 인천 출신의 문화예술인 7명을 제외하더라도,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74%는 타지 출신으로 자신의 이전 거주지를 떠나 강화로 이주해온 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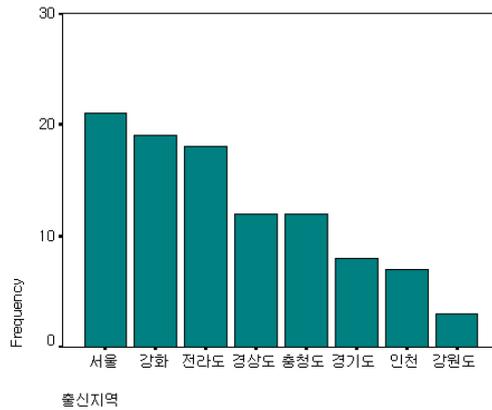
47) 산업별,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인천광역시, 2004

48)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강화 거주 문화 예술인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방문 면접 및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 110명 가운데 100명이 유효 응답자이다.

<표 3-3> 출신지역

	응답수	비율
서울	21	21.0%
강화	19	19.0%
전라도	18	18.0%
경상도	12	12.0%
충청도	12	12.0%
경기도	8	8.0%
인천	7	7.0%
강원도	3	3.0%
합계	100	100.0%

<그림 3-1> 출신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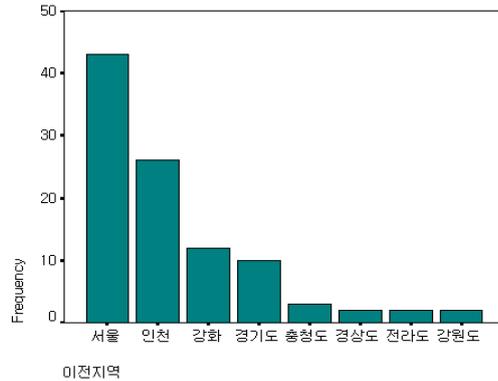


하지만 이전 거주 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강화 지역 출신자의 수 19명 보다 적은 단 12명만이 이전에도 강화에서 거주했다고 응답했다(표 3-4, 그림 3-2). 이는 강화 지역 출신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살다가 다시 강화로 돌아온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 출신자들도 강화의 ‘토착민’이라 불려도 될 만큼 오랜 시간을 강화에서 살아온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수가 40명이나 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표 3-5, 그림 3-3).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이후 지역 이주가 빈번해진 상황에서 ‘지역민’ 혹은 ‘토착민’(그에 따르는 ‘애향심’)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 의미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이주 경력을 볼 때 적어도 두 지역 이상의 거주 경험을 가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출신 지역보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생활 경험을 기준으로 ‘지역민’의 개념을 사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강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토착민’과 ‘이주민’이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동일 선상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통의 입장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4> 이전 거주 지역

	응답수	비율
서울	43	43.0%
인천	26	26.0%
강화	12	12.0%
경기도	10	10.0%
충청도	3	3.0%
경상도	2	2.0%
전라도	2	2.0%
강원도	2	2.0%
합계	100	100.0%

<그림 3-2> 이전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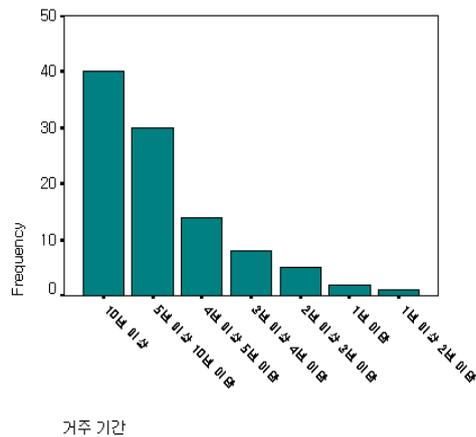


또한 거주 기간에 관한 설문을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그 수는 2년 이상 3년 미만 응답자부터 서서히 늘고 있다(표 3-6, 그림 3-3). 이를 통해 강화에 이주해 온 문화예술인들의 수가 2년 전부터 점차 늘기 시작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5> 거주 기간

	응답수	비율
1년 미만	2	2.0%
1년 이상 2년 미만	1	1.0%
2년 이상 3년 미만	5	5.0%
3년 이상 4년 미만	8	8.0%
4년 이상 5년 미만	14	14.0%
5년 이상 10년 미만	30	30.0%
10년 이상	40	40.0%
합계	100	100.0%

<그림 3-3> 거주 기간



3) 이주 동기

현재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중 29명이 강화의 자연 조건 때문에, 22명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16명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13명이 강화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때문에 강화에

이주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3-6, 표 3-7, 그림 3-4). 이를 통해 강화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생각할 때, 현재 강화가 가진 자연 환경자원을 지속 발전시켜야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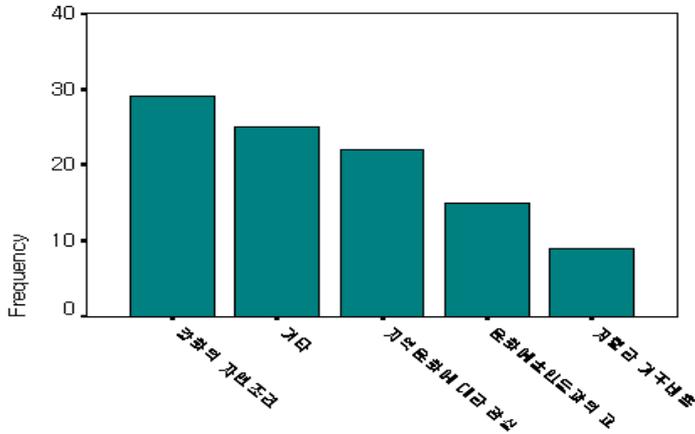
<표 3-6> 강화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 동기

	응답수	비율
강화의 자연조건	29	29.0%
기타	25	25.0%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22	22.0%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15	15.0%
저렴한 거주비용	9	9.0%
합계	100	100.0%

<표 3-7> 기타

	응답수	비율
고향이기 때문에	16	64.0%
특별한 이유 없음	4	16.0%
작업/생계에 적합해서	3	12.0%
결혼으로 인해	2	8.0%
합계	25	100.0%

<그림 3-4> 이주 동기



이주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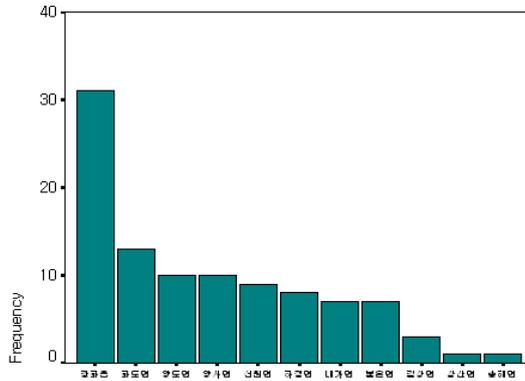
2. 문화예술인의 주거, 생활, 활동 현황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지역별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면, 강화읍에 가장 많은 31명이 살고 있고, 다음이 화도면 13명, 양도면과 양사면이 10명, 선원면 9명, 하점면 8명, 나머지 두 개 면에 7명이 살고 있다(표 3-8, 그림 3-5).

<표 3-8> 거주 지역 분포

	응답수	비율
강화읍	31	31.0%
화도면	13	13.0%
양도면	10	10.0%
양사면	10	10.0%
선원면	9	9.0%
하점면	8	8.0%
내가면	7	7.0%
불은면	7	7.0%
길상면	3	3.0%
삼산면	1	1.0%
송해면	1	1.0%
합계	100	100.0%

<그림 3-5> 거주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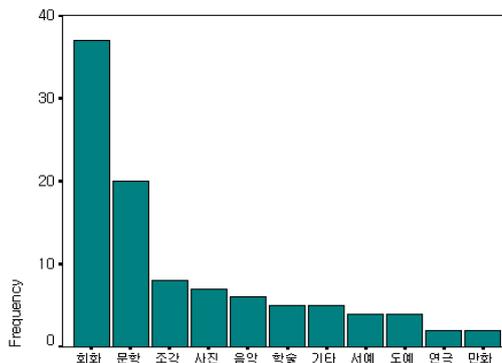
거주 지역

또한 설문에 응답한 강화 거주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회화(37)분야와 문학(20)분야에 활동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표 3-9, 그림 3-6). 그 외에도 서예나 판화, 짚이나 종이 공예 등의 작업을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강화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로 시각예술 관련 문화예술인(회화, 조각, 사진, 서예, 도예)인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화가 가진 특성과 시각예술 관련 문화예술이 어떠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표 3-9> 활동 분야

	응답수	비율
회화	37	37.0%
문학	20	20.0%
조각	8	8.0%
사진	7	7.0%
음악	6	6.0%
학술	5	5.0%
기타	5	5.0%
서예	4	4.0%
도예	4	4.0%
연극	2	2.0%
만화	2	2.0%
합계	100	100.0%

<그림 3-6> 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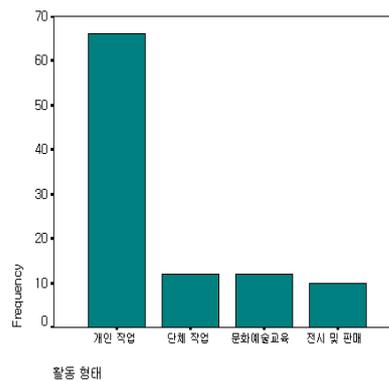
분야

또한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주로 개인 작업의 형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전시나 판매, 문화예술교육, 단체 작업의 형태로 작업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표 3-10, 그림 3-7).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분야가 주로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강화의 문화예술인들이 단체 작업이나 전시/판매, 특히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0> 문화예술 활동 형태

	응답수	비율
개인 작업	66	66.0%
단체 작업	12	12.0%
문화예술교육	12	12.0%
전시 및 판매	10	10.0%
합계	100	100.0%

<그림 3-7> 문화예술 활동 형태



설문에 응답한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강화의 거주지를 주택과 작업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표 3-11). 이는 많은 수의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인천과 강화를 주 활동 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활동 지역이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인 것과 상응한다(표 3-12, 그림 3-8). 이를 통해, 강화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 단순히 창작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작/작업 환경의 개선이나 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사회적 인프라의 형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표 3-11> 거주지 용도 (다중 응답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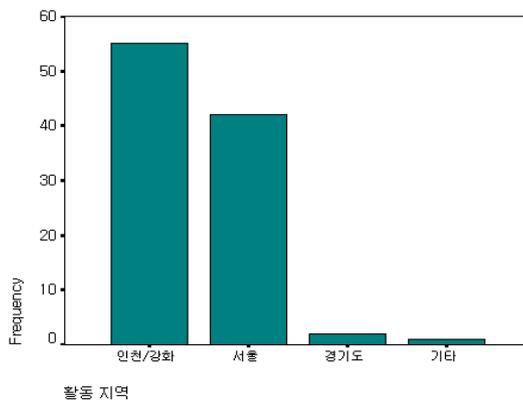
다중응답문항 (Value tabulated = 1)				
Dichotomy label	Nam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주택	63	40.6	63.0
	작업실	68	43.9	68.0
	전시장	12	7.7	12.0
	교육	7	4.5	7.0
	판매	3	1.9	3.0
	기타	2	1.3	2.0
	Total responses	155	100.0	155.0

0 missing cases; 100 valid cases

<표 3-12> 활동 지역

	응답수	비율
인천/강화	55	55.0%
서울	42	42.0%
경기도	2	2.0%
기타	1	1.0%
합계	100	100.0%

<그림 3-8> 활동 지역



거주지 혹은 작업실로서 강화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문항에서는, 5점 만점에 3.33점 정도로 나타났다(표 3-13). 만족하는 이들은 역시 강화를 주거 지역으로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던 강화의 자연 조건에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표 3-14). 반대로 강화의 작업/생활 조건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던 이들의 경우에는 강화가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부족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표 3-15). 또한 전반적으로 강화가 문화예술인들의 거주 및 작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3.65점의 만족도를 부여하였다(표 3-16). 이 가운데 ‘적합하다’를 선택했던 문화예술인들은 역시 강화의 자연조건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고(표 3-17), 부적합한 이유로도 역시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꼽았다(표 3-18).

<표 3-13> 강화의 생활/작업 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강화의 생활/작업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1점=매우 불만족스럽다 / 5점=매우 만족스럽다)							
	N	Minimum	Maximum	Mean	Std.	Variance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d. Error	Statistic	Statistic
만족도	100	1	5	3.33	.09	.922	.850
Valid N (listwise)	100						

<표 3-14> 만족 이유

	응답수	비율
자연조건	23	48.9%
지역문화	9	19.1%
지역 주민과의 교류	8	17.0%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	5	10.6%
저렴한 거주비용	2	4.3%
합계	47	100.0%

<표 3-15> 불만족 이유

	응답수	비율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부족	8	53.3%
기타	4	26.7%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 부족	2	13.3%
생활의 불편함	1	6.7%
합계	15	100.0%

<표 3-16> 강화의 거주/작업 적합도

강화가 문화예술인의 거주 및 작업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매우 적합하지 않다 / 5점=매우 적합하다)

	N	Minimum	Maximum	Mean		Std.	Variance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d. Error	Statistic	Statistic
적합도	100	1	5	3.65	.09	.914	.836
Valid N (listwise)	100						

<표 3-17> 거주/작업 적합 요소

	응답수	비율
자연조건	31	51.7%
지역문화	15	25.0%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	7	11.7%
저렴한 거주비용	3	5.0%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	3	5.0%
기타	1	1.7%
합계	60	100.0%

<표 3-18> 거주/작업 부적합 요소

	응답수	비율
문화 기반시설 및 인프라 부족	4	36.4%
기타	4	36.4%
지리적 고립성	1	9.1%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 부족	1	9.1%
지역 주민의 무관심	1	9.1%
합계	11	100.0%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강화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만족도가 중간 이상은 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음을 알려준다. 또한 강화지역의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유인한 것은 강화의 자연 환경이었지만, 이들이 강화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즉 강화에서 창작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계속 거주해 온 지역민들, 새롭게 이주해 온 이주민들, 그리고 앞으로 강화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이들 모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무분별한 시설의 설비나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인들이 강화를 선택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강화의 자연 환경이었다. 따라서 강화의 자연환경을 지금과 같은 상태이거나 혹은 좀 더 풍요롭게

지속, 보존하면서 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 가능한 형태이되 거주자들의 생활의 편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설비가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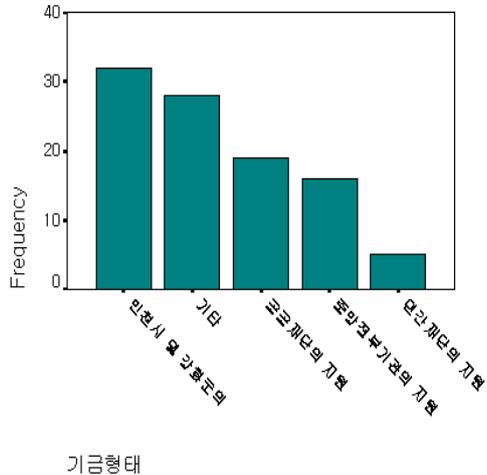
3. 지원 수혜 현황과 지원 사업 찬성도

설문에 응답한 강화 거주 문화예술인들의 가운데 32%가 지역의 기금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전체의 28%가 어떠한 종류의 기금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표 3-19, 3-20, 그림 3-9). 기금 지원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역으로부터 받았지만, 응답자 전체 가운데 32%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 과 지원의 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9> 기금 지원 형태

	응답수	비율
인천시 및 강화군의 지원	32	32.0%
기타	28	28.0%
공공재단의 지원	19	19.0%
중앙정부기관의 지원	16	16.0%
민간재단의 지원	5	5.0%
합계	100	100.0%

<그림 3-9> 기금 지원 형태



<표 3-20> 기금 지원 형태 기타

	응답수	비율
지원 받은 적 없음	28	100.0%
합계	28	100.0%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강화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는 5점 척도에서 3.95로 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3-21). 또한 강화를 ‘문화지구’로 특성화한다면, 그 내용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차지했다(표 3-22).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가지는 이 같은 관심도와 기

대치에서 보이듯 강화를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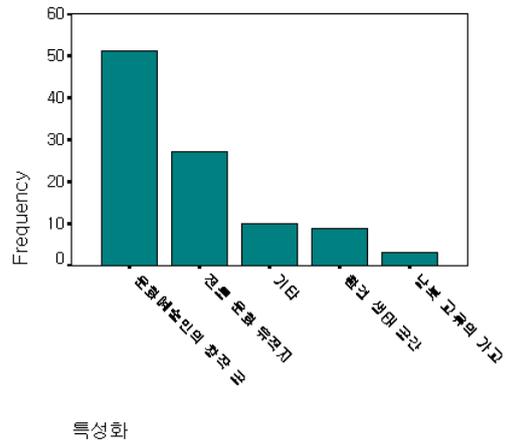
<표 3-21> 강화 문화예술 관련 사업 관심도

현재 강화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관련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1점=전혀 관심이 없다 / 5점=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N	Minimum	Maximum	Mean		Std.	Variance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d. Error	Statistic	Statistic
관심도	100	1	5	3.95	.10	1.019	1.038
Valid N (listwise)	100						

<표 3-22> 문화지구 특성화 내용

	응답수	비율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	51	51.0%
전통 문화 유적지	27	27.0%
기타	10	10.0%
환경 생태 공간	9	9.0%
남북 교류의 가교	3	3.0%
합계	100	100.0%

<그림 3-10> 문화지구 특성화 내용



<표 3-23> 문화지구 특성화 내용 기타

	응답수	비율
역사,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총체적 내용	9	90.0%
특성화가 필요 없다	1	10.0%
합계	10	100.0%

4. 강화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 현황

문화 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는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문화와의 연계를 위한 구조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화 예술 활동에 있어 문화 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는 매우 중

요한 문화 예술 활동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강화에는 강화문예회관을 대표로 하는 21개의 문화 예술 관련 시설과 29개의 문화 예술 관련 단체가 있다. 다음은, 강화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 목록과 간단한 소개이다.

<표 3-24> 강화 문화예술 관련 시설

No	시설	개관 년도	연면적 (㎡)	수용 인원 (명)	개관시간	휴 무	전화 번호	주소
1	강화문예회관 소공연장 체육관 경 대공연장 문화의집	1991	3699 272 1442 496	277 2000	주간 08:00 ~ 17:00 야간 17:00 ~ 23:00	무 휴	933 -8016	강화읍 국화리 239
2	강화 군립도서관	1994	871	192	09:00 ~18:00	월	932 -8264	강화읍 관청리 301-2
3	강화역사관	1988	924.50	120	하절기 09:00 ~18:00 동절기 09:00 ~17:00	무 휴	933 -2178	강화읍 감꽃리 1040
4	강화은암 자연사박물관	2001	912		10:00 ~18:00	무 휴	934-88 72~3	송해면 양오리 632-4
5	전원미술관	1996	753		10:00 ~18:00	무 휴	934 -3560	송해면 솔정리 502-2
6	심은미술관	2000	1157		10:00 ~17:00	월 화	933 -0964	하점면 이강리 357
7	더리미미술관	1996	88		09:00 ~19:00	무 휴	933 -9297	선원면 신정리 421-5
8	강화	2005	111.77		가변	가	930	강화읍 신문리 189

	미술전시관					번	-3227	
9	한국강화문화 예술원(마리산 갤러리)	2000	9915	300	하절기 10:00 ~18:00 동절기 10:00 ~17:00	월	937 -9320	화도면 덕포리 1210
10	코스모스 갤러리	2002			09:00 ~18:00		933 -6188	내가면 황청리 119
11	무애원 도예박물관						932 -5087	하점면 부근리 548-1
12	강화근충농원	1999				월	934 -9405	강화읍 국화리 산 63-1
13	강화해양탐구 수련원	1999	3305.8		09:00 ~17:00		937 -3782	화도면 장화리 336-1
14	외포리곶창굿 전수교육관						934 -3070	강화읍 신문리 467
15	강화갯벌센터	2005	704		09:00~18: 00	월	937 -5057	화도면 여차리 934-6
16	강화 화문석문화관	2005			09:00 ~ 17:00		932 -9922	송해면 양오리 630-1
17	농경문화관	2003			09:00 ~ 17:00		937 -7050	불은면 삼성리 1027-42
18	청소년수련관	2002	3333	409			934 -0177	용정리 1075-1
19	바다의 별 청소년수련관	2004	4193	373			932 -6318	내가 고천리 1486
20	강화 성산 청소년수련관	2005	3320	459			934 -0403	선원면 선행리 산113
21	마니산 청소년수련관	2006	1852	144			937 -3353	화도면 장화리 985-95

<표 3-25> 강화 문화예술 관련 단체

No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활동 내용
1	강화문화원	932-0011	강화읍 남산리 14-3	향토사 조사연구, 자료수집, 보존 및 지역문화 행사, 교육 등
2	강화문학회	933-4224		월례 토론회 및 연간 문학지 발간
3	강화예술 문화단체 협의회	937-3200	양도면 인산리 236-3	예술창작활동, 출판 및 교육, 향토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업
4	강화민예총	934-8288	강화읍 신문리 495-2	회원 전시 및 지역 문화 교육
5	강화영상회	932-5910	내가면 외포리 542	작품 활동 및 전시
6	강화군립 합창단		강화읍 남산리 214	정기 연주회 및 연주 활동
7	강화전통품물 보존회	932-6765	내가면 황청리 132	강화 가락 품물의 연구, 정리, 연희, 보급 등
8	외포리꽃 창구보존회	933-8962	내가면 외포리 628	외포리 꽃창구 연구, 보존, 시행 등
9	한국여성 도예가회	937-9320	화도면 덕포리 1210	여성 도예가 작품 활동 및 전시
10	한국명선 차인회	933-5091	강화읍 관청리 441(용흥궁)	
11	한국미술협회 인천시 강화군지부	934-6900	강화읍 남산리 214	강화 미술인 작품 활동 및 전시
12	강화 서예가 협회	933-0946	하점면 이강리 357	강화 서예가 작품 활동 및 전시
13	강화 역사문화 연구소	740-2921 ~2	강화읍 갑곶리 648-1	강화 역사에 대한 연구·교육·출판활동
14	강화문화예술 진흥추진협회	934-5752	강화읍 관청리 170-4	회원 전시 및 각종 문화행사 주관

15	강화올림	932-1897	강화읍 관청리 594-2	연주 활동
16	한국육필 문학회	933-7793		육필 원고 수집 및 보존, 전시
17	강화전업 작가회	932-2460	양사면 북성리 810-1	작품 활동 및 전시
18	강화미술인회	932-2371	하점면 이강리 357	작품 활동 및 전시
19	강화반달이 연구소	937-3633	양도면 능내리 437	반달이 제작 및 연구
20	삼량성축제 위원회	937-0125	길상면 온수리 635	삼량성축제 기획 및 추진
21	진달래축제 위원회	934-0300		진달래축제 기획 및 추진
22	선원사논두렁 연꽃축제 위원회	934-8484	선원면 지산리 692-5	선원사논두렁연꽃축제 기획 및 추진
23	용두레질 노래 보존회	934-0222	강화읍 관청리 523-3	용두레질 노래 보존, 연구, 시연
24	강화고인돌 사랑회	934-1400	강화읍 관청리 1098	고인돌 연구, 조사, 학술 발표 등
25	강화 문화해설사 모임	933-5441		강화문화해설사 교육 및 육성
26	송조회	932-6190	강화읍 남산리 203-1	단군대제 봉행
27	마리교육생협	937-8680	길상면초지리 1140-4	교육 및 먹거리 공동체 운영
28	생명축제 위원회	937-2314	길상면초지리 1140-4	
29	강화로닷컴		www.gangwharo.com	강화 소개, 지역 생활, 문화, 각종 행사 안내

▶ 강화문예회관⁴⁹⁾

<그림 3-11> 강화문예회관



강화문예회관은 1991년 강화읍 국화리 239번지의 강화공설운동장 내에 건립되었다. 2층 건물로 지층에는 식당과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수용인원 2000명의 체육관 겸 대공연장과 문화의 집, 2층에는 연극공연이나 영화관람 또는 공연을 위한 소공연장과 무대,

사무실, 조명·영사실, 분장실이 함께 구비되어 있다. 문예회관의 주요 사용범위는 ①문화활동을 위한 연극·영화·음악·무용 등의 공연 ②군민의 공공집회 및 체육·학술·예술 행사의 무대 제공 ③기념행사 및 일반 문화행사, 기타 문예회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문예회관에 제출하여 사용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사용 시설에 해당하는 실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강화문예회관에서는 관청의 각종 공식행사는 물론 여러 문화공연과 전시회 등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화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강화역사관⁵⁰⁾

강화역사관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강화가 가지는 특수한 위치를 되새기

49)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강화문예회관 <http://www.ganghwaart.com/> 를 참조하였다.

50)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강화역사관 홈페이지

<http://www.inpia.net/INPIA2000/T/02EM/kanghwa/index.htm>를 참조하였다.

<그림 3-12> 강화역사관



면서, 민족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198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16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1988년 9월 강화역사관을 개관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는 역사관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전시물 재배치 공사 후 2001년 2월에 재개관하

기도 했다.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40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강화역사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4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옥외에서는 갑곶돈대를 비롯하여 해선망 어선, 비석군 등을 볼 수 있다.

강화역사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1전시실에는 선사시대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등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밖에 참성단을 비롯하여 천문도, 고인돌, 조선시대 관복을 디오라마(Diorama)로 볼 수 있으며, 강화의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유적 분포도 모형도도 설치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강화인의 강인한 정신으로 일구어낸 찬란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곳으로 꾸며져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을 디오라마로 재현하여 제작과정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된 경판을 이용하여 직접 인쇄 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물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 동종을 비롯하여 철종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철종을 모시러 오는 모습을 묘사한 12병풍 강화행렬도, 각종 자기류와 고서, 강화에서만 생산되는 화문석과 반달이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국난이 닥칠 때마다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과 충의정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5진7보53돈대의 방어시설인 성을 축조하는 모습을 재현한 축성 디오라마와 대몽항쟁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한 삼별초가 강화

를 떠나 진도를 떠나는 모습을 재현한 삼별초 대몽항쟁 디오라마, 그리고 정묘호란, 병인양요 당시 사용되었던 조총이나 활과 같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전시실에는 우리나라 개화의 관문으로서의 강화의 역할과 서양의 침략에 굴하지 않았던 강화인의 자주정신을 다루고 있는 전시실이다. 이곳에는 병인양요의 정족산성 전투 디오라마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양헌수(梁憲洙, 1816-1988) 장군의 영정을 비롯하여 신미양요의 광성보 전투 디오라마, 광성보 전투에서 활약한 어재연(魚在淵, 1823-1871) 장군의 영정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강화군에 설치된 5진7보53돈대와 8포대의 국방시설을 재현한 화망구성도와 강화포대 모형과 영상, 그리고 구한말 강화에서 사용된 소포 및 불랑기포(佛狼機砲) 등 구한말 총통류가 전시되어 있다.

▶ 심은 미술관⁵¹⁾

<그림 3-13> 심은 미술관



심은 미술관은 2000년 2월 말에 폐교된 강후초등학교 건물을 개보수하여 2000년 9월에 개관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강화도를 찾는 반면, 이렇다 할 문화 공간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강후 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 서예(전각)가 심은 전정우(대한민국 미술 대전

대상, 동아 미술제 미술상 수상, 현 한국 미술협회 이사)가 사재를 털어 학교 교정을 보존하는 동시에 내부를 미술관으로 꾸며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 내부에는 복도를 포함해 총 4개의 공간이 있는데, 1층에는 1전시실과 특별전시실(쉼터인 다향만당과 겸용), 그리고 실내 조각 작품을

51)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심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imeun.org>를 참조하였다.

전시할 수 있는 로비와 복도가 있다. 2층에는 2실과 3실 및 복도 공간이 있고, 각 실마다 중진, 원로 작가들의 서양화, 문인화, 한글서예 등의 작품들이 분야별로 150여 점 상설 전시중이다. 2층 심터는 ‘다향만당(茶香滿堂)’이라 하여 미술관에서 직접 만든 대추차와 국화차, 솔차, 유자차 등 전통차를 마시며 미술관 뒷길의 역사품 받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있고, 미술관 정원에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야유회, 수련회 장소로서 이용 가능한 취사,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동장과 테니스장도 이용할 수 있다. 정원 옆 잔디밭에는 초가 원두막과 바베큐 시설이 있고, 등나무 평상, 원반 식탁이 있어 단체 규모의 손님들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

▶ 강화갯벌센터⁵²⁾

<그림 3-14> 강화갯벌센터



강화갯벌센터는 강화에 넓게 자리 잡은 갯벌의 소중한 생태적 가치를 살려 보전함과 동시에 갯벌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코자 2005년 6월에 설립되었다. 본 센터의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하나가 되어 1999년부터 영국습지보전 사례 및 교육센터에 대한 연구 및 시찰을 진행하였으며, 강화군수, 강화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갯벌센터건립실무추진위원회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 및 강화갯벌센터 교육프로그램 마련 회의 등을 통해 설립 부지, 설계, 프로

52)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강화갯벌센터 홈페이지 <http://tidalflat.ganghwa.incheon.kr/>를 참조하였다.

그램 등 강화갯벌센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해나갔다.

많은 이들의 연구와 관심으로 탄생한 강화갯벌센터는 건물뿐 아니라 그 주변 갯벌을 포함하여 철새 도래지의 탐조대와 갯벌 주변의 지도식(Guided)과 자기학습식(Self-Guided) 학습장을 갖춘 환경친화적 갯벌 연구교육문화센터이다. 이를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갯벌생태교실, 조류탐조, 특별 전시회와 같은 각종 갯벌 관련 교육 활동과 생태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부 시설과 전시장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안내자 육성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으며, 강화인근 갯벌/자원활동가 및 지도자 양성교육 등의 모니터링, 센터 및 지역 주민과 연계한 강화의 역사, 문화, 생태 탐방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갯벌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장기적인 습지복원을 추진하는 갯벌의 보전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갯벌교육관, 내륙습지 교육관을 설립하고, 염습지 등 해안습지조성과 조류서식지를 조성하는 등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강화갯벌센터의 건물은 전체 2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실험실, 도서/인터넷/자료실, 로비, 밀물/썰물 수족관, 에코샵, 안내실(매표소), 화장실, 오감전시, 전시실, 관찰 테크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2층에는 옥상정원, 상징전시, 전망대(망원경), 오감전시, 디오라마전시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갯벌 및 철새 연구실, 다목적 영상실, 기획전시홀, 화장실, 대청마루, 휴게마당이 있다.

▶ 강화문화원⁵³⁾

강화문화원은 1962년 4월에 건립되어, 1965 2월에 사단법인 강화문화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93년에는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4년 8월에는 지방문화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원장 1

53) 시설 관련 내용은 강화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ganghwaro.com/cc/index.htm>와 강화군청 홈페이지의 문화복지시설 안내 <http://www.ganghwa.incheon.kr/>를 참조하였다.

인, 이사 13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향토사 연구위원 1인, 간사 1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14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화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보존, 지역 문화행사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그리고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강화문화원은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의 보존 사업과 함께 1976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강화사』를 비롯하여, 최근의 『강화 지명지』, 『강화향토유적 사료집』 등 각종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주부 백일장, 문화유적지 탐방 등과 같은 지역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또한, 주부 서예 강좌나 서각 실기강좌 등의 문화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할 뿐만 아니라, 시선(柴船) 뱃노래와 용두레질 노래와 같은 민속 고유문화 개발 및 발굴, 보존, 그리고 문화재 정비 및 복원에도 힘쓰고 있다.

▶ 강화역사문화연구소⁵⁴⁾

강화역사문화연구소는 강화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교육·출판 활동을 통하여 한국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1999년 8월에 설립되었다. 특히 연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의미부여, 교육을 통한 바른 역사의식의 개발, 출판을 통한 정보의 보급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화역사문화연구소의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연구 사업으로는 강화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32회에 달하는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 그리고 학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양명학회와의 협력 하에서 국제양명학회를 공동 기획 및 주최하고 있다. 출판 사업으

54) 관련 내용은 강화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anghwado.org/>와 강화역사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양태부씨와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로는 『조선왕조실록 강화사료집』과 같은 서적과 『조선후기 강화학파』와 같은 자료집을 총 15권 가량 출판했다. 또한 교육 사업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강화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교실」에서는 강화도에 대한 역사를 알기 쉽고, 편안하게 대중화하는 작업을, 「문화재교실」에서는 문화재 알고 찾고 가꾸기 등의 교육을 통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 강화예술문화협의회⁵⁵⁾

강화예술문화협의회는 1978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강화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과의 협력 하에 각종 전시회와 초대전시, 교류전 등을 개최하면서 강화를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이다. 본 단체는 강화 향토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고, 문화예술의 대외적 교류와 예술가 상호간의 협조를 통한 창작활동 사업, 출판 및 계몽 사업, 그리고 향토 문화 교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협의회 내에는 미술, 서예, 문학, 무용, 국악, 사진, 조각, 공예 분과를 두고 있으며, 창립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회의 정기 회원전시와 각종 문화행사를 꾸준히 주관해 왔다. 또한 강화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미술대회인 학생미술사생대회를 강화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강화군내 학생들의 미술 입문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55) p.487, 문화예술, 홍윤식 강화사 하

제3절 문화예술 특별지구로서의 강화의 독자적 성격

1. ‘고려문화권’으로서의 강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강화의 역사·문화적 전통은 한반도의 역사 전반에 걸쳐 그 폭과 깊이가 장대할 뿐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유물·유적의 수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실제로 강화에는 선사시대의 지식묘를 포함하여 150여 기의 고인돌과 선사 시대 거주 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고인돌, 단군 신화와 관련된 마니산의 침성단, 삼랑성 등단군 시대의 사적들, 그리고 길상면 전등사의 대웅전, 약사전, 범종 등과 같은 신라 시대의 불교 유적들이 존재한다. 그뿐 아니라 대몽 항쟁 당시 고려 천도로 설립되었던 고려 궁지, 강화 산성, 강화 산성의 서문인 담화루(膽華樓), 남문인 안파루(晏波樓) 등의 유적, 조선 시대의 유교 유적 충렬사와 강화 향교, 교동 향교 등이 있다. 또한 외래 문물의 도입과 관련된 유적 가운데 하나인 강화읍 성당은 1900년에 완공된 한국 성공회의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강화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려 후기 39년간의 항몽의 역사와 삼별초 부대의 장렬한 항전, 병자호란 때의 순국의 역사, 1866년의 병인양요, 1871년의 신미양요, 1875년의 운양호 사건을 통한 반제국주의 항쟁 등은 강화성을 비롯하여 강화 해안에 즐비한 12개의 진과 보, 53개의 돈대 등 65개의 방어진지와 같은 무수한 군사 유적을 남겼다. 강화의 역사 문화 유적의 수는 현재 562개소의 문화재 내지 사적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 86점, 강화군 자체 향토유적 20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역사·문화유산의 풍부함은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제3차 5개년 문화권 유적정비계획’에서도 강화를 ‘강화문화권’이라는 독립적인 권역으로 지정하게 하였다.

강화가 가지는 무수한 역사·문화 자원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려시대의 유물 유적들이다. 고려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유물·유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고려 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이다.

하지만 분단 이후로 개성이 행정적으로 북한에 속하게 되면서 남한의 고려시대 연구는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했다. 남한에서 고려 문화를 연구한다고 할 때, 대몽항쟁 기간 중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강화지역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유물유적을 연구하는 것은 남한에서 부족했던 고려, 나아가 고구려시대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조사가 개성과의 연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북한과의 문화 교류 사업으로서 또 하나의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개성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 만월대, 고려 성균관, 태조 현릉-왕건릉, 나성, 고려 침성대, 수창궁, 연복사종, 영통사지, 영통사 5층탑, 현화사지, 현화사 7층 석탑, 불일사지, 불일사 5층탑, 선죽교, 공민왕릉, 그리고 개성 남대문에 이르는 화려한 고려시대의 유물·유적과 강화의 전등사, 이규보의 묘, 곤릉, 고려궁지, 강화 산성 등의 유물·유적을 함께 연구할 수 있다면, 고려의 문화적 우수성과 민족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기에 모자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 문화 교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고려시대의 유물·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려시대 유적들을 정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를 기반으로 개성과 강화의 고려 문화 발굴 사업을 연계한다면 고려 문화뿐만 아니라 고구려 문화까지를 포함한 고구려·고려 문화권은 한반도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문화교류자유지역’으로서의 강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한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와 시행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2000년 8월 1차 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이 성사되었고, 이후 금강산에서의 4차 상봉, 그리고 2005년에는 남북의 몇 개 도시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2년 신의주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여 개인 소유권 및 상속권 보장 이외에 자체적인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고, 외화의 무제한 반·출입을 보장하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신의주 특별지구를 선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 그룹의 주도로 98년부터 시행되었던 금강산 관광을 기반으로 금강산 지역 일대를 금강산 관광 특구로 지정하였고, 역시 2002년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성공단의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은 남북 공동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중국의 선전(深圳)이나 푸둥(浦東)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의 성격을 지닌 세계적인 규모의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이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고자 시작되었다. 현재 공단의 조성은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건설이 완공된 1차 단지에 약 23개의 남한 기업이 진출해 있다. 비록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한간의 화해무드에 다소 제동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한반도의 한 민족으로서 이제까지의 노력에 더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이 필요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강화는 이 같은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중부 서해안에 위치하여 한강 하류를 경계로 남북 접경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화의 승천포는 전쟁 전까지 개성과 통하는 가장 가까운 나루터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해주를 비롯한 황해도 일원과 개성 등 인접된 지역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하였다. 게다가 강화도의 북부지역인 송해면 월곶리부터 양사면 인화리까지는 민통선 지역이지만 강화도와 북한의 개풍군 사이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⁵⁶⁾ 특히 강화의 섬 가운데

56) 이시우, “평화와 흥익을 찾아 : 강화, 평화기행” 『민통선 평화기행』 (서울 : 창작과 비평사, 2003)

데 하나인 교동도는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의 하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를 연계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서울과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해주까지 고속도로망이 계획되어 있기도 하다. 교동도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거점이 된다면 고향을 잃고 교동도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 강화의 지리적 입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점으로 설정한 남북한 교류·협력 계획과 사업들이 많이 있다. 우선, 2002년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강화종합발전계획은 교동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북한 관광특구인 ‘평화의 섬’ 개념을 도입하고, 약 10만 평 규모의 물류교역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⁵⁷⁾ 또한 인천광역시는 2004년 발행한 ‘인천·개성 연계발전을 위한 도로정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개성공단의 상호발전을 위해 서울(금융중심) 인천(물류중심) 개성(제조업중심)의 삼각 축을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성~강화~인천국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환서 해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⁵⁸⁾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강화~개풍을 연결하는 연장 1.4km의 남북간 연륙교가 2007년쯤 완공될 경우, 강화 남단에서 인천 옹진군 신도를 거쳐 영종도 북단을 잇는 6.7km의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고, 정부가 2008년까지 완공기로 발표한 영종도~송도신도시~서해안고속도로(월곶IC)를 잇는 인천공항 제2연륙교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⁵⁹⁾

하지만 강화를 개성과 서울을 잇는 통과 도시나 물류교역단지로 한정하는 것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 사업에서 강화가 가진 잠재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의 경제적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 교류 부문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경제 교류 이전에 남북한 관계의 물꼬를 먼저 텃던 것은 1985년부터 시

57) 홍철, 채훈 “강화의 미래상” 『신편 강화사 하 : 강화의 미래상』 (강화: 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p.735-736

58) 인천=연합뉴스, 2005년 2월 13일

59) 문화일보, 2005년 2월 14일

작된 예술 공연의 문화교류 형태이기도 했다. 강화가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은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지역의 역할을 해내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접경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역사·문화에 대한 상호 연구 및 탐사 등, 작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작으로 강화를 남북한 문화 예술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든다면 남북한 화해 협력과 평화를 실천하는 데 보다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강화 개발정책의 현황 분석

- 제1절 “강화종합발전계획”
- 제2절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 제3절 강화 관련 발전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4장 강화 개발정책의 현황 분석

강화 지역과 관련하여 근래에 발표된 발전 계획 보고서로는 2001년 인천광역시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강화종합발전계획〉과 2006년 강화군의 요청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이 있다. 본 절에서는 두 개의 발전 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두 보고서가 가지는 비전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제1절 “강화종합발전계획”

1. 개요

2001년 인천광역시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강화종합발전계획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강화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종합발전계획이다. 이 발전계획은 계획의 범위와 목표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 각 부문 별 계획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다루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및 투자계획,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의 집행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두 번째 부문별 계획과제 부분은 〈한민족 역사문화, 관광 도시의 구현〉, 〈활력 있는 산업경제기반의 구축〉, 〈지역공간구조의 개편과 도시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주민 생활의 향상과 질 제고〉 등 구체적인 발전계획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목적 및 부문별 계획지표

1) 목적

강화종합발전계획은 강화를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동시에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위해 강화의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강화지역의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강화를 전국 7대 문화권 중 하나이자 국제적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화 시대의 확립,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강화 제2대교의 건설 등과 같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강화지역의 지리적 제약성 및 부문별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적 낙후를 개선할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강화종합발전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부문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를 ‘강화문화권’으로 발전시켜 단군 사상과 한반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 둘째, 세계화, 개방화 등의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강화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유적 및 자연생태환경과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하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특구화’를 모색한다. 셋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조성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물자의 교류 및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생태계의 공동연구 등 강화가 남북 교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쓴다. 넷째,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강화의 남단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생태공원의 조성과 바다와 섬 등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도시상을 정립하여 국제적 해양 생태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한다. 다섯째, 산과 바다와 푸른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공해 없는 청정 도시로서의 ‘녹색 강화’를 지향한다.

2) 계획지표

○ 계획 인구의 설정

강화발전계획에서는 강화의 자체 인구는 2020년까지 연평균 0.3%가 감소한 6만 474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지만, 신시가지 조성 및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발인구를 고려할 때, 2020년의 계획인구를 13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 지역경제의 장기전망

강화종합발전계획에서는 강화의 산업 구조에 있어, 농림수산업과 광공업은 9.8%와 9.6%로 점차 감소하지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 부문이 80.6%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부문별 발전계획

강화종합발전계획은 다섯 부문으로 나뉘어 그 발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민족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구현 부문, 활력 있는 산업경제기반의 구축 부문, 공간구조의 개편과 지역정비 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부문, 그리고 주민생활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 부문이다. 각 부문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강화 지역의 문화예술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한민족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의 구현 부문’과 ‘공간구조의 개편과 지역정비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민족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구현

강화종합발전계획은 한민족 역사문화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문화재 및 유적자원 보존과 정비, 환경친화적 관광기반의 조성, 관광 루트 및 관리운영계획 등 3개 부문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재 및 유적자원 보존 정비

강화종합발전계획에서는 역사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문화재의 지정 관리와 철저한 고증에 기초한 복원과 원형 보전을 하고자 한다. 또한 참성단 등의 단군 유적과 같은 문화재를 우선 정비하고, 지정 및 미지정 문화재의 재평가 및 등급 조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권역별로 정비하고자 한다. 그 밖에 안내문 정비 작업 등을 통해 문화재 정보 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재와 일정한 거리의 범위 내에 강화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볼거리 지역을 조성하되,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한다.

○ 환경 친화적 관광기반의 조성

■ 관광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의 기본 목표는 역사 문화유적의 발굴, 정비, 확충을 통해 강화의 역사 문화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남단 갯벌이나 생태공원 등 자연경관지와 바다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중점 정비권역을 설정하고 이 권역을 중심으로 강화관광의 기본 틀을 설정한다.

-역사 문화 관광권

역사 문화권의 주요 테마는 고려시대 몽골 항쟁기의 유적과 역사적 사실로, 이 시기를 보여주는 한민족(고려) 역사촌을 조성하여 당시 생활상의 재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참성단 축제, 강도 문화제 등 강화지역 내 문화이벤트 행사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 및 농산물 쇼핑과 야간 도시 관광을 제안하고 있다.

<표 4-1> 역사 문화 관광지 정비

지구명	성격 및 규모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
고려역사문화촌	종합 역사체험 단지형 계획구역 : 38.98ha	청소년 수련원, 문무연마의 장, 고려궁궐, 대장경각판원, 전통음식점, 저자거리 등
태권도 공원	태권도 테마 공원형 계획구역 : 346.9ha	태권도 전당, 수련단지, 영상단지, 관광단지, 한방·기공단지, 벤티센터, 주거단지 등
전등사 지구	문화, 휴양 관광지 계획구역 : 9.17ha	불교문화전시관, 휴게공원, 다목적 광장, 호텔, 여관, 산장, 야영장, 전통 음식점 등
보문사 지구	문화, 휴양 관광지 계획구역 : 1.75ha	중·저가의 관광호텔, 특산물 판매장, 야영장, 전통 음식점 등
화문석 마을	전통 공예 문화 관광지 계획구역 : 371.98ha	화문석 민속관, 화문석 작업장, 화문석 축제, 이벤트 축제의 장 등
제적봉 망향의 동산	대북한 이해의 장 계획구역 : 13.40ha	조망 공간, 북한관, 북한 물품 판매관, 연수시설, 상가 등

- 남단 생태 휴양 관광권

남단 생태 휴양 관광권 개발의 주요 테마는 생태관광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심시설인 여차리 생태공원과 남단 갯벌지역을 정비한다. 휴양 기능은 전등사 지구, 동막 해수욕장 등 기존 관광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계획하고, 함허동천 야영장, 마니산 관광지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권역 내 관광네트워크에 포함한다.

<표 4-2> 생태 휴양 관광지 정비

지구명	성격 및 규모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
여차리 생태공원	자연생태 학습장 계획구역 : 32.49ha	생물서식공간, 생태학습장, 조망대, 탐방로, 마루다리, 방문객 센터, 휴양시설 등
남간 갯벌공원	생태학습 관광지 계획구역 : 14.50ha	철새 테마공원, 갯벌 체험의 장, 소규모 편익시설, 휴게시설 등
자연사 박물관	동·식물 자연사 박물관 계획구역 : 33.96ha	표본 전시장, 교육 연구관, 영상극장, 수족관, 사육관, 이벤트 광장, 휴게 공원 등

- 삼산 휴양 관광권

관광개발의 테마를 휴양으로 한정하며, 보문사 지구를 권역중심으로 한 섬돌모루, 민머루 해수욕장을 연계지구로 설정한다.

<표 4-3> 온천, 보양 관광지 정비

지구명	성격 및 규모	주요 도입 기능 및 시설
덕정 온천지구	종합온천 휴양지 계획구역 : 45.70ha	온천장,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한방병원, 미니골프장, 게임센터, 상가, 저자거리 등
해명 온천지구	온천 휴양지 계획구역 : 9.98ha	온천장, 여관, 콘도미니엄, 다목적 광장, 게임센터, 광장, 상가 시설 등
온수리 온천지구	온천 휴양지 계획구역 : 1.14ha	온천장, 여관, 모텔, 다목적 광장, 스포츠 센터, 상가 시설 등

<표 4-4> 관광루트 및 관리운영계획

루트 이름	주제	형태	시장	소재
강화투어 21	강화투어	당일 /숙박관광	내,외국인 당일 /숙박 관광객	강화역사관, 용흥궁, 고려궁터, 태권도공원, 강화갯벌 등
전적지를 찾아서	교육	당일 /숙박관광	내국인 청소년 /어린이	강화군의 전적지, 산성, 총열비 등
Explore Korea	역사, 문화관광	당일 /숙박관광	내국인 청소년 /외국인 당일 관광객	마니산 침성단 축제, 고려궁지 등
Mud Festival	해양/생태관광	당일 /숙박관광	내국인 가족 관광객	갯벌체험
철새야 놀자	생태관광/교육	당일관광	내국인 가족관광객 /외국인 당일관광객	철새조망, 자연생태계 체험
한여름밤의 꿈	휴양	숙박관광	내국인 가족관광객	민머루해수욕장, 섬돌모루

▶ 관광 이벤트 개발 계획

<표 4-5> 사계절 관광 이벤트 계획

계절/주제		활동	장소
봄	역사·문화	강화역사·문화엑스포 고려 축제	문예회관 고려궁지 고려역사문화촌
	건강 이벤트	강화음식 대축제 -전통음식, 향토요리, 해물요리 축제 강화 특산물 전시대회 -화문석 축제, 인삼축제, 농·수산물 축제	강화 토산품 판매장 화문석 마을
여름	문화·예술	고인돌 체험 -원시생활체험, 원시놀이, 원시난타, 원시소성제, 고인돌 매직쇼, 고인돌 축조 등 고인돌 캠프	고인돌 광장
	생태	갯벌체험축제 -갯벌생물탐구 -진흙체험, 진흙 미용 -갯벌올림픽	남단 갯벌
	생활체험	강화생활체험 -농·어촌 생활체험, 바다 낚시	화문석 마을 외포리관광어촌
가을	음악·민속놀이	고적대 퍼레이드 시선벚놀이, 용두레질 노래 마당놀이, 사물놀이	공설운동장
	스포츠	추계스포츠 대회 -강화한마음 체육대회, 태권도 시범	공설운동장 태권도공원
	역사·문화	단군 따라잡기 참성단 축제 -개천 대제, 산악마라톤대회, 칠선녀성무, 전통인형전, 단군설화연극	참성단 마니산관광지
겨울	생활·생태체험	탐조체험 -철새 따라잡기, 철새의 생활, 철새놀이 가족생태캠프 고향체험, 농·어촌생활체험	여차리 생태마을
	눈·스포츠	눈·스포츠 -얼음조각전, 철인경기	공설운동장
	음악	군민노래자랑 강화아가씨 선발대회	문예회관

2) 활력 있는 산업경제기반의 구축

강화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강화가 주산업으로 삼고 있는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되 지역 특산물의 육성과 농림수산업의 현대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심지와 농어촌간 통합적 생활권을 조성하고, 소도읍 및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관광 어촌형 지역정비 및 한계농지를 관광 농원화하고 관광어촌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특산품, 농수산물 가공 등 지연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생산기반의 정비확충 및 첨단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한다.

<표 4-6> 산업별 발전 계획

산업	내용
농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소도읍 정비 농업기반 및 유통시설의 확충 -생산기반 정비, 생산지원 및 유통시설의 확충, 영농기계화, 시설원예, 버섯, 포도 등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 복숭아, 사과, 배 등의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정착, 첨단영농기술의 보급
임업	임목축적량의 증대, 사방사업의 실시, 임도시설의 확충, 산림휴양지의 조성, 표고 비닐하우스 재배사의 설치, 임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축산업	사료작물의 재배, 축산단지의 조성, 축산물 가공저장시설의 확충, 폐수정화시설의 확충, 지역축산물생산의 지원강화
수산업	어업인력의 양성, 전업 어가의 육성, 양식어장의 개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어선의 현대화, 어항시설의 확충, 유통가공체제의 정비
공업	강화제2대교와 연결되는 초지리 지역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임항산업과 첨단정보산업부품단지의 조성, 전문지식인 중심의 벤처산업
상업 및 서비스업	재래시장 기능의 정비 및 대단위 종합쇼핑센터 건립, 대단위 물류센터 건설, 금융기관의 지역 내 균형적 배치, 지역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국제화, 기타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조성

3) 공간 구조의 개편 및 도시정비계획

강화종합발전계획에서는 강화읍 중심의 단핵구조를 2도심 2부심의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안공간은 남단의 갯벌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벨트의 조성, 북단지역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 벨트화 그리고 남동쪽 해안변의 역사관광 벨트화 및 남동해안의 마린 스포츠화 등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표 4-7> 권역별 계획

권역	지역	내용
기존 도시(강화읍) 권역	강화읍, 송해면, 선원면	중추 공공행정, 업무 및 지역관리 기능
길상면 신시가지 권역	길상면, 화도면, 불은면	남부지역의 주거, 상업, 문화의 거점 국제 업무, 첨단 벤처산업 등 신규기능 유치
내가면 외포리 권역	내가면, 양도면, 삼산면, 서도면	서부해안 도서지역의 중심지로서 관광기능의 특화를 도모
창후리, 교동 권역	하점면, 교동면, 양사면	북부지역의 새로운 부도심으로서 기능을 부여하고 강화읍과의 연계성을 도모

4)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통망의 확충이다. 국가기간 교통망, 수도권광역교통망, 그리고 강화 제2, 제3대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안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동시에 내부 순환 교통망축을 설립하여 지역내외의 인적·물적 교통의 원활화에 힘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24,517억원의 사업비로 626.55km의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한다(인천-강화 간 고속도로 신설,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확장 등을 포함). 또한 통신 서비스시설 확충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5) 주민생활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주민생활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 부문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과 교육시설, 의료 보건 시설, 사회 복지 및 문화, 체육 시설을 상수도, 문화 및 체육시설의 수를 전반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강화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해방지시설 설치 의무 강화, 육지기인 배출 및 오염원의 규제 강화와 같은 환경 관련 규제를 확립, 강화하고자 한다.

4. 예산 및 집행⁶⁰⁾

<표 4-8> 사업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개소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278	9,293,486,100	4,935,894	2,707,566	1,650,026
교육 사회 복지	교육시설	4 736,760 (7.9)	706,760 (95.9)	- -	30,000 (4.1)
	문화체육시설	15 264,775 (2.8)	79,185 (29.9)	70,590 (26.7)	115,000 (43.4)
	보건의료시설	16 945,549 (10.2)	212,549 (22.5)	100,000 (10.6)	633,000 (66.9)
	사회복지시설	7 32,298 (0.3)	13,788 (42.7)	5,910 (18.3)	12,600 (39.0)
	소계	42 1,979,382 (21.2)	1,012,282 (51.1)	176,500 (8.9)	790,600 (40.0)
문화 관광	관광개발	17 1,412,735 (15.2)	877,751 (62.1)	80,822 (5.7)	454,162 (32.1)
	문화재정비	63 223,102 (2.4)	126,788 (56.8)	96,054 (43.1)	260 (0.1)
	소계	80 1,635,837 (17.6)	1,004,539 (61.4)	176,876 (10.8)	454,422 (27.8)

60) “표 9-16 사업투자계획 총괄”, 『(2001~2020)강화종합발전계획』(인천광역시 강화군, 2001) p.417

산업 경제	농업기반	18	363,053 (3.9)	261,762 (72.1)	22,756 (6.3)	78,535 (21.6)
	수산업기반	11	286,018 (3.1)	84,509 (29.5)	7,353 (2.6)	194,156 (67.9)
	임업기반	8	13,468 (0.1)	5,548 (41.2)	3,772 (27.6)	4,198 (31.2)
	축산기반	7	56,559 (0.6)	5,801 (10.3)	4,920 (8.7)	45,838 (81.0)
	소계	44	719,098 (7.7)	357,620 (49.7)	38,751 (5.4)	322,727 (44.9)
생활 환경	도시개발	5	367,130 (4.0)	166,769 (45.4)	121,584 (33.1)	78,777 (21.5)
	방재	71	51,255 (0.6)	33,027 (64.4)	18,228 (35.6)	- -
	소계	76	418,385 (4.6)	199,796 (47.8)	139,812 (35.6)	78,777 (18.8)
SOC	공급처리시설	14	291,170 (3.1)	124,465 (42.7)	166,70557(0.3)	- -
	교통시설	21	4,225,272 (45.5)	2,212,850 (52.4)	2,008,922 (47.5)	3,500 (0.1)
	통신시설	1	24,342 (0.3)	24,342 (100.0)	- -	- -
	소계	36	4,540,784 (48.9)	2,361,657 (52.0)	2,175,627 (47.9)	3,500 (0.1)

제2절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1. 개요

강화군청의 요청으로 2006년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행한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은 2020년까지 강화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장기발전계획이다.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은 지역 현황 여건, 그리고 개발 수요 및 여건을 분석하는 부분과, 실질적인 개발 내용이 담겨있는 중장기 지역종합 개발 구상 부분, 그리고 각 사업별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는 유형별 전략사업 추진 예시 부분과 재정 및 기대 효과 등을 다루는 종합시행계획 수립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2. 기본 방향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은 강화를 ‘남북한 및 동북아 교류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한 도시로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복합 관광레저 휴양시설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강화의 한민족 역사도시로서의 특색을 강화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탈바꿈시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농촌의 전원과 도시의 기능이 조화된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강화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테마형 단지조성을 제안하며, 강화읍의 구도심 재생과 역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산재된 지붕 없는 박물관의 문화유적을 네트워크화하고, 네트워크식 개발루트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의 관광자원 또는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계획 지표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방안에서는 2020년까지 강화의 인구를 약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정세변화로 인한 새로운 투자 환경 조성이 낳은 주택 개발 수요와, 인천 국제공항 설립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수, 그리고 첨단 산업 관련 유입 인구를 비롯한 그 외의 기타 유입 인구를 예측, 산정하여 추정한 수이다.

4.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내용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농촌의 전원과 도시의 기능이 조화된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테마 - 생태전원형, 역사문화형, 여가휴향형 - 를 가진 주거단지(타운)을 조성하여 역사와 생업, 미래형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생태전원 테마는 전답, 과수원 등 농업생산 시설 및 농업관련 교육 실습 시설 등과 주거 단지를 연계하는 방식, 역사문화형은 유적지 및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문화센터,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여가휴향형은 강화의 녹지 공간 및 휴양시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각 테마별 타운의 입주 고객 타겟을 보면, 역사문화형은 20~30대 문화향유 계층, 전원생태형은 40대 이상 노년층 중 농업에 종사하는 계층, 그리고 여가휴향형은 실버계층 및 외국인 연금 수혜 대상자이다. 각 테마별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9> 테마별 세부 사업

구분		세부사업
역사 문화형	강화읍 정비	강화읍성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갑곶리, 남산 도시개발사업
		이화직물부지 도시환경정비
		새시장 도시환경정비
		창리 캐슬타운 개발사업
	역사문화테마파크	보문사지구
생태 전원형	농촌 전원	산이포민속마을
		불은 농촌문화교류특구
		장화리 생태휴양단지
	어촌 전원	외포리 관광어촌
		어유정항 정비 및 황산도항 어촌관광단지
		하점 친환경 물류·산업 복합단지
여가 휴양형	도시개발	초지리 아쿠아빌리지 개발사업
	여가 휴양	강화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삼산면 휴양섬 조성사업
		고천리 관광휴양지구
		인화리 리조트
		덕정복합관광레저단지
광역 교통망 확충	경전철	김포신도시 - 초지대교-길상면(12.3km) 오류~약암~초지대교~길상면(12km)
	고속화도로	영종도~신도~강화~개성공단
		김포누산C~통진, 월곶~(대교신설)~강화해안도로 남측연결
	해안도로	김포누산C~김포해안도로~(대교신설)~강화해안도로 북측연결

5. 단위사업별 추진방식 및 사업비 산정⁶¹⁾

<표 4-10> 단위 사업별 추진 방식 및 사업비

구분		세부사업	사업규모 (천㎡)	사업방식	추정사업비 (백만원)
역사 문화형	강화읍 정비	강화읍성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둘레 7.1km		
		갑곶리, 남산 도시개발사업	113	민간개발	39,745
		이화직물부지 도시환경정비	15	민자유치	50,000
		새시장 도시환경정비	12	국고지원	1,277
		창리 캐슬타운 개발사업	331	공영개발	1,011
	역사문화 테마파크	보문사지구	17	국고지원	95,000
생태 전원형	농촌전원	산이포민속마을	60	국고지원	4,827
		불은 농촌문화교류특구	-	국고지원	3,000
		장화리 생태휴양단지	893	민자유치	2,000
	어촌전원	외포리 관광어촌	60	국고지원	70,000
		어유정항 정비 및 황산도항 어촌관광단지	135	국고지원	2,700
		하점 친환경 물류·산업 복합단지	300	국고지원	56,100
여가 휴양형	도시개발	초지리 아쿠아빌리지 개발사업	893	민영개발	6,750
	여가휴양	강화종합리조트 조성사업	661	민자유치	300,000
		삼산면 휴양성 조성사업	1,984	민자유치	57,353
		고천리 관광휴양지구	4,959	민자유치	300,000
		인화리 리조트	1,283	민자유치	300,000
		덕정복합관광레저단지	1,948	민자유치	79,000
광역 교통망 확충	경전철	김포신도시-초지대교-길상면 (12.3km)	12~13km	국고보조	600,000
		오류~약암~초지대교~길상면 (12km)			
	고속화도 로	영종도~신도~강화~개성공단	40km-4차선	민자유치	1,000,000
		김포누산IC~통진, 월곶~(대교신 설)~강화해안도로 남측연결	10km-6차선	사업시행 자 부담	300,000
해안도로	김포누산IC~김포해안도로~(대교 신설)~강화해안도로 북측연결	29km-4차선	국고보조	435,000 (확포장)	

61) “표 6-4 단위 사업별 추진방식 및 시기”, 한국토지공사,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인천광역시, 2006) p. 227

제3절 강화 관련 발전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⁶²⁾

앞에서 살펴본 강화 관련 발전계획 두 편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한계들을 지닌다. 이는 많은 비용을 들여 매해 발행되지만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지역의 발전 계획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같은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성찰적인 비판과 검토를 위해, 먼저 앞서 다룬 두 편의 강화 관련 발전 계획이 가진 문제점 두 가지를 짚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강화종합발전계획」과 「강화군 장기종합 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가 가지는 첫 번째 문제점은 두 계획이 여전히 무조건적인 개발 논리에 사로잡혀 단기적인 개발 중심의 사업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계획 모두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강화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강화의 주산업인 농업을 사양 산업으로 치부하고 관광산업에 총력을 기울여 강화를 하나의 테마파크와 같이 개발하려 하고 있다. 「강화종합발전계획」의 경우 광광권역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고, 「강화군 장기종합 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는 아예 테마를 가진 거대 주거단지를 설립하여 강화의 관광산업과 연계하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농업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 종사 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통한 외부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구 계획을 전제로, 강화의 산과 밭, 논과 같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대신 국적 불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가내수공업, 소농 등은 집적 산업을 위해 커다란 쇼핑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및 대규모 가공공장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며, 그나마 농업에 대한 언급은 기계화, 관광 농원화, 가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관행적인 대안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62) 본 논의는 ‘강화의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특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 발제문 ‘강화종합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물론 현재 강화의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농업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역사·문화적 자원이 강화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역사·문화적 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곧 관광 산업화와 서비스산업 도시화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사고방식이다.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의 삶의 기반을 비롯하여 산업적 자생력, 궁극적으로는 강화의 장기적인 미래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결여한 ‘해결책’인 것이다. 자연과 생명, 역사, 문화, 교육, 건강과 같은 미래적 쟁점을 토대로 한 미래 산업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한시적인 이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관광산업화한다면, 지역민의 삶의 환경일 뿐만 아니라 강화의 가장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인 자연자산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개발 주체가 국가나 기업이 될 이 같은 거대 규모의 개발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개발 계획이 종결된 2020년에 지역민에게 의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감출 수 없다.

「강화종합발전계획」과 「강화군 장기종합 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의 예산 산정 및 비용 마련 계획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우선 전체 투자비용에서 각 부문의 투자비용이 현실적 조건에 합당하게, 그리고 각 부문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화종합발전계획」의 경우 전체 예산 9조 3천 억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인 48.9%가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한 강화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도시 생명 유지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급 처리 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은 3.1%에 불과하고 나머지 45.5%(4조 2천억)은 교통처리시설에 배정되어 있다. 강화에 필요한 다른 어떤 사회 문화적 기반 시설보다도 도로를 확장하고 늘리는 데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정작 문화체육시설 설립에 책정된 금액은 전체의 2.8%(약 2천 600억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체육시설을 빼면 문화예술시설 관련 예산은 186억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 정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단 2.4%, 즉

2천 2백억뿐이다. 그것마저도 현재의 평당 시가를 고려해 볼 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예회관, 복지회관, 전통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음악당 등을 모두 설립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문화재 정비 예산도 보수 및 조사비만 책정되어있을 뿐 유지 관리나 활용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아예 항목으로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불합리한 예산 책정은 「강화군 장기종합 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반복된다. 여전히 경전철 설립이나 도로 확충에 예산의 가장 큰 비용을 할애하고 있으며, 사업별 민영 투자 유치와 국가 지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다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계획 내용에, 합당한 검증 절차나 평가 지표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 대한 방법론(특히 개발 비용과 관련하여)적 고민 없이 민자 유치와 국비, 지방비 등을 비율적 공식으로 책정해 두고 있다. 만약 계획서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유치가 불가능해진다면 해당 사업은 너무도 쉽게 백지화되고 또 다른 급조된 개발 사업으로 대체될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제5장 강화의 문화예술적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제5장 강화의 문화예술적 활성화를 위한 제안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담당자는 비단 지역 행정기관만은 아니다. 이제까지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관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상을 만드는 데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 주도로 발표된 종합발전계획들에 지역의 미래를 내맡길 수는 없다. 강화에는 강화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자랑으로 여기는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있다. 또한 그런 강화를 창작활동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꾸준히 강화로 옮겨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강화의 문화예술자원이지만, 문제는 현재 이들이 강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에 얼마나 참여하는가이다.

강화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자체가 한반도의 역사문화의 보고이다. 따라서 강화의 지역발전계획은 이러한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만큼, 강화의 발전계획은 행정가나 도시건축가와 같은 기능적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내맡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강화의 전통, 근대 문화자원의 가치를 잃어내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안할 문화예술인들의 손길이 더해져야 한다. 현재 강화는 경제적으로 낙후해 있고 지리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어, 지역 주민 사이에도 발전과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다. 그런 만큼 강화는 정치적 논리에 많이 좌우되는 면도 있다. 무엇보다 개발지상주의로 나가 강화가 보유하는 천연적 문화자원을 훼손한다면 강화의 미래는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 그런 만큼, 강화의 지역개발 문제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결코 떨어져서 사고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현지답사와 자료정리 외에, 지역의 시민단체,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강화를 문화

예술적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지역민’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하자

현대화와 도시화의 빠른 속도 속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토착민과 이주민의 경계는 나날이 흐려지고 있다. 출생 지역을 영구 거주 지역으로 택하는 일도 줄었고 그에 따라 애향심이나 정주의식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최했던 워크숍에서 제기된 문제 중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의 갭을 좁히려는 안이 있었다. 강화는 타지역보다 폐쇄성이 강해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이며, 또 강화에 이주해 온 문화예술인들은 강화를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 여기는 애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양자간의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발상을 바꿔 보면, 현재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은 기존의 정의에서는 ‘이주민’이겠지만 5년, 10년 거주하고 있다면 이미 그 지역의 ‘지역민’임에 틀림없다. 거주기간이 꼭 길지 않다 해도, 강화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미래의 고향으로 여긴다면 그 역시 강화의 지역민이다. 따라서 그들 역시 강화의 지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토착민과 동등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강화의 토착 문화유산과 이주 문화예술인은 모두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산이다. 토착민은 이주해온 문화예술인들을 강화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주 문화예술인들은 강화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내부에 안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자의 이해와 협력에 기반할 때, 강화의 문화예술 발전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이다.

● 강화 문화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강화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해, 강화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판에 박힌 문화관광 마인드였다. 강화 곳곳에 무수한 문화관광 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충분히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나마 시행되는 문화관광 산업의 질적 수준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단순한 보수나 정비를 넘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한 복합적인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헤이리 예술인마을의 경우, 계절별, 주제별, 장르별 등등, 지역의 문화행사이기도 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참조가 된다. 이를 위해서 타지역의 벤치마킹, 지역 내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특성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락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안내, 이동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비를 갖추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광안내 책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단순한 교통 안내만이 아니라, 각 문화재나 자원, 장소에 대한 유래와 이야기, 역사적 가치와 의미 등을 풍부히 담도록 신경쓰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자

어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역량을 갖춘 주체가 서야 한다. 특히 그것이 문화예술 분야처럼 창의성이 관건인 분야라면 더더욱 그렇다. 강화의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화의 문화예술 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강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매개할 수 있는 구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강화의 지역문화 발굴 및 개발을 위해 강화문화원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지역문화의 구심 역할을 하기에는 지원이나 제반 상황이 열악하다. 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문화예술인의 32%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더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과정을 통해 집중할 곳을 집중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구

심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강화에서 활동하는 개별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과 문화예술인간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이 강화문화원이든, 혹은 민예총이든 어떤 식으로든, 초보적이거나 서로간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매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홈페이지나 웹진 개설 등, 강화 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 구축에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에, 인천시나 인천문화재단에서도 강화나 옹진처럼, 비교적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배정에서 쿼터제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지원금 배정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옳겠지만, 실제로 학술계나 다른 분야에서도 소수자 학문 분야를 따로 선정하여 별도로 지원영역을 배치하는 예가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나 설비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화나 옹진군에 단기적으로 지원영역 쿼터제를 줌으로써 도서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강화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먼저 강화 지역에 안착하고 힘을 합쳐,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문화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등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합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전문가 집단을 조직하자

강화의 발전, 특히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강화의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자칫 투기와 개발논리로 얼룩져 문화자원의 파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강화의 역사, 문화적 자원과 강화 지역민의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 없이 도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발계획들을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계획들이 정치 논리 속에 단기졸속으로 되풀이되어, 행정 담당자가 바뀌면 언제든 백지화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강화의 발전방안을 관에다 전적으로 내맡길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강화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은 강화가 앞으로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담보로 벌이는 무분별한 개발 지상주의를 견인하고, 강화의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강화의 지역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한다. 이 전문가 집단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관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토착민과 이주민이 적절히 섞임으로써, 강화 지역사회의 화합을 염두에 두는 디테일도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다. 정기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고, 외부의 전문가 초청 강연, 사례조사, 강화역사문화에 대한 공부와 서적 발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하여 강화 유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강화 지역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안착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강화의 대표적 문화축제라 할 수 있는 고인돌축제 기획에 참여한다든가, 기타 강화에서 벌어지는 지역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관에서 할 경우, 전문성도 부족할뿐더러 임기가 끝나면 사업도 사라지고 마는 폐단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 전문가 집단에서 강화의 발전방안, 특히 문화예술자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직하여 지방 및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단결된 목소리가 있다면, 강화의 미래상을 두고 외부에서 혹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장기적·문화적 비전을 가진 개발 마인드가 필요하다

강화의 역사문화·지리적 자원들, 그리고 헤이리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화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껏 남발되어 온 개발 중심의 단기적 계획을 지양해야 한다. 강화에 필요한 것은 강화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도 산업발전과 문화·생태 보존간의 균형을 잃지 않는 개

발계획이다. 강화 지역이 현재,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비롯한 경제발전에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단기적 부동산 수입이나 신도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강화가 가지는 역사·문화 자원, 자연·생태 자원의 가치를 환기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 발전과 결합시키는 균형감이 필요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과 자연 자원을 소진할 수 있는 무리한 관광중심의 테마파크를 만들기보다, 지역민의 삶의 역사와 현장을 문화적, 예술적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창의적인 개발 마인드가 필요하다. 안동 하회마을이 외부에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애초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음식점과 기념품점만 껍데기처럼 덩그마니 남은 사례를, 강화의 미래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한다.

● 지역주민·전문가집단·행정부서간의 삼자 협력을 긴밀히 하자

강화의 장기적 미래상을 정립하고 산업 발전과 문화·생태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과 감수, 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를 행정기관과 전문가집단에만 맡길 수 없다.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단기간 동안 소비되는 개발중심의 계획도시로 복제된 것은, 행정기관이 발주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계획을 천편일률적으로 양산하는 우리의 지역개발 풍토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구나 강화의 지역 주민 중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지 않은가.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강화의 미래상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행정기관과 전문가집단의 조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집단이라는 삼자 주체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즉, 지역민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을 건

제하고, 전문가집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에서 그것이 경제발전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행정기관에서는 계획 실행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와 중앙정부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마련하자

강화를 역사·문화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로 만들자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강화의 새로운 문화생태구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광테마파크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소비’하는 데 그쳐 결국 언젠가 고갈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때, 문화를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재생산의 자원으로 보는 자세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는 비단 자원의 희소성 탓은 아니다. 죽어있는 문화를 관광이라는 형태로 ‘소비’하는 행위는 결국 지역문화를 질식시키기 마련이다.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특성화하자는 본 보고서의 제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다. 강화의 문화예술이 기존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돌처럼 잘 알려진 유명한 역사자원을 잘 활용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인물과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금도 강화에는 수많은 유적과 인물들이 현재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 시간의 무덤 속에 묻혀 있다. 무덤을 열고 새 숨결을 불어넣어, 그들이 현재 속에서 동시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강화로 이주해 온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부각된다. 문화예술인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은, 문화자원을 보는 그들의 특별한 안목에 있다. 강화의 ‘문화예술적 특성화’가 단순히 강화를 이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전람회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유구한 문화자원과 그들의 창조적인 예술작업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시간의 어둠 속에 흐릿해진 강화의

삶의 흔적과 이야기를 복원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관건이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 강화 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상 : 역사와 전통」 강화: 강화 군사편찬위원회, 2003
- 강화 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중 : 문화와 사상」 강화: 강화 군사편찬위원회, 2003
- 강화 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하 : 강화의 미래상」 강화: 강화 군사편찬위원회, 2003
- 이시우, 「민통선 평화기행」 서울 : 창작과 비평사, 2003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역사 1호」 인천: 인천광역시, 2004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역사 2호 - 인천문학의 재조명」 인천: 인천광역시, 2005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산과 하천」 인천: 인천광역시, 2005
- 한국 건축가협회, 「헤이리 건축」 서울 : 기문당, 2006

◎ 기타 자료

- 한국토지공사,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2006
- 한국양명학회, 「강화 양명학파의 위상과 현대적 의미 - 강화 양명학파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04
- 인천 카톨릭 대학교 겨레문화연구소, 「강화도의 사상적 맥락과 정신문화 - 제

4회 학술 연구 발표회」 1998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1~2020)강화종합발전계획」 2001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1~2020)강화종합발전계획 : 요약보고서」 2001

인천문화재단, 「강화의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특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6

문화예술마을 헤이리 자료집

C3 Korea, 2001년 10월호

예술마을 헤이리 2005 겨울 14호

월간 건축세계, 2006년 9월호

인천광역시, 산업별,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2004

헤이리 아트밸리, 헤이리 기본 설명 자료, 2005, 11

헤이리 아트밸리, 판페스티벌 홍보자료, 2006,

문화일보, 2005년 2월 14일

인천=연합뉴스, 2005년 2월 13일

◎ 홈페이지

강화갯벌센터 홈페이지 <http://tidalflat.ganghwa.incheon.kr/>

강화군청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

강화문예회관 <http://www.ganghwaart.com/>

강화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ganghwaro.com/cc/index.htm>

강화역사관홈페이지

<http://www.inpia.net/INPIA2000/T/02EM/kanghwa/index.htm>

강화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anghwado.org/>

심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imeun.org>

헤이리 아트밸리 www.heyri.net



부 록

【 부 록 】

강화의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특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
-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3시~6시 -

사회 : 이현식(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좌장: 최원식(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제

양성욱(한국도시건축병리사무소 소장)

김애영(한국 민예총 강화 지부장)

이상(사단법인 헤이리 사무총장)

패널

김경준 (덕신고등학교 교감, 강화시민연대 운영위원)

임태섭 (강화군청의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기획팀장)

양태부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이시우 (강화민예총 사무국장, 사진가)

손동혁 (인천시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

강화종합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자 : 양성욱(한국도시건축병리연구소장)

● 강화종합발전계획 수립 보고서의 성격

인천광역시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비 4억3천 여 만원에 2001년에 작성된 강화종합발전계획보고서의 구성내용은 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에서는 계획의 범위 및 목적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각 부문별 계획과제의 추진 내용으로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구현과 활력 있는 산업경제기반의 구축, 공간구조의 개편과 도시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주민생활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에서는 계획의 집행과 관리부문을 재정 및 투자계획,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강화종합발전계획의 추진이 있으며, 마지막 부록에 지역지구별 기본계획이 5개 지구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전체의 내용과 범위가 8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다룰 수 없고 본고에서는 요약식으로 각 부문별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본 워크숍의 주제인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특성화방안과 종합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구현 부문

인천시에서 차지하는 강화군의 역사 문화자원의 분포현황은 시 전체의 47.4%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정비문제와 평가 및 조사문제 등은 잘 지적하면서도 그 정비방향에 있어서 잠재되어 있는 문화자원과 기존의 도시와의 발전방향 및 신도시개발과 각 부문별 개발 정비계획과의 관계설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성격적으로도 별개로 설정

되어 있어 역사문화도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 가 없다.

특히, 전체 예산 9조3천억 중 문화재정비에 2.4%(2천2백억)를 들여서 어떻게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문화재정비의 예산에는 지정 문화재 등 보수 및 조사비만 책정되어 있고 문화재의 유지 관리적 측면이나 활용적 측면에서의 예산이나 계획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은 입지선정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내용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7600억이나 책정계획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강화에는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이 하나도 계획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고려역사문화촌 건설이 311억의 예산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도대체 중소백화점이나 이마트 하나 정도 밖에 세우지 못할 예산으로 어떻게 테마파크를 만들 것인가?

문화관광지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의 상가 등에 대한 영업권 및 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제외하고 일괄적 계획만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예산 및 계획내용의 실현성이 의문시된다. 역사문화 관광도시는 기존의 마을 및 도시 속에서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창출하여 관광에까지 연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정비 따로 하고 문화관광지 개발 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역사문화도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 특히 각각의 문화, 생태관광지 개발에 속해 있거나 인근하여 있는 기존의 마을과의 관계설정이 없고 그냥 동떨어져서 단독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본 보고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무모한 계획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 및 평가 지표가 없고 운영에 대한 방법론 없이 민자 유치 얼마, 국비, 지방비 얼마 등의 비율적 공식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세금은 어떻게 환수 할 것인가? 이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곳을 찾아봐도 검토된 내용이 없다.

● 활력 있는 산업경제기반의 구축부문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농가율(47.1%)과 경지율(41.8%)이 상당히 높다고 본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천혜의 바다와 갯벌, 산과 들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섬으로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은 강화군의 미래적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반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자연을 토대로 한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기계화, 관광농원화, 가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지원 등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 개념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유기농축산물가공 및 생산을 위한 순환형 농촌 만들기는 향후 농촌의 생존을 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철학이요 과학이요 비전이다. 이를 위한 물 관리, 토양 관리, 종자 관리를 비롯하여 가공 및 생명 순환에 대한 연구, 특화만이 강화가 살 수 있을 것이요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농업이 희망인데 콘크리트로 만드는 어항정비나 농노길 정비, 경지정리의 대규모화, 나무 많이 심고 버섯 재배사 짓고, 온실 짓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농축산업의 미래 20년 계획 보고서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글퍼진다. 그만큼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에 대한 철학과 지식이 없는,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도 없어 미래적으로는 농어촌인구가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인구계획을 세워 국적불명의 신도시가 들어와야 한다며 멀쩡한 논과 밭 그리고 산을 구획정리하여 바꾸어 버린다.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의 머리에는 산업경제는 덩치가 크고 집적되어야 좋다는 공식이 항상 정의롭게 존재하므로,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가내수공업, 소농 등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며 커다란 쇼핑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및 대규모 가공공장을 띄하니 계획안에 그려 놓는다. 과연 이레가지고 2020년에 활력 있는 농어촌이 건설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진다.

●공간구조의 개편과 지역정비부문

몇 천 년의 역사문화자연의 섬 강화도에 실패한 문제덩어리 신도시개발의 칼을 들이댈 수 있는가?

본 계획서에서 제시된 공간구조의 개편 및 지역정비의 주된 논리는 기존의 도시는 노후화 되었고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넓어져야 하고, 인구가 공동화되고 고령화되어도 계획적으로는 2020년에는 13만 명을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용지가 부족하니까 논과 밭을, 산을 녹색지

대에서 회색지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지역이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든 해안순환도로가 산성이나 외성자리이든 말든 13만 명의 계획인구와 외부 손님을 받으려면 여차 없이 어느 정도 뭉개버려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강화를 보러 오는 관광객은 김포나 일산 분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회색도시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지는 산성, 전원적인 풍경, 녹색지대를 보러오는 것 인줄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원래 강화는 자족적인 생태도시였다. 고려 몽고항쟁 때 39년이나 버티며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역사문화의 자연생태도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인구를 늘려서 물도 모자라고 전기도 모자라고 석유도 모자라니 다리도 놓아야 하고, 전력선도 놓아야 하고, 물도 팔당수원에서 관로 매설해서 깔아야 된단다. 기존의 자연자원을 활용할 철학은 보고서 어디를 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39년 동안 수도를 옮겨서 지역주민들과 자족적으로 버틴 도시구조, 몇 백 년 몇 천년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도로나 숲길, 우리의 전통가옥유형이 살아날 틈을 주지 않고 그냥 싹쓸이 식으로 어느 땅은 빨강계 칠해서 상업지역이고 노랗게 칠하면 중 저 밀도 연립 주택지란다. 산이 보이게 하고 바다가 보이게 하면 경관계획이란다.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 실버타운이나 복지시설이 들어와야 하고, 이렇게 대단위 베드타운인 비자족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므로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토지몰수 하여 토개공이나 주공에게 땅장사와 집장사를 해야 한단다. 그 개발이익으로 무엇을 어떻게 2020년에 지역주민에게 이익으로 복지로 건강하게 돌려줄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그냥 우리가 그려놓은 대로 하면 도시화가 멋지게 이루어져 활력이 있는 도시로 된단다. 과연 그럴까? 토개공과 주공이 그리고 본 보고서를 만든 국토연이나 엔지니어들이 만든 신도시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의 신도시들은 모두 산과 들, 농토, 바다를 없애고 단기간 내에 만든 비자족적 도시들이다. 당시의 농민들과 원주민들은 땅 팔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도시들은 환경적으로 교통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문제덩어리로 전략하고 말았다. 쓰레기문제, 대기오염, 수질오염문제, 에너지문제 땅값, 집값문제 등 수도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천혜의 섬 강화를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며 개발논리를

들이댄다. 이들의 개발논리의 저면에는 지역토착민의 자생력과 미래적 삶에 대한 고민 따윈 없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 자연과 생명, 역사, 문화, 교육, 건강 산업에 있음에도 이를 토대로 한 도시계획 따윈 안중에 없다. 이들이 그린 조감도와 계획 내용 어디를 살펴보아도 인구 13만 명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문제는 쓰레기처리장과 소각장 지으면 되고 전기는 발전소 만들어서 끌어오면 되지, 몇 천 년의 역사문화가 어떻게 신도시와 연계되어 성장원동력으로 관광문화도시가 될 것인지, 수도권의 그리고 신도시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위한 농어업, 축산업을 강화의 도시 속에 어떻게 연계시키면서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 훼손되지 않은 목가적 풍경이나 자연을 보러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도시 개발한답시고 자연파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냥 논과 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땅값도 오르고 새로 건물들도 생기고 좋으니까, 도로 넓히면 차가 잘 달리고 정도의 수준이다. 정말로 도로 넓히면 강화내의 도로가 썩썩 잘 달리나? 대답은 아니다. 모든 신도시들을 보아라.

강화종합발전계획에는 문화예술지역의 특성화를 고려하고 있는가?

20년간 전체 투자비가 약9조3천억 중 문화공간조성비 186억 (전체의 0.2%)으로 역사문화도시가 만들어지는가?

총800여 쪽의 분량 중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고작 3쪽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한심함은 더해만 간다. 강화군의 문화시설이 1998년도 당시 “도서관 1개소, 공연장 1개소, 미술관 1개소, 문예회관1개소, 복지회관 6개소, 문화원1개소 등에 불과하며, 박물관이나 청소년회관, 국악원, 전수회관 등은 없다.” “즉, 강화군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빈약한데 이것은 강화군의 전통문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문화공간의 부족함을 지적해 놓고 20년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복지회관을 6개면에 설치하고 문예회관을 발전시키며, 전통문화예술회관을 연면적 1200평으로 한단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위해 읍면별로 500평짜리 청소년회관을 확충한다고 한다.

부녀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읍면에 건물300평 규모의 여성회관을,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을 활용하여 야외전시장, 조각공원, 야외음악당 등을 설치하여 기존 문화 공간 기능을 보완하고 이곳에 적극적인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한다고 한다.

이렇게 미사여구로 정리해 놓고 갑자기 투자계획에서는 개발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9조3천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의 2.8%인 약 2천600억이 들어가고 이중에서 체육시설을 빼면 186억이 들어가면 된단다. 전체투자개발비의 0.2%이다. 더욱이 부녀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건축단가가 평당 1백 만원이다. 청소년회관은 평당60만원. 이쯤 되면 이 보고서의 신뢰도가 알만하지 않은가? 20년 후의 강화군 종합발전계획 속에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내 노라 하는 도서관이나 공연집회공간은 없고, 달랑 도서 분관만 3개소, 박물관을 증설하는데 5억, 역사문화의 도시라는 개념 하에 4억3천 여 만원을 들여서 만든 종합보고서가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가? 만약 지금 이러한 건물을 제대로 짓는다고 해도 평당 건축비는 500백만 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데 무슨 가설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비용이 산정되었는지, 9조이상의 투자비 중에 고작 0.2%의 문화공간 가지고 무슨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다.

● 투자계획부문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향후 20년간 강화군에 투자되어야 할 총사업비책정이 9조 3천 억 원에 이르는데 이중에 사회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의 48.9%다. 비율만 보면 그럴싸한데 그 내용을 보면, 생명유지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처리 시설이 3.1%에 불과하고 교통처리시설에 45.5%(4조2천억)가 들어간단다. 이중에서 도로 까는데 2조5천억이 들고, 경전철 44km 까는데 1조7천억 들어간다. 그것도 지방비로 책정해 놓았다. 아마 민간자본유치는 타당성이 안 맞아서 생각을 못한 모양이다. 그리고 2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로 전체 투자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도로 까는데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도로 깔면 강화의 소득수준과 생산성이 높아진단다. 민간회사 같으면 이러한 예산

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터무니 없는 투자계획을 만들겠는가?

● 문화예술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공간설계

- 제대로 된 건물 하나만 있어도 년 간 100만 명 온다

미국의 프랭크 게리라는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은 1000억을 들여 지었는데, 이 건물과 내용을 보러 관람객이 년 간 100만 명 이상이 온다. 2001년 3월 영국 콘월에 소재하는 거대 규모의 환경 테마파크인 에덴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각종 기부금과 후원금 등을 모아 약 2000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 년 간 125만 명 이상이 들어오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소득 향상이 1조에 가깝다고 한다. 이렇듯이 1개의 프로젝트라도 어떻게 훌륭하게 설계하여 기획하고 잘 만드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10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상관광객유치수가 600백 만 명이라? 이런 계획에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고 싶은가? 즉,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강화군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환경과 자연여건, 역사문화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꿈과 비전을 프로답게 디자인하지 못하는 국내의 엔지니어나 빈약한 국책연구기관에 미래를 그려달라고 맡기기 때문이다.

강화종합발전계획은 국토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 맡겨서 작성되었다. 이들은 1년에 전국에 있는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지자체 또는 국가의 모든 내용들을 연구하고 보고서로 만들어 내는데 그야말로 그 양이 연구원 1인당 기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양으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전문성이 결여되어 콘소시엄으로 협력기관에게 위탁하게 되는데 이름 하여 엔지니어 회사들이나 대학의 연구소라는 곳들이다. 과연 이들이 각 지방의 미래 20년을 제대로 내다보고 디자인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책연구원이나 엔지니어 및 대학연구소에서 나온 개발 계획 하에 제대로 추진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하질 말아야 하고 시키지도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다. 국책연구소라고는 만들어 놓아서 평가는 받아야 되고 예산도 따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일들을 능력도 안 되는 데 부풀려서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엔지니어 회사들은 전국 각지의 개발계획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능적 인력을 대거 포진시키고 전국 단위로 입찰시장에 뛰어 들어 최저가 낙찰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종합 개발계획을 만들어 내는데 그 내용이 오죽하겠는가? 과연 그 속에 진실성과 꿈과 희망이 존재하고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따를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앞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 내용의 부실성은 둘째치고서라도 다른 지자체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어찌 비슷한 것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 **4억 3천만 원짜리의 거짓된 보고서에 투자할 여력으로 문화예술인에게 투자해라!**

이상 간단하게 각 부문별로 강화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부문별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여건상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오는 그 이면에는 국민의 세금낭비와 국력낭비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강화의 20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소수의 무능력한 공무원과 엔지니어 그리고 박봉에 연구다운 연구를 못 만들어내고 전국적으로 개성과 특색이 없는 비슷한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현실 속에서 본 보고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필자를 너무도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빠트리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다시는 강화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무 작위적으로 도시건설 및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명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우리 강화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 키우는데 힘써야 한다. 강화의 자연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강화의 미래를 담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강화를 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적 청사진을 그려 달라는데 가장 싼값으로 결정되는 최저가의 입찰방식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꿈도 희망도 전문적인 철학과 비전도 없는 이들에게 맡겨서야 제대로 그려질 수 있겠는가?

자연과 순환하며 생명을 건강하고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서, 이

것을 즐기며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자연환경이 되어야 진정한 문화예술지역이지 않겠는가? 인천시여 강화군이여! 4억3천만 원의 거짓된 보고서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문화예술인을 키우는데 쓰는 것이 어떠한가? 백만 명, 천만 명 이상을 데리고 올 디자이너, 예술인을 키우는데 쓴다면 강화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 문화예술지역으로 특화되기 위한 상큼한 전략

강화에는 지정문화재가 다 텅 비어 있다. 이러한 문화재에 예술인이 살고 머물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문화재도 살고 예산도 적게 들고 일석이조다. 예를 들어 삼량성 안에 있는 정족사고에 왕조실록 하나 없이 텅그러니 비워둘 것이 아니라 조선 관련된 문학인들이 공부하고 시를 쓰고 창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한가? 이견창생가에는 양명학을 주제로 소설, 시, 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든지, 강화에 존재하는 수많은 보나 진에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역사 문화, 자연 등을 주제로 하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가설무대나 장치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설치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개방 한다면, 재즈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굿도 하고 얼마나 신나겠는가? 고대문명에서 근현대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재된 문화재관리의 형식 따위로 현재의 예술인의 상상력과 미래적 삶을 엮매는 짓은 그만 두고, 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를 신명나게 창작하고 발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를 재활용하자!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각계에 구한다면 돈 얼마 안들이고도 당장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는가?

강화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자 : 김애영(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화지부장)

I.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1. 지역문화예술정책의 현황

1) 문화예술정책의 현황

21세기에 있어서 문화예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이 모든 분야 발전의 뿌리가 되며, 문화 그 자체가 산업으로서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정책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사회에서 뿐 아니라 문화예술은 개인들의 삶에서도 중심적인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과 삶 그 자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 문화예술정책의 추진 방향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는 모든 사람이 질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하므로 중앙과 대도시의 문화 독점 현상을 탈피하고 지방화 전략을 지향하는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문화 민주화’ 정책들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또한 문화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들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를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문화예술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과 지방, 지역 간의 문화적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게 남아 있고, 열악한 지역문화 재원과 문화 인력과 역량의 부족 등, 지역문화 발전의 저해요소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

2. 문화예술정책이란 무엇인가?

1) 문화예술정책의 개념과 목표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등등 존재에 대한 질문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답이다.

문화예술정책 역시 위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무엇이 가장 우리다운 것이며, 미적인 가치를 갖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인가?

이러한 가치들은 바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미래의 나아갈 바들을 관통하면서 정립될 것이다.

문화는 단순히 현실을 모사하거나 과거 문화유산의 습득이 아니라 인식주체로서의 사람이 자신의 경험세계에서 인지적 감성적 활동을 하면서 구성하는 ‘나름의 현실’이다. 그래서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적합하게 구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성하는 문화는 사회공동체에서 유용하고 타인과 공유하고 인정되는 집단적인 것이

다. 즉,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문화예술정책은 그것의 계획과 실천으로서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 문화적인 삶을 목표로 한다.

2)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목표

지역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단순 재생산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고 재구성한 계획과 실천과정이다. 재구성의 근거들은 바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회적인 미적 가치에 있다. 또 그것은 지역의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삶을 위해 존재한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그 결과들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의 의미는 ‘향토’의 의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향토성은 애향심으로 발전할 것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 확대되면 정치적으로 지역패권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현대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존재해 왔으며 대부분 냉전질서와 기득권의 뿌리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패권주의나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이 지역문화의 정체성으로 작용할 때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목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II. 강화의 문화 예술

1. 강화지역의 특성

강화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인후지지(咽喉之地)에 위치하여 한국사의 영고성쇠가 그대로 반영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재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고고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야외 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⁶³⁾

지난 2000년 강화의 고인돌은 고창, 화순 고인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고인돌은 우리의 고대문화를 밝히는 유력한 증거이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강력한 뇌관을 지닌 유산이다.’⁶⁴⁾

또 보존상태가 가장 우수하며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인 강화갯벌,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그야말로 민족의 전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다양하고 중요한 유적지들, 남북의 접경지역이며, 그래서 오히려 평화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한강하구라는 지정학적 위치 등등 이미 강화의 특성들은 단순히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자원들을 내포하고 있다.

강화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은 세계적인 것이며 이러한 자연조건 속에서 생명 평화와 상생의 이념이 짝 튼 곳이다.⁶⁵⁾ 그것은 침탈과 저항의 역사 속에서 점철되었고 근현대사의 굴곡과 상처 속에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2. 강화의 지역자원의 활용 현황 -고인돌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자원들은 대부분 관광과 연계되어 있다. 지역발전에서 경제가 우선시 되고 문화가 상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서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면 나름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애정을 전제로 한다.

「강화발전계획에서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과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역사성과 고유성 → 호국의 한민족 성지화

63) 「강화종합발전계획」, 인천광역시, 2001.

64) 「세계최고의 우리문화유산」, 이종호, 컬처라인, 2001.

65) 조봉암의 평화통일사상은 앞으로 강화의 이념적 지표로서 연구해야 한다.

- 역사유적과 자연자원 → 다목적 복합 관광지화
- 쾌적한 인간 정주환경 → 전국적 차원의 「시범환경도시화」

우수한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강화를 관광지화 하려는 계획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문화 콘텐츠로 창조되어야 하며, 문화콘텐츠는 단순한 상품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적 해석과 관점에 의한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강화에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고인돌에 대해서만 살피고자 한다. 고인돌은 인류문화 초기의 과학,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 천문도는 당대의 가장 중요한 과학의 하나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별자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성과 그 문화의 기원을 밝혀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⁶⁶⁾

고인돌이라는 거대한 문화자원이 강화지역 당대의 문화로서, 나아가 미래의 문화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한다. 현재 강화에서 고인돌과 관련된 문화행사로 대표적인 것이 고인돌축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고인돌축제를 중심으로 얘기해보겠다.⁶⁷⁾

고인돌축제는 2005년까지 총 8회 열린 강화지역축제이다. 축제의 기획 의도는 “역사문화축제”인데, 테마를 선사시대, 원시시대 체험으로 잡았다. 어차피 고인돌은 유인 요소였고, 와서 석기를 만들고, 토기를 제작하기도 하면서 그 시절을 체험하는 교육용 축제로 구상했다.”⁶⁸⁾고 한다. 축제의 교육적 기능이 부각되고, 또 오락적 기능과 합쳐진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가치를 구사하는 것은 최근 축제의 흐름이다. 그래서 고인돌축제도 그런 흐름에 따라 기획된 것 같다. 2005년도 방문객의 연령별 분석에서도 30대 가족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4년에 비해 30대는 36.4%로서 전년대비 32.8%에 비하여 약간 증가했다.⁶⁹⁾

66)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박창범, 김영사, 2003, 105쪽

67) 고인돌축제의 전체적인 소개나 평가를 하지는 않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68) 오마이뉴스(2004년 5월)인터뷰내용,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알미디어, 2006에서 재인용

69) 「2005강화고인돌문화축제 평가보고서」,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추진위원회, 2005, 20쪽

이 30대 가족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고인돌축제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의도가 무색할 만큼 실제 실행된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매우 적다. 전체 29개 개별 프로그램 대부분은 고인돌과 직접, 간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며 또한 다른 지역축제와도 차별성이 없는 정형화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29개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순위	프로그램 명	주제성	재미성	체험성	운영성	총평
1	고인돌아카데미	6.0	5.3	5.8	5.1	5.6
2	고인돌축조재현	6.0	5.0	5.0	5.0	5.3
3	고인돌탐방	6.4	4.6	4.7	5.1	5.2
4	토기만들기	4.7	5.0	5.7	5.0	5.1
5	강돌이 캐릭터 그리기	4.7	4.1	5.2	4.7	4.7
6	전통무예18기	4.0	4.8	4.0	5.3	4.5
7	농특산물 큰잔치	4.7	4.3	4.3	4.6	4.5
8	마니산 개천대제	6.0	6.0	3.0	2.3	4.3
9	전국순무요리대회	5.3	4.2	3.8	4.0	4.3
10	폐막식	5.5	5.0	3.7	3.0	4.3
11	고인돌노래타래(예선)	3.3	4.1	4.7	4.4	4.1
12	고인돌장학퀴즈	4.5	3.4	4.2	4.4	4.1
13	영페스티벌	2.7	4.3	4.7	4.7	4.1
14	북한문화공연	3.0	4.5	3.6	5.2	4.1
15	I-FM 출동노래방	3.0	3.7	5.0	4.4	4.0
16	불꽃놀이	3.5	4.5	4.0	4.0	4.0
17	굿한마당	4.0	4.0	4.0	4.0	4.0
18	완초공예체험전	3.0	3.0	4.3	4.4	3.8
19	전통다도시연	3.9	3.3	4.2	3.7	3.8
20	I-FM 개막축하방송	2.3	4.0	5.0	3.7	3.8
21	강화문화퍼레이드	3.9	3.3	3.8	4.0	3.8
22	개막축하공연	3.7	3.9	2.9	4.3	3.7
23	강화영상회사진전	4.6	3.1	3.5	3.3	3.6
24	전통다도에절경연대회	3.2	3.2	4.1	3.8	3.6
25	고인돌야생원	3.6	3.6	3.3	3.4	3.5
26	아이러브강화	2.5	3.5	3.0	4.5	3.4
27	가훈씨주기	2.8	2.9	4.0	3.7	3.4
28	개막회	4.0	3.0	2.0	3.7	3.2
29	완초공예경진대회	3.0	2.0	3.5	2.3	2.7
	합계	4.1	4.0	4.1	4.1	4.1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 조차 고인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프로그램이 아동 위주여서 청소년과 청장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⁷¹⁾

고인돌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축제에서 정작 고인돌은 한낱 사람들을 유인하는 요소일 뿐이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듯 기획의도와 실제 내용이 다르며 정체성이 모호한 축제는 축제 개최의 당위성이 약해 보인다. 이것은 고인돌 자체를 문화콘텐츠화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역이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문화콘텐츠로 창조하지 못하면 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지역축제를 구성하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축제 콘텐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축제 콘텐츠의 문화원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문화원형 연구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원천소스를 수집하여 재해석하여 다양한 리소스들을 도출하는 것이다.⁷²⁾

고인돌은 인류문화 자산이며,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원천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인돌축제는 고인돌의 특성을 살린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지역축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인돌이 품고 있는 미적 가치를 시대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이 필요하다.

3. 강화문화예술의 문제점

강화에는 다른 농촌지역과는 달리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다. 서울과 거리가 가깝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창작의 산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시각매체분야의 작업실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⁷³⁾ 이미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형성된 예술창작의 산실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또 자연스럽게 지역문화역량으로 흡수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지

71) 전계서, 84쪽

읍집체협에 있었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은 6500만년전 살았던 것이며 인간과 공존한 적이 없다 고인돌은 그러한 원시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신석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인류문명시기의 문화의 산물이다. 이처럼 고인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재미와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오류이다.

72)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올미디어, 2006, 73쪽

73) 예를 들면, 양사면 북성리 폐교된 북성초등학교에 있는 집단 작업실

원과 배려, 그리고 함께 실천할 정책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문화의 소비계층에서 벗어 문화생산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주체역량이 형성될 때 과거의 문화유산들이 현재의 문화로 창조될 수 있다. 최근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주체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법과 제도가 갖춰지고 있다.⁷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도입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화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를 통한 자기 발견과 표현, 상상하고 즐기기이며 기존의 문화강좌와 차별성을 갖는다. 도시에서 유행하는 기능강습 위주의 강좌를 그대로 이식한 문화강좌들과 다르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를 통해 나와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이런 과정을 문화주체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주체역량들은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발되고 발전한다. 생활근거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생활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60년대 산업화이후 해체된 농촌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강화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농촌공동체문화 역시 사라진지 오래이며, 사라진 공동체문화가 저절로 부활하지는 않는다. 자발성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관이 주도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다. 자발성과 잠재력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획들이 의도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어 오히려 중앙집권시대보다 퇴행하는 경우도 있다. 강화문화의 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화의 집은 국민의 정부 때 문화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공간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의 사랑방 같은 곳으로 설정된 곳이다. 그러나 강화문화의 집은 강화문예회관 시설의 일부로 문예회관의 보조시설로 전락해 있다.⁷⁵⁾ 이것은 지역문화행정기관의 문화인식부족과 문화주체 역량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4) 2007년부터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지역문화예술진흥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75) 강화군 자치법규 제 3편 문화관광 제3조(문예회관 시설의 사용범위) ①문예회관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의 집, 공연장,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세계적인 강화의 문화유산들은 군 홍보의 수단이거나, 관광객 유인 요소 정도로 밖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문화 콘텐츠화 작업 또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 시일 내에 개선될 문제들은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부재이다. 문화예술정책은 단순한 문화행사나 문화기획이 아니다.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이념적 좌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며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세부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Ⅲ. 전략과 실천에 대한 제안

1. 강화문화예술정책 전략

1) 강화의 특성

강화는 지형요소로 볼 때 고립된 섬이지만 예로부터 한강과 서해를 연결해 주는 접경지대로서 역사의 정점에 있었다. 고인돌이 만들어지던 시대를 제외하고⁷⁶⁾ 강화의 역사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가 충돌한 곳이었다. 고려 때 몽고침략과 항전, 조선 말 제국주의 침탈과 병인, 신미양요, 그리고 한국전쟁의 역사가 그것이다.

또한 한반도 문화와 문물교류의 거점이기도 하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합수되는 한강하구의 특성상 강화를 중심으로 한 뱃길은 바로 한반도 문화와 문물의 뱃길이기도 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이후 갇혀버리고, 우리의 머리에서 죽어있는 곳이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무장지대도 아니며, 비무장지대도 아닌 그야말로 남북이 공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는 곳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에 냉전의 사슬이 굳게 채워져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강화 복단에 처진 철책선과 민통선이

76) 고인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아직도 그 시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고인돌은 신석기부터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인류문화의 시기의 인류공동체 정치,경제,문화의 총 집대성이라는 것이다.

라는 냉전체제의 산물 역시 근거 없이 그 위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강하구와 강화에 현존하고 있는 전쟁의 유산들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서 삶의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미, 일, 중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족 당사자의 문제로서 남북이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 강화문화예술정책의 전략 - 평화문화지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은 과거 냉전시대의 통일안보의 논리⁷⁷⁾를 대체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일 뿐 아니라 전체 강화 역사문화권 개발의 이념적 좌표이기도 하다. 한강하구를 중심에 위치한 강화를 평화지대로 하며, 문화예술의 측면에서는 평화문화지대로 하는 것은 강화문화예술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되겠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정치역학관계가 얽혀있는 곳에서 진정성과 유연함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평화를 기원하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삶의 표현들, 그리고 전문예술가들에 의해 표현되는 평화예술들, 이러한 평화문화예술의 내용들을 계획적으로 담아내는 한강하구 평화 공간들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강하구 평화문화지대를 채워가는 것이 강화문화예술정책의 전략과제이다.

2. 몇 가지 실천 계획들

□ 한강하구 평화문화제

한강하구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가 이미 2번 진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교동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모색하면서 한강하구 평화문화제로 발전해 간다.

77)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의하면 <강화의 역사문화권 개발>로서 접경지역을 통일안보 및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을축제를 통한 공동체문화 건설

관 주도의 군민의 날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마을축제들이 살아나야 한다. 과시나 홍보용이 아니라 규모가 작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잔치들을 통해 마을의 단합과 새로운 공동체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안들을 마련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창조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은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고인돌의 경우도 민간단체인 고인돌사랑회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들이 반영되고 있다. 고인돌공원사업으로 원래 고인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세밀하게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사업도 계속되고 있는 줄 안다. 그런데 발굴과 보존에 비해 그것의 활용과 재창조 사업은 전무하다. 유적지 탐방이나 단순히 둘러보고 가는 관광지 정도이다. 앞으로 교육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름이 알려진 문화유적지만이 문화유산은 아니다. 강화에는 근, 현대사를 보여주는 생활유적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강화읍 남문에서 서문까지 옛길과 골목들을 원형을 살리면서도 새롭게 디자인하고 역사적 재해석을 하여 훌륭한 역사문화의 길을 만들어 낸다.

□ 갯벌문화를 위한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강화갯벌의 생태적인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생태보존이 일차적인 과제이지만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은 그것을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자연과 상생하는 생명평화의 가치관으로 바뀌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수행하는 갯벌음악회, 갯벌 생명문화 교육프로그램, 갯벌예술제들 다양한 교육·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한다.

□ 간척지 역사문화제(?)

강화의 간척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매우 오래된 것이다. 강화땅의 역사는 바로 간척으로 이뤄졌다. 현재는 생명농업을 지향하는 유기농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승천포 일대는 민통선 지역으로 철책선이

세워져 있다. 강화 땅과 인간의 역사에는 수탈과 침략과 학살과 생명과 평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마디로 아픔의 역사이며 이런 아픔들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예술마을 헤이리를 말한다

발표자 : 李相(헤이리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21세기 화두의 하나는 문화예술이다. 그 같은 흐름은 문화예술을 창작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전통적인 관계망을 벗어나 하드웨어로서의 새로운 예술 공간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도시가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기획에 의해 새로운 예술도시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은 빌바오나 구마모토 같은 큰 도시뿐 아니라 북경 교외의 파산찌 지구, 일본 의 나오시마 등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 파주 통일동산에 자리한 예술마을 헤이리는 국내의 대표적 사례가 되겠다.

헤이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군사분계선 아래의 변방에 자리하고 있다. 300여 동의 건물에 1천여 명 이내가 거주하게 될 아주 작은 마을(도시)이다. 아직 전체 규모의 30퍼센트 남짓한 공간이 문을 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도시, 건축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많은 사람들이 헤이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예술마을 헤이리의 꿈

“우리는 서화촌(헤이리의 초기이름)을 한국의 명소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가장 유니크한 문화 예술촌으로 만들고자 한다. 서화촌은 우리 혼이 깃든 전통문화유산과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이 경연하고 한데 녹아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내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내용과 질을 갖춘 페스티벌을 비롯해 연중 다양한 문화이벤트가 끊이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외국의 저명한 문화도시와의 교류 및 결연도 추

진될 것이다. 멤버들의 문화의식은 물론이고 그 문화의식을 빛나게 하기 위해 여기에 들어설 건물들도 국내 최고의 건축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건축전시장이 되게 할 것이다.”

-〈서화촌 소식〉 98. 2(헤이리 공식 간행물 제1호)

3. 헤이리의 개요

1) 조성대상부지

- (1) 위치 :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 내
- (2) 면적 : 15만3천평
- (3) 부지특징
 -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한 택지지구
 - 나. 원형지 공급
 - 다. 적용법률 : 지역균형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2) 건설주체 : 헤이리아트밸리건설위원회(현재는 사단법인 헤이리)

- (1) 회원 : 370여명
- (2) 회원 자격
 - 가.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 나. 미술관, 박물관, 음악홀, 연극관, 갤러리, 서점 등 문화예술시설 건립 운영 희망자

3) 조성경과

- (1) 최초 발의 : 1997년 3월(18명)
- (2) 헤이리아트밸리건설위원회 결성 : 1998년 2월(58명)
- (3) 1차부지 매입(3만평) : 1998년 7월
- (4) 부지 변경(현부지) : 1999년 12월
- (5) 실시계획 승인 획득 : 2000년 2월
- (6) 토목공사 착공 : 2001년 3월
- (7) 건축 : 2002년 6월 ~
- (8) 입주시작 : 2003년 6월(최초의 준공건물 : 커뮤니티하우스)

4) 건축 진행현황

- (1) 준공 : 103동
- (2) 공사중 : 31
- (3) 건축허가 : 47
- (4) 설계중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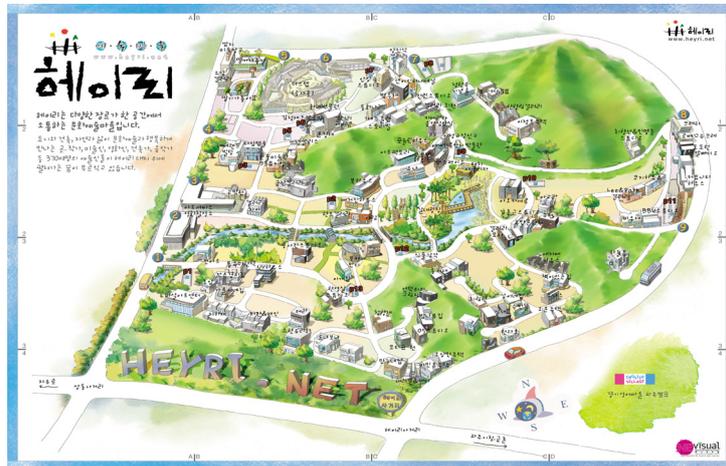
5) 주요 준공건축물

- (1) 박물관 : 세계민속악기박물관, 규삼뮤지엄(인물미술관), 정치박물관 아고라, 타임캡슐(근대사자료박물관), 씨네팰리스(영화자료전시관) 외
- (2) 갤러리 : 금산갤러리, 아트팩토리, 한향림갤러리, 터치 아트, 갤러리 MOA 등 20여 곳
- (3) 서점 : 북하우스, 동화나라, 반디, 매거진하우스 외
- (4) 작가 스튜디오 : 50여 동
 - 가. 미술 : 최만린, 배병우, 백순실 외
 - 나. 영화감독 : 박찬욱, 김기덕, 강제규 외
 - 다. 음악 : 서현석, 윤도현, 조영욱 외
 - 라. 작가 : 윤후명, 이종욱 외
- (5) 기타 : 아트서비스 영화촬영소, 카메라타 음악감상실, 쌤지미술창고, 이구동성(연극관), 정한숙기념홀 등

4. 헤이리 조성의 특징

1) (미래의) 주민들에 의한 마을 만들기

일본의 경우 ‘무라 쓰꾸리’라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특색 있고 활기찬 공간으로 개조해가는 운동이 시행되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헤이리처럼 민간 차원에서 그것도 미래의 주민들이 스스로 회원을 모으고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마을(도시)만들기를 시도한 예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그만큼 헤이리는 주민들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를 만들어간 드문 사례로서 평가될 수 있다.



1997년 3월부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일군의 주체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마을 건설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1998년 10월부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회원 친교모임을 매월 정례적으로 가졌다. 이렇게 모여 장르를 뛰어넘는 대화를 나누고 헤이리의 성격을 가다듬어갈 수 있었다.

헤이리 건설에 관한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가기 위해 1999년 6월부터는 ‘헤이리초대석’이라는 이름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헤이리초대석을 통해 예술행정가, 생태건축 전문가, 도시환경디자이너, 조경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헤이리 건설에 지혜를 보태 주었다.

또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헤이리 건설에 도움을 얻기 위해 국내외 문화탐방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해외 답사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유니크한 문화예술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 위주로 짜여졌다.

1998년 7월 한국토지공사와 통일 동산내 서화촌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일동산이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함에도 우리가 선택한 부지는 원형지 상태로 공급되어 부지 전체에 대한 상세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야 했다.

이것은 경험이 전혀 없는 헤이리 주체들에게 난제임에 틀림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했다. 많은 논의와 연구 및 절차를 거쳐 그해 8월 도시계획전문가 김홍규 교수를 단지설계자로 선임하였다. 마스터 플래너 선정과 함께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회원들의 정확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회원 전체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헤이리 이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회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건설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 김교수 측과 6,7차례에 걸친 검증과 크리틱의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설계안을 건축계와 문화계 인사들에게 선보이고 비평받는 모임을 최종적으로 가진 후에 단지설계안을 확정지었다.

단지설계안이 확정되자 필지배정규정을 만들어 회원들의 필지를 확정하였다. 그런데 회원구성이 거의 종료에 이른 시점에서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헤이리 땅 이웃의 경모공원에서 헤이리 땅을 굽어보는 부지 전체로 묘역확장을 시도한 것이다. 이 사건은 헤이리부지의 현조건과 미래의 모습을 냉정하게 헤아려보게 해주었다.

묘지가 문제가 아니라 헤이리 땅의 3분의 2 이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유지가 헤이리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쳐올 것인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토론을 거쳐 부지를 옮기기로 결단하였다. 부지를 변경하는 데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대상 부지로 등장한 땅의 자연환경이 대부분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점이였다.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헤이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이전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헤이리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경쟁력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자연스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소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헤이리의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가기로 하였다. 헤이리 건설은 문화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실험이 되어야 하며, 그런 반면 이 같은 기회를 다시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

부지를 옮김으로써 꿈을 실현하는 일도 그만큼 지체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학습효과에 의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 측면도 있었다. 개념적으로 ‘마을’에서 ‘도시’로의 인식의 전환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생태적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새 부지에 대한 단지 기본계획에서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은 디자인 코미티 제도를 운영한 점이였다. 마스터플랜 위에 놓이는 건축물들에 의해 경관이 완성된다는 점과 헤이리 회원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홍규 교수 외에 건축, 조경 분야의 전문가 4명과 헤이리 회원 대표가 3,4개월에 걸쳐 격주로 모임을 갖고 땅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다양한 주제를 함께 토론하였다. 마침내 15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최종발표회를 갖고 단지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헤이리 조성의 모든 과정에 회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19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월례 세미나와 분과별 토론 등을 합쳐 1천여회의 회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 중심의 해체

헤이리 마스터플랜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비판은 전통적 방식인 기능별 조닝 구분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 논자는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선급한 작업은, 프로그램들(거주, 상업, 문화, 공공시설, 생활 기반 시설 등)을 합치거나 나눔(혹은 모으거나 홀프림)으로써 밀도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자연환경에 대응할 다양한(때로는 입체적으로 때로는 선형적으로 때로는 점의 형상으로) 방법을 숙고하는 것이다.”(이종진, <건축 문화> 2002.12)

헤이리 회원들은 위와 같은 기능별 조닝 구분이 도시계획에서의 통상적인 것이기는 하되, 오랜 논의 끝에 헤이리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회원들의 생각 가운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이리 안에 특별한 중심을 두지 말자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마을 한가운데의 습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것의 연장으로서 비워두는 개념의 광장을 설계하였다. 또한 외곽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9군데의 진출입로를 만들었다. 넓은 단지의

특성상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진출입로 개념의 도입에 의해 특정한 중심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헤이리 회원들은 이 같은 방법론이 헤이리 회원들의 주체적 조건에 맞는 민주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우선 헤이리는 서울이라는 중심을 탈피하여 건설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다시 헤이리 안에 중심과 주변으로 분화되는 단지개념이 필요한 것인지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헤이리 회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프로그램 역시 장르와 형태가 다르다 해도 문화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기능적 조닝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좋은 땅, 비싼 땅의 개념이 생겨난다. 그것이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장르별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또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장르에 따른 정확한 수요를 계량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사회는 장르의 구분이 점점 멀어져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적절하게 다른 장르들이 섞여 있는 속에서 오히려 역동적인 문화충돌과 새로운 장르 탄생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헤이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직조된 조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기능이 분리된 유일한 곳으로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다수의 내방객들에게 자신의 공간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창작자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정하였을 뿐이다.

3) 생태적 패러다임

과주시의 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후 헤이리 회원들은 기반시설공사가 단순 토목공사를 넘어 문화예술마을이라는 헤이리의 성격을 경관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연구하였다.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헤이리 내부에 공사 관리를 위한 인적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CM(Construction Management) 관리기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면서도 시공사와 CM사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드러나는 쟁점들을 끝없이 토론하였으며, 검증되지 않은 공사기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덜 훼손하며 미학, 디자인, 경관적으로 전향

적인 것이라면 채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자주 회의를 가질 때는 이 같은 회의가 주 1회 열렸다. 회의에는 헤이리 건설(분과)위원들과 건축코디네이터, 사무국 관계자, 시공사, CM사가 참석하였다.

이같이 헤이리 회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해가며 만들어가는 노력은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지침 작업, 문화적 프로그램 기획, 헤이리 운영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졌다. 그런 가운데 비록 충분치는 않을지라도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헤이리 건설의 방향과 방법론에서 상당한 정도의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물리적 환경의 구축에 반영되었다.

헤이리 단지조성의 미덕은 뭐니 뭐니 해도 전체의 30%에 이르는 원형의 자연을 그대로 남겨둔 일이다. 15% 남짓은 도로와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용지로 할애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별필지에서의 녹지공간이 절반이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이 놓이게 되는 면적은 전체대지의 25%를 넘지 않게 된다.

마을 한가운데의 늪지는 원형대로 보존해두었다. 그리하여 늪지는 헤이리 녹지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생태마을의 중요개념 가운데 하나인 비오톱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리를 개념적으로 ‘생태마을’로 정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히 건축물의 소재와 에너지 시스템 등에서 한계가 있다. 그것은 헤이리가 전일적인 생태마을을 지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15만평 규모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에너지, 설비 시스템 같은 영역에서만만큼은 검증된 기술이나 방법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건축소재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뒤따라주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의 생태도시, 생태건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었다. 헤이리 내부의 공공적인 영역에서만만큼은 조직적 논의를 통해 최대한 도입이 시도될 수 있었으나, 370여명의 회원과 수십 명의 참여건축가 전부에게서 수미일관한 생태건축 체계하의 건축을 기대하기에는 주객관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적 영역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성과는 블록을 사용해 도로를 포장한 점이다. 헤이리의 도로는 아파트단지에서와 같은 단지내도로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시 공공시설이며, 조성 후 자치단체로 귀속되게 된다. 이 같은 도로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닌 블록 포장을 한 사례는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안다.

블록 포장을 관철시키는 데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시공사나 감리사 등에서 한결 같이 그리고 수도 없이 이의를 제기해오는 것이다. 우선 국내에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도 짚어졌다. 헤이리 건설위원회 내부에서 동요가 일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통해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끈기 있게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시공사와 감리사를 설득할 수 있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도로와 수로의 폭을 좁힌 곳이 두어 군데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인내심 있는 설득이 필요했다. 시공관련 엔지니어들의 눈에는 별반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법석을 피우는 것이 쉬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다.

포장되는 땅에 우수가 침투되도록 하는 원칙은 주차장, 광장 등 공공영역뿐 아니라 개별영역에까지 확장된다. 포장이 필요한 공간은 블록이나 목재 등으로 제한하고, 포장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인공성이 배제되는 부분에 다양한 야생식물과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두었다.

한편 헤이리의 길이나 수로 등은 통일동산이 조성되기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반영해 설계되었다. 원래의 지형 탓도 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곡선도로가 많고 높낮이가 있다.

4) 건축코디네이터와 건축설계지침

헤이리의 경관은 최종적으로 건축물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하여 헤이리 회원들은 처음부터 건축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으며, 방법론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더욱이 문화예술마을이자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있다 보니, 문화의 중요한 영역이면서 필연적으로 시대와 사회를 반영해야 할 건축을 어떻게 구현해갈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헤이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일군의 건축가 집단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편향됨 없이 건축계의 전 역량을 모아내되, 헤이리의 정신과 궤를 같이하는 ‘시대정신을 건축에 담아낼 건축언어가 젊고 진취적인 건축가’여야 한다고 방향을 모았다.

이렇게 하여 1차로 국내건축가 26명(팀), 외국건축가 15명(팀)의 참여 건축가그룹이 만들어졌다. 2002년 초 7명의 건축가가 새로이 합류하였으며, 2006년 현재 풀을 좀 더 확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조화로운 건축을 가능케 하기 위한 건축코드의 마련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건축 지침작업에 참여할 두 사람의 건축코디네이터를 선정하였다.

1년 이상의 작업을 거쳐 2001년 초 선보인 ‘헤이리 건축설계지침’은 250여 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틀로서 제안한 ‘건축적 랜드스케이프’를 구현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개별필지에 대한 적용기준까지를 도면화해 놓았다.

건축설계지침작업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했다. 또한 6개의 크고 작은 산자락과 그 사이의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의해 훼손되어 있는 헤이리의 지형조건에 대한 재해석에서 출발해야 했다.

코디네이터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인공의 요소들을 한 데 모을 것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자연의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렇게 남겨진 부분은 마을의 공원 입과 동시에 개인의 넓은 정원이 된다는 것이다.

지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된 건축적 전략은 크게 먼저 건축적 하부구조를 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건축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건축적 하부구조의 틀 위에서 바닥판과 건물의 관계는 필지가 계획된 원지형의 여건과 주변필지 혹은 마스터플랜 상에 분할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 의해 가)패치(patch)/선형건물(bar type), 나)플레이트(plate)/오브젝트 유형(object type), 다)경사지 패치(patch)/포디움 유형(podium type), 라)게이트 하우스로 구분되었다.

건축지침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제 구현될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130여 채가 착공하거나 준공되고, 그밖에 100여 채의 설계도면이 심의된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5. 프로그램/소통

헤이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하나의 문화적 인프라이다. 순수 민간의

힘으로, 그것도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내고 있다.

헤이리 회원들이 꿈꾸는 마을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다. 헤이리 바깥의 문화예술인들과 문화를 즐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마을이다.

이 같은 지향점은 초기부터 흐트러짐 없이 견지되어오고 있는 원칙이다. 그리하여 겨우 토지를 확보한 단계인 1999년부터 ‘헤이리 퍼포먼스’라는 이름의 문화행사를 헤이리땅에서 개최하였다. 그 같은 노력이 이어져 2003년부터는 가장 핵심이 되는 헤이리페스티벌을 시작하는 한편, 중국현대예술축제, DMZ 프로젝트, 윤이상 음악회 등 다양한 예술행사로 그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헤이리 외부의 작가, 음악가, 기획자들에 의해 꾸려졌다.

마을이 채 조성되기도 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갖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헤이리 회원들이 헤이리에서 펼치고자 하는 활동의 주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조성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퍼포먼스라는 인식하에 그것을 문화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모색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온전한 조성이 이루어진 후에 펼쳐갈 예술 활동에 대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헤이리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광장이다. 누구든지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예술가는 예술행위를 통해, 대중들은 예술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헤이리에서는 참여형 예술프로그램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헤이리를 방문하는 문화애호가들은 헤이리의 예술가들과 만남으로써 단순소비자에서 문화생산의 한 주체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우리 사회 도처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를 포함해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에서 벤치마킹이나 연구를 위해 헤이리를 방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헤이리는 이미 유의미한 ‘문화적 실험’이 되어 있다.

6. 글을 맺으며

헤이리는 이미 헤이리 회원들만의 자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이

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큰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헤이리가 나름의 결실을 거두어 온 것은 우리 사회에 그 같은 공간에 대한 요구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헤이리 회원들은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포착해내고 스스로 그 변화를 추동해갔다.

조성의 전 과정에서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견지한 점도 중요하다.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결정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 만들기의 한 모델을 개척하였다.

무엇보다 새로운 도시 만들기이되,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갈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도시)의 성격을 정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건축, 환경디자인, 조경에 이르는 ‘도시 만들기’의 전 영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드문 사례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다. 시행착오도 많았다. 보통의 신도시 건설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낯설기도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헤이리의 불확정성이 꼭 단점만은 아닐 것 같다. 통상적인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금 겪게 될 시행착오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시간의 켄가 생기고 독창적인 문화가 창조되고 헤이리의 전통과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토론〉

이현식: 멀리까지 와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경위를 잠시 설명드리면, 인천 문화재단이 작년에 출범했는데 올해부터 인천 지역의 문화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를 첫 번째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우선 강화 지역이 원래부터 자연적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과,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해 오셔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점도 특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를 테면, ‘예술인마을’ 같은 것이 형성되었는데, 그런 특성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강화에 거주하시는 주민, 문화예술인들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인천문화재단 최원식 대표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원식: 먼저 강화에서, 강화 문화예술에 관한 워크숍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모임보다는 먼저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좀더 효율적인 것 같고, 이런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강화 주민들과 논의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인천 민예총의 허용철 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사람이고 송림초등학교를 나왔는데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전등사에 온 것이 저의 첫 강화 경험입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언제나 송도 아니면 근교였어요. 그때는 인천 사람들도 바다 못 본 사람이 많았죠. 강화도 넓은 곳이니, 강화 분들도 바다 못 보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동이나 유목이라는 게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아무튼 6학년 때 처음으로 강화에 왔는데, 굉장히 멀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몇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는 강화의 첫 기억들이 강화에 대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등사는 큰 절은 아니지만 그곳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강화엔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화에 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지만, 사실 강화는 인천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강화 분이셨고, 또 인천을 대표하는 분 중 강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의 강화의 체험은 늦었지만 인천과 강화는 거의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사는 저로서는 늘 강화에 대해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별함에도 불구하고, 강화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워크숍을 이제야 가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강화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화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혹시 보탬 말이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워크숍이 강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또 강화와 인천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훌륭한 논의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현식: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강화의 전망을 어떻게 그려야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종합발전계획의 내용과 강화 관련 문화예술정책을 점검하고, 또 강화와는 다르지만 헤이리 예술인마을의 사례도 검토해 보았던 것입니다. 먼저, 강화군 문화관광과 임태섭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강화종합발전 전략은 2001년도 인천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것인데, 이 계획이 나온 후 말들이 많았습니다. 발전전략 자체도 정치적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가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던 상황에서 당시 최기선 시장이 종합발전전략을 만들어 강화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인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비 가운데, 군구 단위 중에는 가장 최대의 금액이 투여되었을 겁니다. 임태섭 팀장님께서서는 혹시 강화군 차원에서 이 종합발전전략이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최근 토지공사에서 발전전략을 또 내놓았는데 그것이 어떤 지향을 갖는지, 아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 문화예술인은 강화의 자부심

임태섭: 강화군청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임태섭입니다. 저는 고향이 강화이고 강화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에 강화가 청정지역이고 역사 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라 말씀하시지만, 이 안에서 나고 자란 저는 정작 그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전가능성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자들께서 해 주신 말씀도 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욱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강화종합발전계획은 2001년 인천시의 발주로 나온 결과인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1995년 강화군이 인천시로 통합된 이후에도 경기도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강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잠시,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한 제 느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의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특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지역에 많은 외부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해 오고 계시는 것을,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마케팅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적 기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문화적 기반만이 강화인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 열악한 상황을

해쳐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나온 자연사박물관이나 고려역사촌 같은 것은 당시에는 분명 이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 자체가 유보된 상황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도 90년대 말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발표한 후 강화군과 타지방에서 엄청난 경쟁을 벌였습니다. 강화 선원면 연리에 십만 여평을 유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중앙부처에도 로비를 벌였는데, 그 계획 자체가 유보되었어요. 고려문화촌도, 속칭 강화보릿고개 너머 임야 부근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 역시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강화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화 고인돌 인근 송해면에 사설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가량이고 지금 설계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화역사박물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을 기준으로 왼쪽은 강화역사박물관, 오른쪽은 강화자연사박물관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애영씨가 고인돌 축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천여 개의 축제가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두 똑같습니다. 강화 고인돌 축제는 인천의 대표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떼면, 축제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타지역과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또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회지에 사는 분들은 문화생활을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강화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강화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헤이리 같은 경우는 15만평이라는 구역 안에 문화예술인 단지 같은 것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강화의 문화예술인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강화에는 요소요소에 문화재와 볼거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화에도 거점을 잘 정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신다면 주민들에겐 문화향유의 기회도 늘릴 수 있고, 또 문화예술인들에겐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강화로 오셔서 역량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인들을 강화의 문화유산으로

김경준: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이랑 놀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매우 좁습니다. 발표자 세 분은 전문가이신데, 제 수준이 좀 낮더라도 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하고 놀면서 틈틈이 가이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군수님도 강화군 문화관광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고 그런 교육을 원하셨거든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군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화유산해설사 제도가 있기 전부터 활동을 해 온 것이죠. 방금 임태섭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 사람들은 강화의 중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외부에서 관광버스 들어오면 왜 들어오나 하고, 1년에 한 번씩 쫓겨 모아서 바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강화를 평할 땐 엄청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설사 분들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관광버스 안에서 해설하실 때 그 중 강화 전문가가 앉아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고요(웃음).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죠. 그만큼 강화도는 바깥에서 주목하는 곳이니깐요. 그럼, 강화도 차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따져봅시다. 고인돌 문화축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리가 자리인 만큼 결례를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일전에 문예회관에서 학생들에게 강화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군수님도 계셨습니다. 그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도에 가면 입구 양쪽에 진돗개 두 마리가 앉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진도구나, 하고 알게 된다, 그런데 강화대교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강화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다 알고 오는데 그런 말을 뭐하러 하느냐, 또 ‘선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선진이나, 라고요. 군수님 계시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제 말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고인돌 문화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제작년 중학교 교과서에 그림 네 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북 궁 근정전, 백제 부여 삼존불, 신라 와당,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대한민국 중학생은 다 봐야 하죠.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강화 고인돌이 세 번 더 나옵니다. 그만큼 고인돌이 중요하죠. 그런데 김애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화고인돌 축제는 고인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그저 군 홍보수단에 불과합니다. 작년 축제 때 고인돌 사랑회에서 사진 찍어서 패널 20여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부터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봤습니다. 안내원이 사진전시 보러 온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거 싫어서 왔던 사람들도 달아납니다. 고인돌 보러 왔는데 군에서는 청동기 유물 조금 걸어놓고 전문용어까지 동원해서 설명을 붙입니다. 축제는 놀러 오는 데입니다. 그렇게 공부시키려 들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렇다면, 고인돌을 어떻게 강화의 문화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고인돌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은 고창과 화순입니다. 제가 찾아가 봤는데, 고창과 화순에 2000여개씩 있습니다. 강화에는 5,60개 있거든요. 강화도는 남한에서 제일 크다는 부근리 고인돌 하나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화순에 가 보면 골짜기 따라 고인돌이 수백 개가 늘어서 있어 정말 멋있습니다. 그거 보면 강화도 고인돌은 초라하죠. 고창도 마찬가지로. 길 따라 평지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맞은 편 평지에 당시 생활을 재연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는 재연한다는 게 그냥 좀 똑딱거리는 걸로 끝납니다. 강화고인돌 축제가 강화의 대표축제로 자리잡음으로써, 사실 강화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장소도 협소하고 변변한 관련 행사도 없는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인돌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화의 주인은 사람이니까요. 조금만 사료를 찾아보면,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문화수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초기 국가 형태가 이루어졌고, 뼈바늘이 발굴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옷감도 짚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화문화예술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은 사실 강화의 매우 큰 문화적 자산입니다. 이분들은 강화가 좋아서 온 분이니, 창작 활동도 도와드리고 떠나지 않게, 속된 말로 돈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창작 하나에 목숨 건 분들이고, 가난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놀이판만 열어주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생산될 것이고 그것은 강화의 큰 재산이 될 겁니다. 아까 양성욱 박사님께서 강화종합발전전략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화도에 온 지 올해로 20년입니다. 그동안 강화발전계획이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제 기억에 네다섯 번 나왔습니다. 강화 시민연대에서도 없는 돈 털어서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마다 ‘발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20년 살아보면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차라리 ‘변화’라고 쓰는 게 낫죠. 20년 동안 강화는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복덕방도 없었는데, 지금은 강화대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쪽 늘어선 공인증개사와 땅입니다. 학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인구는 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발전계획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발전은 못하고 이런 변화만 생긴 이유는, 그런 발전계획 중에도 좋은 게 있을 텐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양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그룹을 양성해서 장기적 시각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화도 양구에 가면 그 차도 안 다니는 산골짜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양구군 관광센터입니다. 거기 가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강화도가 어떻다 하지만, 막상 들어오면 길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데, 외부 사람들이 강화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나마 있는 문화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그간의 종합발전 계획을 재점검하고 실현가능한 것들은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푸는 것이 강화문화발전의 핵심

양태부: 원래 강화문화위원장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강화의 남궁씨 시체에 참석하시느라 오늘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애영 지부장님은 강화에 오신지 3년이라고 하셨고, 양박사님은 5년, 김경준 교감선생님은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하시는 건 다들 피해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강화를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강화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강화 인구 6만 5천 명 중, 농민, 어민, 공무원, 사업가 빼면 예술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런 분들과 강화의 원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양자를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것이 강화 문화예술지역 특성화 방안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 강화에서 유명하다는 분들도 원래는 이주민이었는데 살아가면서 강화의 원주민이 되어간 것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이 강화에 유명한 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를 보면 강화 동막에 함민복이라는 시인이 삽니다. 한 번 찾아보니까 섬진강에 김용택 시인이 있는 것처럼 강화 동막엔 함민복 시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분은 충주 분이지만 강화에 오래 살면서 강화 시인이 됐고 또 강화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강화의 원주민들께서도 강화에 들어와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을 애정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화에 새로 들어오신 문화예술인들도 강화 원주민의 정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강화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시각의 차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시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양태부 선생께서 말씀하신 이방인과 원주민 문제와 연관되는데, 데모크라시라는 말에서 ‘데모’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 이주해서 사는 모든 사람을 민주주의 주체로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와서 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지역민이 되는 겁니다. 이주민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 지역의 혈연적 전통입니다. 따라서 지역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쇄적인 향토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정책에서도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화의 지역성을, 섬,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갇혀있는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강화는 바다의 거점, 강을 거쳐 교류하는 거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강화라는 지역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볼 것인지, 강화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무엇으로 볼지가, 지역전략의 핵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도를 한강 하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화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범위를 넘나들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유라시아 범위에서

강화의 문화사가 정의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고인돌이 만들어진 선사시대가 있었고, 유라시아에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화가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넓은 간척지들은 강화가 유라시아 시스템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일제 시대까지 강화는 유라시아 시스템 안에서 사유되었고, 한국 전쟁 이후 일국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지역성을 사고할 때, 가깝게는 남북문제도 포함되겠지만, 동아시아, 유라시아의 시스템 속에서 강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을 세울 때도, 그런 공간 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고인돌에서 승천포로 연결되는 라인을 하나의 큰 벨트로 형성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의 모든 역사를 함축하는 역사문화 벨트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술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이나 비평, 이론, 교육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비전입니다. 실제로 강화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상상력을 펼칠 공간만 제대로 있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이를 테면, 지금의 강화문화원 건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벨트를 형성해서 창작자들이 공연, 발표할 수 있는 종합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간을 채울 콘텐츠와 기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평과 이론은 예술 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척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문화예술의 소비자roman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교육을 통해 창작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때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강화 문화예술인들이 네트워킹하자

손동혁: 제가 오늘 보니까 강화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여기서 말 거 들고 있는 사람은 이상 선생님과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의 말은 외부자의 견해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화에 처음 온 것은 17년 전쯤입니다. 수련회로 오거나 친한 친구들과 술먹으로 많이 왔습니다. 어딜 가든 느낌이 다르고 편안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강화에 더 오래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강화 분들에게 그런 게 불편하시겠지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인천시 전체에서 봤을 때 강화는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강화를 중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화 바깥 사람과 강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처음 같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강화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강화 바깥, 인천이라는 전체 공간에서도 지속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다보면 자꾸 먹고사는 문제를 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또 먹고사는 이야기는 언제나 관광과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하나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화에 대해 아는 분들은 다 알듯이, 현재 강화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곳에 이주해온 예술인입니다. 그 인적자원을 강화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강화가 먹고사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타지역 예술인을 일부러 모셔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그에 응하신 예술인들만 110분입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굉장한 자원이죠. 7만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화군 발전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 안에서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엔 오히려 강화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더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관이나 유관기관에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헤이리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뜻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돈 모아 땅 사서 문화예술촌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이미 모여 계시잖습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킹하여 각자의 예술적 역량을 자발적으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강화문화원, 강화민예총 분들이 다 나와 계신데, 먼저 그분들이 주도해서서 강화 포럼이든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강화를 문화예술적으로 특성화하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강화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특히 소외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의 관련 주체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도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찾아가는 공연’, 체험교육 등등 강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이 많습니다. 강화 분들은 앉아서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리스트를 만들고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아까 김정준 선생님께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강화 문화예술인 및 강화의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모여서 의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 하면 언제나 5년, 10년 단위로 나오는데, 문화 쪽은 더 길게 가야 합니다. 한 30년 정도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강화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이미 예술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기 위해 들어오셨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여

기서 계속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긴 호흡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강점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양성욱: 강화의 문화예술을 토론하는 자리가 생겨서 기쁩니다. 간단한 바람을 덧붙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토론 자리가 생겼을 때 열린 구조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응집해 나가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의뢰받고 종합발전계획 등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짧은 기간 내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 진실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 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예술이나 문화 쪽 종사자들이 그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화 주민 중에서도 개발을 얼마나 또 어떻게 원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발전계획을 던지기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애영: 민예총에서 활동하면서 또 이번에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인데, 강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예술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동혁 선생님 제안처럼, 강화발전계획을 정치나 경제 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인들이 스스로 나서 준비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야겠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예총에서 제안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식으로든, 문화의 힘으로 강화 지역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 인천문화재단에서 이런 자리를 만드시는 데는, 강화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강화 주민들의 삶 속에서 재해석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뜻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화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연적으로 유입해 오셨다는 점에서 헤이리와 다른데, 여기에 목적의식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까 토론과 발제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발전’이나 ‘개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문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발전’ 혹은 ‘개발’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인천시나 토지공사 같은 근대화적 물량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새롭게 접근해 갔으면 합니다. 전통 문화유산도 현재적으로 복원하여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왕골, 인삼 등등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전통문화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현대 예술과 접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강화가 인천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강화는 한국 전체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강화의 발전 전략은 정말로 유능한 코디네이터를 위촉해서 단순한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라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보면, 중요한 건물이나 자원을 코디네이터가 새롭게 예술적으로 디자인합니다. 거기서부터 지역 전체 문화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죠. 강화 역시 전통문화와 새로운 현대문화 예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국책 고려문화재연구소 유치에 힘을 합하자

최원식: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경준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강화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손동혁 선생님이 말했듯이,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유산과 이주문화예술인들인 것 같습니다. 양태부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원래 살았던 분들과 이주민들 간의 대화의 통로를 조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주해 온 예술가들과 원주민이 서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만나고 있는지가, 강화 발전의 관건입니다. 사실 인천에서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김애영 선생님 말

씀처럼, 강화 문화예술인들이 포럼을 조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임이 강화의 중요한 문제들을 공론으로 부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태섭 계장님,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사실 인천시는 무서워서 안 나왔거든요 (웃음). 관은 빼고 민끼리 하자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총력전을 해야 하거든요. 관과 민, 각 조직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임태섭 팀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군수님께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전에 유흥준 문화재청장님을 만났을 때, 문화재청이 새롭게 중시하는 것이 근대 문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문화재 하면 고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근대문화라는 겁니다. 사실 그 때 인천시 중구와 동구에 근대문화재 박물관 지정을 받으려고 청장님을 만났는데, 그 때 유흥준 청장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강화에 국책기관으로 고려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자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신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에, 가야문화재연구소는 김해에 있고, 또 백제문화재연구소는 호남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준 청장이 보기에다 강화도에 고려문화재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연결돼요. 강화에 고려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강화와 개성에 연륙교를 놓는 인천시 계획 등을 통해 강화와 개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사실, 개성, 강화, 인천이 고려 시대의 삼각주거든요. 고려 시대에는 인천이 'TK'였어요. 인주 이씨가 고려 조정의 3대 귀족 가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고려의 지주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려가 위기에 빠지면 항상 강화로 갔기 때문에, 강화, 인천, 개성이 하나였죠. 지금 개성 공단에 인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남쪽에서는 강화가 고려문화의 메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인천이 남북 교류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천이 개성 공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인천에서도 할 테니, 강화도에서도 추진해 주세요. 물론 고려문화 외에도 고인돌 문화 등 다른 문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국책기관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강화에 국책 고려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다같이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인들이 포럼을 조직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일을 통해 연대가 가능합니다. 이런 논의는 강화군뿐 아니라 인천시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화가 인천시에 들어왔지만 인천과 강화 사이의 소통이 매우 부족합니다. 강화 사람들은 인천이 별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또 인천사람들은 강화가 특하면 경기도로 돌아간다고 해서 서운해 하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 인천과 강화가 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저도 강화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식: 오늘 워크숍에서, 강화 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비전이랄까,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포럼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나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발전전략의 한계들을 넘어 강화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인천문화재단도 많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화의 미래를 기획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발표와 토론,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FAC 연구보고서 2006-03

인천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 - 강화

발행인 최 원 식

발행일 2006년 12월

발행처 (재)인천문화재단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앙공원길 38 한국토지공사 B/D 3층

전화 032-455-7100 팩스 032-455-7190

홈페이지 www.ifac.or.kr

인 쇄 어진터

ISBN 89-92678-11-8 9368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인천문화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